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15년 2월

2015년 2월
박사학위논문

박사학위논문

광주광역시 여성친화도시 정책에 관한 연구

광주광역시 여성친화도시 정책에 관한 연구

채명희

조선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채명희

광주광역시 여성친화도시 정책에 관한 연구

**A Study on Women Friendly Urban Policies
in Gwangju City**

2015년 2월 25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채 명 희

광주광역시 여성친화도시 정책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오 수 열

이 논문을 정치학 박사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10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채 명 희

채명희의 박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전남대학교 교수	<u>윤성석</u>	(인)
위 원	호남대학교 교수	<u>신미식</u>	(인)
위 원	경남대학교 교수	<u>이경희</u>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u>이창헌</u>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u>오수열</u>	(인)

2014 년 12 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 목 차 >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3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설계	5
제3절 선행연구 검토	8
제2장 국제사회 여성친화도시 현황과 국내 동향	15
제1절 페미니즘의 진화	15
1. 페미니즘과 여성친화정책	15
2. 페미니즘의 흐름	17
3. 포스트모더니즘과 페미니즘	19
4. 한국의 페미니즘과 여성친화도시	20
제2절 여성친화도시	22
1. 여성친화도시의 시대적 요구	22
2. 외국의 사례	24
제3절 한국의 여성친화정책 현황	29
1. 법과 제도를 통한 여성권의 향상	29
2. 여성가족부의 역할 증대	30
3. 국회의 관련 법 개정 노력	31

제4절	여성친화도시 지정과 발전 과정	32
1.	국내 여성친화 문화의 확산	32
2.	여성친화도시의 특징과 핵심 가치	33
3.	여성친화도시 추진절차	35
4.	국내 여성친화도시의 지정 현황	38
제3장	광주광역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현황	41
제1절	외부에서 본 광주광역시 여성친화도	41
1.	선행 연구 결과와 광주광역시의 위상	41
2.	광주광역시의 분야별 여성친화도	45
제2절	광주광역시의 여성친화도시 지정 배경과 사업 목표	55
제3절	광주광역시의 여성친화도시 관련 조례	59
제4절	광주광역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분석	64
1.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개요	64
2.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 및 광주여성재단의 주요사업	69
제5절	광주광역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75
1.	나열식 사업 지양	75
2.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필요	76
3.	홍보·교육 프로그램 강화	79
제4장	광주광역시 지방의원과 시민대상 여론조사	80
제1절	조사 연구의 실제	80
제2절	광주광역시 지방의원 여론조사	83

1. 지방의원 서면 조사	83
2. 전·현직 지방의원 면접조사	94
제3절 광주광역시민 대상 설문조사	98
1. 설문조사 배경	98
2. 설문조사 통계 분석	99
제4절 인지도와 타 항목과의 관계 분석	130
1. 인지도와 여성친화도시의 지역 기여도	130
2. 인지도와 여성친화적 환경수준	131
3. 낮은 인지도와 높은 기대감	132
제5절 여론조사에 따른 함의	134
1. 선행 연구의 조사결과	134
2. 본 연구의 조사결과	135
3. 여성친화도시와 광주광역시의 도시경쟁력	137
제5장 광주광역시의 여성친화도시 발전 방향	139
제1절 여성친화도시 가치의 재정립	139
1. 여성친화도시 가치향상을 위한 방안	139
2. 광주광역시 이미지 관련 논의	140
3. 발상의 전환을 통한 홍보강화	143
제2절 정책의 선택과 집중	144
1. 광주광역시 여성친화도시의 핵심과제 논의	144
2. 자치단체장의 강력한 의지 필요성	151

제3절	여성인력의 양성과 활용	154
1.	광주광역시의회 ‘여성친화도시 특별위원회’ 구성	155
2.	여성의 지방의회 진출 확대와 여성친화도시 발전	159
제4절	지역 특화사업의 추진	157
1.	광주광역시의 광역단위 지역특화사업의 지향점	157
2.	광주광역시 공통사업 및 5개 자치구 지역 특성별 사업 발굴	158
3.	광역단위 지역특화사업과 5개 자치구의 연계활동 강화	159
제6장	결론	163

<표 목차>

<표 1> 연구 목적을 위한 자료수집과 비교 분석의 의의	7
<표 2> 여성친화도시 국내외 우수 사례	28
<표 3> 여성친화도시 지정 기준 및 조건	38
<표 4> 여성친화도시 지정도시(50개 도시)	39
<표 5> 여성친화도시 국내외 우수 사례	40
<표 6> 여성친화도시 평가 지표	42
<표 7> 지역 성평등 지수의 영역과 개별 지표	43
<표 8> 지역별 성평등 지수	44
<표 9> 광주광역시 광역의원 여성당선인비율	45
<표 10> 광주광역시 기초의원 여성당선인비율	46
<표 11> 광주광역시 국회의원 여성당선인비율	46
<표 12> 2012년 전국 및 광주광역시 경제활동 참가율	48
<표 13> 2012년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48
<표 14> 2011년 광주지역 문화시설 충분도- ‘충분하지 않다’의 비율 (단위: %)	53
<표 15> 광주지역에 부족한 문화시설	54
<표 16> 관리직 여성공무원 현황(광주광역시)	57
<표 17> 광주광역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 과제 유형	59
<표 18> 광주광역시 ‘성평등 조례’ 중 여성친화도시 관련 사항	60
<표 19> 자치단체 여성친화도시 관련 조례 현황	63
<표 20> 광주광역시 2013 여성친화도시 신규 추진사업 목록	65
<표 21> 광주광역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2013 여성친화도시 추진사업	66
<표 22> 광주광역시 및 5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현황 종합	68
<표 23> 여성친화도시 아이디어 경진대회 연도별 선정 현황	70
<표 24> 광주광역시 동구 여성친화·인권보장·주민행복마을 만들기 사업	73

<표 25> 2012년 자치구별 아동복지시설 수 및 생활인원	77
<표 26> 2011년 자치구별 노인복지시설 수 및 생활인원	77
<표 27> 2011년 자치구별 장애인복지시설 수 및 생활인원	78
<표 28> 광주광역시 지방의원 대상 서면조사 개요	81
<표 29> 서면조사 대상 광주광역시 지방의원 성별 분포도	81
<표 30> 서면조사 대상 광주광역시 지방의원 지역별 분포도	81
<표 31> 광주광역시 전·현직 여성 지방의원 면접조사 개요	82
<표 32> 광주광역시 전·현직 여성 지방의원 면접조사 분포도	82
<표 33> 광주광역시민 대상 설문조사 개요	82
<표 34> 설문조사 대상 광주광역시민 성별·연령별 분포도	83
<표 35> 설문조사 대상 광주광역시민 직업별 분포도	83
<표 36>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 방식 관련 조사 통계표	86
<표 37> 여성친화도시 기여도 관련 지방의원 조사 통계표	88
<표 38> 지역특화사업 필요성에 대한 지방의원 조사 통계표	90
<표 39> 광주광역시 유·무형 자산 중 지역특화사업 발굴 아이템 대한 지방의원 조사 통계표	91
<표 40> 지방의원과 주민들 간의 여성친화도시 교감 실태 지방의원 조사 통계표	94
<표 41>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 참여 전·현직 여성 지방의원 면접조사 질문 요지	95
<표 42> 설문 응답자의 일반적 특징	100
<표 43> 응답자의 성별-연령별 교차표	100
<표 44> 응답자의 성별-직장유무별 교차표	101
<표 45> 응답자의 연령별-직장유무별 교차표	101
<표 46> 여성친화도시 인지도	102
<표 47> 성별에 따른 여성친화도시 인지도	103
<표 48> 성별에 따른 여성친화도시 인지도	104
<표 49> 직장유무에 따른 여성친화도시 인지도	104

<표 50> 여성친화도시 인지도 T-검정	105
<표 51> 여성친화도시의 광주도시 이미지 기여도	106
<표 52> 성별에 따른 여성친화도시의 광주도시 이미지 기여도	107
<표 53> 연령에 따른 여성친화도시의 광주도시 이미지 기여도	107
<표 54> 직장유무에 따른 여성친화도시의 광주도시 이미지 기여도	108
<표 55> 여성친화도시의 광주도시이미지 기여도 T-검정	109
<표 56> 여성친화적 환경 수준 체감도	110
<표 57> 성별에 따른 여성친화적 환경 수준 체감도	111
<표 58> 연령에 따른 여성친화적 환경 수준 체감도	111
<표 59> 직장유무에 따른 여성친화적 환경 수준 체감도	112
<표 60> 여성친화적 환경 수준 체감도 T-검정	113
<표 61> 광주광역시 대표 도시 브랜드 선호도	114
<표 62> 성별에 따른 광주광역시 대표 도시 브랜드 선호도	115
<표 63> 연령에 따른 광주광역시 대표 도시 브랜드 선호도	117
<표 64> 직장유무에 따른 광주광역시 대표 도시 브랜드 선호도	119
<표 65> 광주광역시의 대표 유·무형 자산 선호도	121
<표 66> 성별에 따른 광주광역시의 대표 유·무형 자산 선호도	122
<표 67> 연령에 따른 광주광역시의 대표 유·무형 자산 선호도	125
<표 68> 직업유무에 따른 광주광역시의 대표 유·무형 자산 선호도	127
<표 69> 인지도와 여성친화적 환경 체감도	129
<표 70> 2013 여성친화도시조성 주요 핵심과제 목록(75건)	146
<표 71>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핵심과제와 설문조사 상관성	150
<표 72> 광주광역시 도시 브랜드와 여성친화도시 핵심과제 상관성	158

[그림 목차]

[그림 1] 여성친화도시 발전을 위한 필요 사항(다중 응답)	12
[그림 2] 국비 지원의 필요성	12
[그림 3] 법률 개정작업 검토 분야	13
[그림 4] 법률 개정작업 필요성	13
[그림 5] 여성친화도시 특징과 핵심가치	35
[그림 6] 여성친화도시의 조성 과정	37
[그림 7] 지역별 여성친화도	44
[그림 8] 대표성 제고 영역의 성평등 지표 값 변화 추이	47
[그림 9] 2012년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49
[그림 10] 보건 및 복지 분야의 지역별 여성친화수준	50
[그림 11] 복지 영역의 성평등 지표 값 변화 추이	50
[그림 12] 안전 분야의 지역별 여성친화수준	51
[그림 13] 가정과 안전한 삶 영역의 성평등지표 값 변화 추이	52
[그림 14] 가족 및 문화 분야의 지역별 여성친화수준	52
[그림 15] 2011년 광주지역 문화시설 충분도 - '충분하지 않다'의 비율	54
[그림 16] 광주지역에 부족한 문화시설	55
[그림 17] 광주광역시 여성친화도시 비전과 목표	58
[그림 18]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방식 관련 전체 의원 조사 결과	85
[그림 19]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 방식 관련 남여 의원 조사 결과	85
[그림 20] 여성친화도시 기여도 관련 전체 의원 조사 결과	87
[그림 21] 여성친화도시 기여도 관련 남여 의원 조사 결과	87
[그림 22] 여성친화도시 지역특화사업 필요성에 대한 전체 의원 조사 결과	89

[그림 23]	여성친화도시 지역특화사업 필요성에 대한 남녀 의원 조사결과	89
[그림 24]	광주광역시 유·무형의 자산 중 지역특화사업 발굴 아이টে에 대한 지방의원 조사 결과	91
[그림 25]	지방의원과 주민들 간의 교감 실태에 전체 의원 조사 결과	93
[그림 26]	지방의원과 주민들 간의 교감 실태에 남녀 의원 조사 결	93
[그림 27]	여성친화도시 인지도	103
[그림 28]	여성친화도시의 광주도시 이미지 기여도	106
[그림 29]	여성친화적 환경 수준 체감도	110
[그림 30]	광주광역시 대표 도시 브랜드 선호도	114
[그림 31]	성별에 따른 광주광역시 대표 도시 브랜드 선호도	116
[그림 32]	연령에 따른 광주광역시 대표 도시 브랜드 선호도	118
[그림 33]	직장유무에 따른 광주광역시 대표 도시 브랜드 선호도	120
[그림 34]	광주광역시의 대표 유·무형 자산 선호도	122
[그림 35]	성별에 따른 광주광역시의 대표 유·무형 자산 선호도	124
[그림 36]	연령에 따른 광주광역시의 대표 유·무형 자산 선호도	126
[그림 37]	직업유무에 따른 광주광역시의 대표 유·무형 자산 선호도	128
[그림 38]	여성친화도시 인지도 설문조사 결과	130
[그림 39]	여성친화도시 기여도 설문조사 결과	130
[그림 40]	여성친화도시 인지도 시민 설문조사 결과	132
[그림 41]	여성친화적 환경 수준에 대한 시민 설문조사 결과	132
[그림 42]	미래의 광주광역시 대표 브랜드에 대한 광주광역시민 조사 결과	134
[그림 43]	현재 광주가 외부에 주기를 원하는 도시 이미지 조사결과	135
[그림 44]	광주광역시의 유·무형의 자산 선호도 시민 설문조사 결과	136
[그림 45]	의정실적 및 유권자 만족도 비교 결과	156
[그림 46]	지역특화를 고려한 추진 체계도	162

<부 록>

<부록 1> 광주광역시 지방의원 대상 서면조사 질문 내용	168
<부록 2> 광주광역시 전·현직 여성 지방의원 면접조사 질문 내용	169
<부록 3> 광주광역시민 대상 설문조사 질문 내용	170

<ABSTRACT>

A Study on Women Friendly Urban Policies in Gwangju City

Chai, Myeong-Hee

Dept. of Political Science and Diplomacy College
of Social Sciences, Chosun University

Advisor: Prof. Oh Soo-yol

Since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designated Iksan city as a Women Friendly City first in our country in 2009, 50 local organizations have been designated as Women Friendly Cities and each of them have been maintaining the designation. In that this is a policy that women are a form of media, it is judged that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s can enjoy the effects of this in their elected positions sufficiently. In fact, this has caused considerable side effects and there may be no residents in some cities.

So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designates only ten local organizations annually through strict judging standards. At any rate, it is expected that the Women Friendly City will continue developing. Further efforts to create a society where women are safe and all members of each family are happy will be made through good policy and vision in the age of women in the 21st century. Gwangju city was successfully in being designated as a metropolitan Women Friendly City along with five autonomous districts, the first in our country in December 2011. This is very meaningful to Gwangju city in that all the other local governments are municipal and provincial besides Gwangju city and the autonomous province of Jeju. However, leaders and public officers should be aware that

this is accompanied by a lot of responsibility for development and realization of the policy.

Three years have passed since Gwangju city started working on the women friendly city project. Now it should seek new changes beyond existing policy and this is the time when the status of Gwangju city and our self-esteem should be enhanced. Projects associated with the outstanding tangible assets of Gwangju should be pursued. When they are connected, they can create a synergy effect. We should have innovative planning power and new ways of thinking.

Through these, Gwangju's competitive power can be enhanced further and local images can become better. The four central values for a women friendly city of 'equality, caring, eco-friendliness and communication' can be applied with it. The method to solve the important task of creating jobs for women can be developed and the local economy can be activated.

The author has cared about the future of the women friendly city for such a long time and I was sure that Gwangju could be a happy city for a long time when sustainable items are developed in the five-year project. As a way for this, I intended to start a women friendly city project. So many people were interviewed using a questionnaire to obtain objective data and a number of relevant theses and papers were reviewed to develop a framework and directions for this study.

We have to catch the meaning of the following for the future of the women friendly city: "The appearance of a creative class expects a new city to appear. It should be recognized that culture is a necessary element to reinforce economic development and finally a creative class will be a center to build a city of the future."

Key word: Gwangju city, Women fiendly citiy, Women friendly citiy,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연구의 배경

국제적으로 여성친화도시(Women Friendly City)는 1970년대 북미 여성운동가들이 일상생활 속 여성의 안전을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추진의 일환으로 발전하였다. 성 주류화는 모든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영역의 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디자인, 실행, 모니터와 평가에서 여성과 남성의 경험을 통합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혜택을 받고 불평등이 조장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전략이다. 그 궁극적 목적은 성 평등을 이루는 것이다¹⁾를 의미하며, 1995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4차 세계여성대회에서 명시적인 행동강령으로 채택됨으로써 UN 여성 활동의 최우선 전략 목표가 되었다. 여성친화도시는 ‘UN Beijing Platform for Action(유엔 베이징 행동강령)’에서 참여 국가들이 성평등 실현과 여성을 통한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도시를 여성친화적으로 개조하기 시작하면서 발전되었다.²⁾

1981년 캐나다에서 시작된 ‘밤길 안전하게 다니기’ 캠페인을 효시로 하여, 1990년대에는 북미와 유럽에서 여성들이 도시 공간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활동하도록 하는 도시적 차원의 새로운 접근이 이루어졌다. 그후 1994년 OECD에서 여성과 도시 문제에 관한 논의가 시론적으로 다루어지고, 1996년 제2차 유엔인간정주회의에서는 해비다트 어젠다(Habitat Agenda) 차원에서 여성과 남성간의 평등성 실현에 관한 논의로 본격화되면서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기 시작하였다.³⁾

한국에서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은 여성가족부가 제시한 것처럼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정책과 발전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함께 참여하고 그 결과로써 혜택도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여성의 발전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여성정책을 운영하는 지역공간(행정)을 의미한다.’ 라는 기본 개념 하에 일상

1) 김재인 외, 『성평등정책론』 (서울: 교육과학사, 2007), p.7.

2) 최성지, ‘여성친화도시정책의 현황과 향후 과제’, 『월간국토』 통권372호, 2012. p.6.

3) 박태원 외, ‘여성친화도시의 개념과 도시계획 구성 요소’, 『월간국토』 통권372호, 2012. p.29.

생활단위인 기초자치단체에서 실행하는 지역 여성정책의 종합적 모델이다.⁴⁾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은 2009년 3월 전북 익산시가 여성가족부로부터 제1호로 지정되고 같은 해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면서 지방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 중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2011년 12월 전국 최초로 5개 기초자치구와 동시에 광역단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광주광역시는 2012부터 5개년 단위의 프로젝트를 수립하여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5개 자치구 역시 광주광역시와 공동 혹은 독자적으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사업 추진 2년만인 2013년 11월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가족정책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다른 광역시에 비해 활발한 여성친화정책으로 성과를 내고 있으며, 2012년 11월 전국 최초로 「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를 제정하는 등 여성친화 정책의 기반을 착실히 조성해 오고 있다. 하지만 광주광역시가 2013년까지 여성가족부에서 지정한 전국 50개 여성친화도시와 비교해 어떻게 차별화된 정책을 만들어냈으며 성과를 올렸는지는 심도 있게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

여성친화도시가 근본적으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추진된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광역자치단체의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도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광주광역시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해 아직까지도 시민들의 인지도(認知度)나 참여도가 기대만큼 높지 않고 각종 정책에 대한 체감 수준이 낮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본 연구를 위한 시민 설문조사를 통해 구체적 데이터로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은 기존 여성정책과는 달리 자치단체라는 지역적 범위 내에서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여성과 남성이 공동 참여하는 민관 거버넌스 등 협의체를 통해 사업 아이템을 발굴, 시행하는 방식으로 자치단체 행정에 여성의 요구가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으며 여성들 스스로 주체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한 열린 정책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이 여성뿐 아니라 지역 주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쟁력 강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이라는 기대는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도시뿐 아니라 지정받기를 희망하는 도시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다.⁵⁾

4) 여성부·익산시(<http://www.iksan.go.kr>),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약서’, 2009.

5) 이미원 외,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확산 정책 - 성별영향분석평가’, 여성가족부, 2012. p.27.

이러한 관점에서 이미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광주광역시는 이를 도시 마케팅의 한 분야로 삼아야 한다. 하지만 기초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편적인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한계는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으로는 광역단체나 정부의 예산 지원 없이는 독자적인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기초자치단체간의 사업의 중복, 그로 인한 예산의 낭비는 피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광주광역시는 주도적으로 5개구 기초자치단체와의 협치와 공조를 통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한 차원 향상된 정책 아이템 발굴과 실행을 통해 장기적인 여성친화도시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기초자치단체의 행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의 특수성과 주민들의 요구를 정책 가치로 삼아야 할 것이며, 광주광역시의 여성친화도시 정책도 이 점을 중시해야 한다.

광주광역시가 2014년 5월 발표한 ‘2014년 도시 경쟁력 실행과제’에는 인본민주도시·문화예술도시·경제기반도시·녹색환경도시·국제중심도시·첨단과학도시 등 6대 분야가 포함되어 있는 바, 여기에는 여성친화도시가 제외되었지만 이들 분야와 보조를 맞춘 사업의 발굴을 통해 여성친화도시로의 발전을 지속하여야 할 것이다.

광주광역시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총괄하는 이정남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은 언론 기고를 통해 “여성친화도시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다.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글로벌 프로젝트라는 인식아래 모든 사회구성원이 노력한다면 광주 세계 어디 내놓아도 손색없는 여성과 가족 모두가 행복한 창조도시로 거듭날 것이다”라고 천명한 바 있다.⁶⁾ 이런 비전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광주광역시의 여성친화정책에도 획기적인 변화와 개혁이 필요할 때가 된 것이다.

2. 연구의 목적

전국 최초의 광역단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광주광역시는 5개년 단위 계획인 조성사업을 시작한 지 3년째를 맞이했지만 대다수 시민들은 여성친화도시라는 용어나 개념을 잘 알지 못하고 있다. 2013년까지 지정된 전국 50개 여성친화도시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광역단위 모델인 광주광역시는 기

6) 이정남, 전남매일(, <http://www.jndn.com/>), 오피니언 기고문, 2013.

초자치단체와는 다른 차원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4년 동안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기초의원으로서 활동하면서 느낀 점은 집행부의 여성친화정책이 지나치게 께맞추기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의 체감지수도 낮다는 것이다. 나름대로 관련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는 등 여성친화도시 정착을 위해 노력했지만 기초자치단체라는 열악한 재정으로는 독자적인 사업을 할 수 없는 한계에 봉착할 때가 많았다. 때문에 광역단위 여성친화도시인 광주광역시의 경우는 좀 더 발전적인 방향에서 지역특성을 최대한 활용한 사업추진으로 여성친화도시를 강력한 도시 브랜드로 정착시켜야 하며 과감한 투자와 예산지원으로 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창조적 여성정책으로 발전시키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 5개 자치구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지원과 관련 업무의 공조를 주도해야 하고 방대한 광역행정 규모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이 전체 행정의 일부분에 머무를 수 있다는 전제하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광주광역시 현역 지방의원들⁷⁾ 대상으로 한 서면조사와 그 동안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깊이 관여한 광주광역시 전·현직 여성 지방의원⁸⁾들에 대한 면접조사, 광주광역시민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광역단위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현주소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통해 향후 여성친화도시 발전에 도움이 될 만한 다양한 정책제언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정책 제언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 과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 첫째, 광주광역시 여성친화도시의 조성사업에 대한 인지도와 만족도는 어떠한가?
- 둘째, 광주광역시 여성친화도시는 앞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 셋째, 현재 추진 중인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은 어떤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이 필요한가?
- 넷째, 여성친화도시와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광주광역시의 자산은 무엇인가?
- 다섯째, 광주광역시의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도시 이미지가 바람직한가?

본 연구에서는 정책 제언 중 선행 연구들과는 달리 광주광역시 여성친화도시의 미래 지향적인 발전전략으로 지역특화사업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지역특화사업은 한

7) 현역의원, 7대의회, (2014, 07, 01-2018. 06. 30)

8) 전직의원, 6대의회, (2010, 07, 01-2014. 06. 30)

지역이 갖고 있는 유·무형의 자산을 최대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뜻한다. 광주광역시에는 이제 여성친화도시의 4대 가치인 ‘형평성·돌봄·친환경·소통’에 충실한 사업추진과 함께, 지역을 대표하는 유·무형의 자산을 적극 활용하여 여성친화도시의 가치를 한 차원 높이고, 기본 개념을 확장시켜 나아감으로써 여성친화도시의 진화된 모델을 창출할 시점에 놓여 있다.

광주광역시에는 전국화, 세계화가 가능한 유·무형의 자산이 많고, 이들 자산과 여성친화정책이 연계되어 광역단위의 사업으로 추진되면 그 시너지 효과가 적지 않을 것이다. 광주광역시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은 5개년 사업이 마무리되는 2016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 조성된 기반과 성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추진이 이루어져야만 지역의 새로운 도시 브랜드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가 지속 가능한 여성친화도시로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도시 환경과 특성을 살린 광역단위 지역특화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향후 여성친화사업의 미래 지향점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하여 도시 경쟁력 관점에서 여성친화도시의 가치와 중요성이 조명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민주·인권·평화 도시라는 광주광역시의 자산과 상호 조화되면서 발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설계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하여 1차적으로 연구의 주된 내용인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기본 자료, 광주여성재단의 연구보고서, 언론보도, 인터넷 자료 등을 폭넓게 검토하였으며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광역단위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연구의 기본 방향을 정립하였고, 보다 명료한 연구 목적을 도출하기 위해 다수 선행 연구를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기본 조사·분석을 거쳐 여성친화도시 전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여성친화도시의 출범 배경과 국·내외 동향을 고찰하였고, 연구의 주된 대상인 광주광역시의 광역단위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 흐름은 첫째, 문헌 연구를 통하여 여성친화도시의 이론적 배경으로 여성학 이론과의 관계 그리고 국내·외 여성친화도시의 동향을 파악하였다. 문헌연구에 있어서 외국 연구보다 국내 연구를 더 깊이 있게 본 것은 선진 사례와 우리 현실이 약간

차이가 있다는 판단과 우리 현실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위해서이다. 그리고 광주광역시의 여성친화도시 지정 배경과 성과 및 추진체계 등을 검토하고 현재 추진 중인 여성친화도시 사업내용을 분석하였다. 이 분석을 통해 광주광역시 여성친화정책의 장·단점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도출하여 본 연구의 주 내용과 비교를 시도하였다.

둘째, 광주광역시민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분석하여 본 연구의 기본틀로 활용하였다. 연구의 객관성 확보와 광주광역시 광역단위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방향성 제시를 위해 현직 지방의원 서면조사, 전·현직 여성 지방의원 면접조사, 시민대상 조사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의 목적이 디테일한 자료를 구하여 분석하고 결론에 이르는 방식이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오늘과 내일에 대한 시민들의 보편적 인식을 검증하는데 있기 때문에 표본 할당 등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남·녀, 50대 이상·50대 미만, 남·녀, 직장인·비직장인으로 구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실시한 광주광역시 현직 지방의원 서면조사 및 전·현직 지방의원 면접조사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한 주체라고 할 수 있는 현직 지방의원들과 전·현직 지방의회 의원들이 이 사업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으며, 여성친화도시 발전에 대해 어떤 개선책이 필요한지, 여성친화도시의 지역발전 기여도에 대한 평가는 어떠한지, 광역단위 지역특화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광주광역시의 유·무형의 자산 중 지역특화사업 발굴을 위한 자산은 무엇인지 등을 측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광주광역시민 대상 설문조사는 광주광역시가 전국 최초로 광역단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사실에 대한 인지도, 여성친화적 환경에 대한 체감도, 여성친화도시의 지역발전 기여도에 대한 평가, 광주의 유·무형의 자산에 대한 선호도, 광주광역시의 도시 브랜드관련 선호도 등을 조사하여 현재 진행 중인 광주광역시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전반적인 인식을 측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지방의원 서면조사와 시민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추출한 객관적인 데이터는 본 연구가 지향하는 광주광역시 여성친화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및 여성친화도시가 광주광역시의 도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 제언을 위한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연구에 있어서 어려운 점은 광역단위 여성친화도시가 사실상 광주광역시가 유일하다는 점에서(제주자치도는 예외) 이와 관련한 선행 연구가 많지 않고, 몇몇 선행 연구는 본 연구와 지향점이 다르기 때문에 폭넓게 인용하기 어려웠으며, 광주광역시의

광역단위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이 3년째를 맞고 있지만, 이에 대한 인지도, 만족도 등에 대한 기본조사가 부족하고, 소수만 참가 가능한 구조인 시민 아이디어 공모 외에는 다수 시민의 의사가 반영된 객관적인 데이터도 구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표 1> 연구 목적을 위한 자료 수집과 비교·분석의 의의

구 분		목적 및 의의
현직 지방의원 서면조사		- 광주광역시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지방의원의 구체적 인식 검증 및 사업 방향성에 관한 기초 자료 확보
전·현직 여성 지방의원 면접조사		- 광주광역시 및 5개 자치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앞장 선 전·현직 여성지방의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사업 추진의 애로사항 및 향후 사업추진의 방향성검증
시 민 설 문 조 사	조사내용	-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광주광역시민의 인지도, 만족도 등 보편적 인식 자료 및 지역특화사업 대한 자료 확보
	시민설문조사 비교·검토	-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인지도를 중심으로 만족도, 기여도 등과 비교·검토를 통해 사업 방향성 검증
	시민설문조사 광주광역시 정책 비교·검토	- 광주광역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핵심과제와 설문조사 결과 비교·검토를 통해 지역특화사업 필요성 제기
	시민설문조사 선행연구 비교 검토	- 지역특화사업 추진 및 도시 경쟁력 강화와 관련된 기존 연구와 시민 설문조사의 유사성과 차이점 검증

실시기간 : 2014.09.05~2014.11.14.

제3절 선행 연구 검토

광주광역시의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연구로는 채은주(2014)의 ‘광역자치단체의 여성친화도 평가 및 지역간 비교 분석 - 16개 시·도를 중심으로 -’, 마경희 외(2013)의 ‘2013년 여성친화도시 이행 현황 분석 및 중장기 발전 방안’, 주재선 외(2013)의 ‘2013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강현아 외(2014) 광주광역시 여성친화도시 광역형 모델 연구’를 검토하였다.

채은주의 연구는 정치 및 의사결정, 경제 및 고용 분야 등 5개 분야 총 27개 세부 지표를 통해 16개 시·도의 여성친화도를 분석한 것으로 광주광역시는 지역별 여성친화도에서 전라북도, 서울특별시에 이어 3위로 평가되었다. 반면, 주재선 외 연구에서는 여성친화도시의 수준을 가능할 수 있는 성 평등 수준 분석에서 광주광역시는 16개 시·도 중 경상남도, 대구광역시, 충청북도와 함께 최하위 수준 지역(Lever -4)으로 평가되었다. 두 연구에서 상반된 결과가 나온 것은 평가 지표와 분석 방법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은 뚜렷하게 표준화된 평가기준이 결여된 상태에서 분석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마경희 외 연구는 2013년 이전까지 지정된 전국 39개 여성친화도시의 사업 시행 현황을 분석하고 중장기 발전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각 기초자치단체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자료였다. 하지만 광역단위 모델인 광주광역시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여성가족부의 여성친화도시 사업이 기초자치단체 위주로 진행되고 있으며 여성친화도시 사업 분석 또한 기초자치단체에 한정된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강현아 외 연구(2014)는 광주광역시 5개 자치구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과 관련된 종합적인 분석 및 5개 구별 주민 요구 사항과 핵심 추진과제 등을 시민 설문조사와 전문가 면접조사를 통해 제시하고 있으나 광역단위 사업에 대한 제시나 분석은 포함되지 않았다.

오미란(2012)의 “광주의 광역형 여성친화도시 모델 형성 추진 연구”는 광주광역시 광역단위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진행 과정 및 보완점, 향후 개선 방안 등을 파악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되었다.

봉귀숙(2014)의 “익산시 여성친화도시 정책의 현황과 성격에 대한 비판적 연구”는 우리나라 여성친화도시 1호로 각광받고 있는 전북 익산시의 여성친화정책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보여줌으로써 광주광역시에 대한 연구에 일정 부분 논리적 근거를 제공하였다.

장임숙 외(2012)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인식과 참여 실태-양산시를 중심으로-’ 연구는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주민의 인식과 참여를 파악해 볼 수 있는 자료로 유익했으며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인지도 등 본 연구의 조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었다. 신승춘 외(2012)의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친화도시 조직 활성화에 관한 연구’는 여성친화도시의 개념과 가치 추구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지방자치단체별 여성친화도시 대표사업을 파악하는 자료로 활용했으며 홍미희(2012)의 ‘여성친화도시가 지향하는 핵심가치’ 연구는 여성친화도시의 핵심 가치인 ‘형평성·돌봄·친환경·소통’에 대한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자료가 되었다.

기존의 연구를 분석해 보면 광역단위 여성친화도시 현황과 지역특화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가 부족하다. 2014년 현재까지 광주광역시와 제주자치도 2곳만 광역단위 모델로 지정되어 있고, 제주자치도는 광주광역시와는 여건이 다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5개 자치구를 포함한 광역단위 여성친화도시 최초의 광역형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광주광역시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연구를 통해 향후 타 광역자치단체의 사업 추진의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인지도에 관해서는 경상남도 양산시 사례를 연구한 장임숙 외(2012)는 “일반 시민들은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개념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국가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동원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⁹⁾

강현아 외(2014)의 연구에서도 광주광역시민들은 ‘여성친화도시 내용이 잘 알려져 있다’라는 질문에 대해 매우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다는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의 2/3로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⁰⁾ 2012년 7월, 광주시민단체협의회에서 “광주광역시는 전국 최초로 유일한 광역형 여성친화도시의 모델을 만들어가기 위한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지역민의 이해는 아주 낮은 수준이다”¹¹⁾라고 지적한 바 있다.

2012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경상북도 포항시의 2013년 11월 여론조사 결과(2013. 포항시)를 보면 시민 80.8%가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

9) 장임숙·이원일,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인식과 참여 실태-양산시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제16권 제4호, 2012. p.43.

10) 강현아 외, “광주광역시 여성친화도시 광역형 모델 연구”, 광주여성재단, 2014. p.226.

11) 광주여성민우회·광주여성의 전화, 강운태 시장 전반기 2년 『여성정책 분야 평가 보고서』, 2012.

타났으며 특히 이 중에서 남성은 전체 비율에서 88.4%로 조사됨으로써 전국 자치단체의 여성친화도시 및 관련 정책은 자칫 ‘남성도 모르고 여성도 모르는 여성친화도시’ ‘관(官) 주도의 일방적인 여성친화정책’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광주광역시의 총체적인 여성친화도는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전북, 서울에 이어 3위로 나타났고 이러한 연구 결과는 여성친화지수가 높은 지역일수록 여성 친화도시로 지정된 기초자치단체의 수가 타 지역에 비해 많거나 지자체 내에서 여성친화도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¹²⁾

여성친화정책은 단지 여성들만이 아니라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이주여성 등 모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선진 정책이자 궁극적으로 지역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선진사회로 가는 징검다리이다. 그렇지만 2009년 이후 여성친화도시 지정과 함께 여성친화정책이 갑작스럽게 붐이 일어나면서 이에 따른 부작용도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와 관련한 비판적 시각 중 하나는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여성가족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역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획일적인 정책을 양산하고 있으며 또한 기존 사업들에 ‘여성’이라는 용어를 끼워 넣어 과대포장하고 홍보하는 포퓰리즘(Populism, 전시 행정)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다수의 자치단체가 ‘민-관 거버넌스(governance)’를 구축하여 여성친화정책 수립에 여성전문가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지만 일상생활에서 여성들이 겪는 불편함이나 경험 등 아래로부터의 대안 제시보다는 여전히 관(官) 중심의 정책수립과 추진이 강하고 시민이자 생활인으로서 일반 여성의 참여가 어렵다. 따라서 여성정책 관련 예산 확대와 기존 정책에 적극적인 성인지(性認知) 관점 도입이 요청되고 있다.

김이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중앙정부가 제시한 방향에 따라 다양한 여성정책을 실행하고 있지만 정작 구호와 항목만 있을 뿐 실제적인 예산과 실행력을 담보하여 지역 여성의 삶에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는 여성정책을 의례적인 시혜 정책 정도로만 생각하고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단체장의 시각도 영향을 미친다.”¹³⁾라고 지적하였다.

12) 채은주, “광역단체 친화도 평가 및 지역간 비교 분석 -16개 시도를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p.50.

13) 김이수, 원주투데이(<http://www.wonjutoday.co.kr>) 칼럼, 2012.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진화하고 있는 여성친화정책(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지속적인 인식 개선도 요청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성친화정책을 단순히 여성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남녀 모두의 성평등적 관점을 정책에 반영한다는 점을 남성을 포함한 모든 시민들이 함께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고 여성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주요 시설 등 하드웨어 개선과 함께 가정 내의 가사 분담과 같은 소소한 일상 속에서 여성친화 문화를 확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일자리 창출 등 여성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미래지향적 정책의 확산도 중요한 일이다. 특히 여성친화정책이 선언적 구호로 그치거나 사회적 약자인 여성들을 지원하는 수준을 넘어서 일-가정이 양립하고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는 환경조성이 중요하다. 경제적 주체로서 여성의 자존감을 높이고 국가와 지역사회의 미래 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여성의 경제 참여를 늘리는 내실 있는 정책 수립은 각급 자치단체의 시급한 과제다. 이와 관련하여 2011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인천광역시 부평구가 2013년 11월 발표한 시민 여론조사 결과(2013. 부평구)를 보면 ‘사회 안전망 구축’ 등에 대한 여성친화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여성 86.5%, 남성 80.8%’가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09년 여성친화도시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 자치단체의 여성친화정책에 대한 전문 여론조사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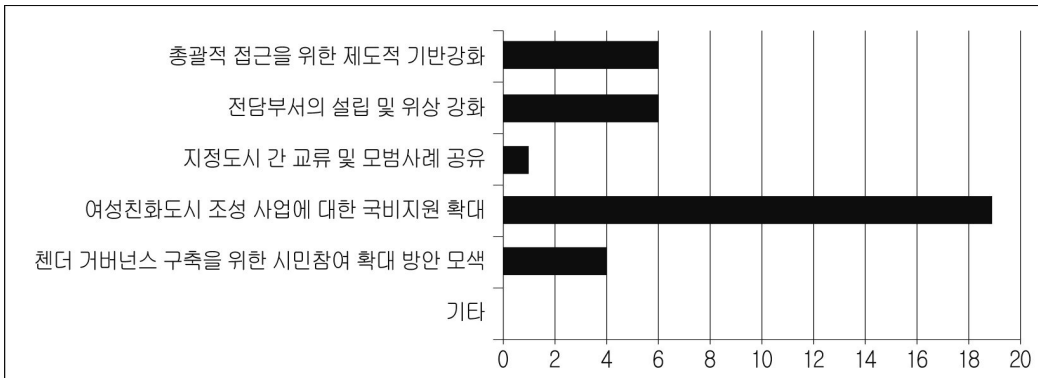
이미원 외(2012) 연구에 의하면, 여성친화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한 결과 2009~2011년까지 30개 조사대상 자치단체의 응답에서 국비지원 확대가 가장 시급하다고 응답한 지역이 19곳(52.8%)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지역 특화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은 여성친화도시 확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6개 지역(16.7%)에서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총괄적 접근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를 요구하였고 전담부서의 설립 및 위상 강화에 대한 필요성을 각각 지적하였다. 4개 지역(11.1%)에서는 젠더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시민참여 확대 방안 모색과 여성친화도시 간의 교류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국비지원확대를 포함한 사업 추진의 탄력성을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에 대한 요구도 강하게 나타났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은 한 가지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도시정책 전반에 걸친 다양한 사업을 포함한다.

[그림 1] 여성친화도시 발전을 위한 필요 사항(다중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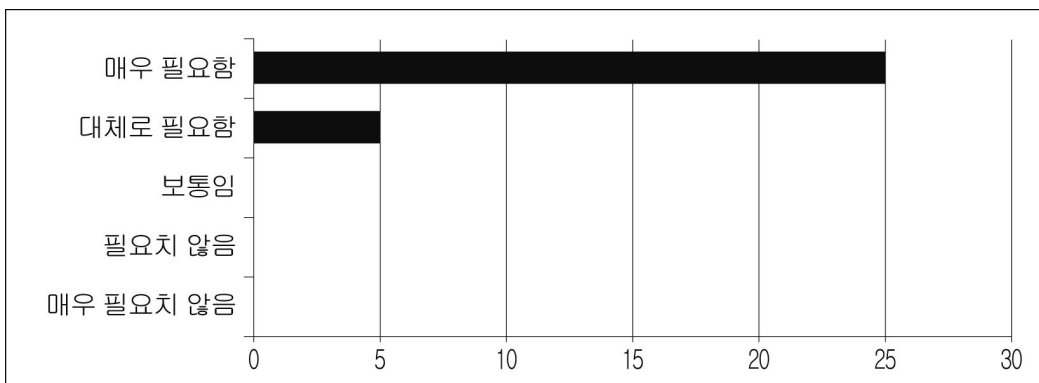
단위 : 개



출처 : 이미원 외,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확산 정책 - 성별영향분석평가", 여성가족부, 2012. pp.70~71.

[그림 2] 국비지원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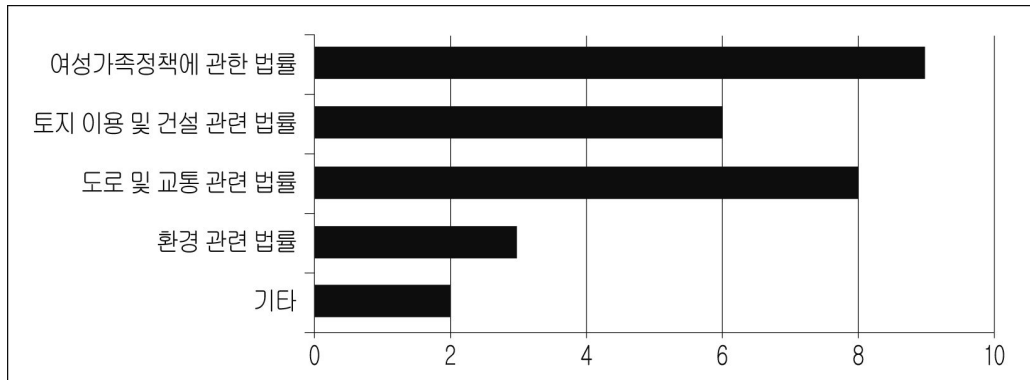
단위: 개



출처 : 이미원 외,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확산 정책 - 성별영향분석평가", 여성가족부, 2012. pp.70~71.

[그림 3] 법률 개정작업 검토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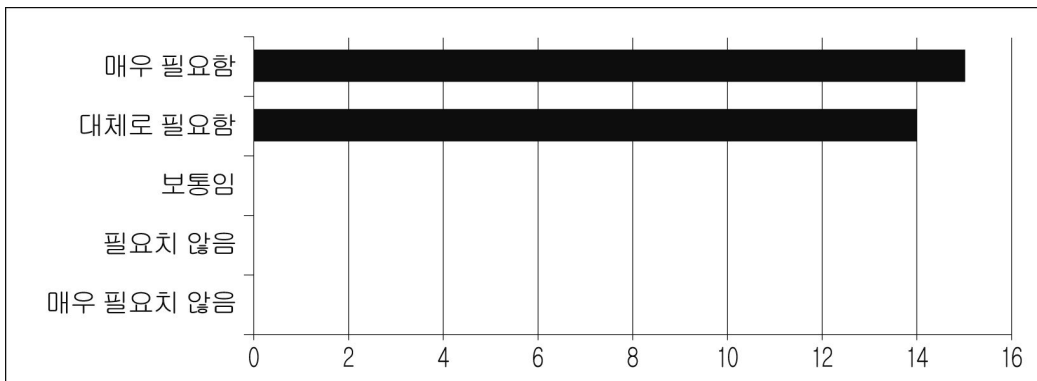
단위: 개



출처 : 이미원 외,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확산 정책 - 성별영향분석평가", 여성가족부, 2012. p.72~73.

[그림 4] 법률 개정 작업 필요성

단위: 개



출처 : 이미원 외,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확산 정책 - 성별영향분석평가", 여성가족부, 2012. p.72~73.

설문조사 결과 법률 제·개정 요구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중앙부서 간 제도의 연관성이 고려된 법·제도적 기반에 대한 요구로 풀이된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확대 와 관련 법률 제·개정에 대한 자치단체의 요구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6년차를 맞는 시점에서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아무리 취지가 좋은 정책이라 할지라도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는 국비 지원확대와 이를 뒷받침할 법률 제·개정은 절대적인 과제일 수밖에 없다.

이와 함께 여성친화도시들은 총괄적 접근을 위한 제도적 기반강화, 전담부서의 설립

및 위상 강화, 젠더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시민 참여 확대 방안 모색, 지정도시 간 교류 및 모범 사례 공유 등을 여성친화도시 발전을 위한 필요사항으로 꼽았다. 앞으로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받고 하는 자치단체들은 이들 과제들을 미리 점검·보완하는 노력을 통해 보다 성숙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와 정부는 국책사업에 가까운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이 화려한 외양에 치우친 단기성 사업보다는 내실 있고 미래 지향적인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광주광역시도 민선 5기 강운태 광주광역시장의 공약으로부터 강화된 여성친화정책이 좋은 평가를 받아 2011년 12월, 전국 최초로 광역자치단체와 산하 5개구 기초자치단체가 동시에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었고 그 결과 2013년 11월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가족정책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하지만 ‘2013 여성친화도시조성 추진사업 목록’¹⁴⁾ 등을 분석해 보면 전시행정 같은 사업도 적지 않고 부서별로 여성친화정책과는 다소 동떨어진 사업도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광주광역시는 본격적으로 여성친화정책을 시행한 이후 시민들의 객관적인 평가를 수렴하여 앞으로의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강현아 외의(2014)연구에서는 여성친화 조성사업이 일반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을 정책 수혜자로 추진되어서는 안되며, 계획단계에서부터 실행, 평가에 여성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정책입안자로서, 정책실행자로서 적극적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참여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¹⁵⁾

그런 점에서 여성의 참여와 연계를 강조한 강현아 외(2014)연구는 여성친화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많은 점을 시사하고 있다. 여성친화도시에 관한 국내 연구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반적인 여성친화도시 개념 및 이론적 분석을 비롯해서 특정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도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다.

2014년 현재, 전국적으로 50개 지방자치단체가 여성친화도시 지정되었고 해마다 일정 비율로 여성친화도시가 늘어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에 대한 연구는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14) 광주광역시 홈페이지(<http://www.gwangju.go.kr>) : 『2013 여성친화도시조성 추진사업 목록』, 2013.

15) 강현아 외, 앞의 연구논문, p. xiii.

제2장 국제사회 여성친화도시 현황과 국내 동향

제1절 페미니즘의 진화

1. 페미니즘과 여성친화정책

여성학(women's study)의 흐름을 고찰해 보는 것은 오늘날의 여성친화정책, 여성친화도시의 뿌리를 찾는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여성학의 발전과 확장은 다양한 페미니즘(feminism) 이론을 양산하면서 '여성 문제'에 대한 진보적 실천 과제를 제시했다. 여성학이란 여성, 여성주의, 젠더(성역할), 정치 등의 주제를 다루는 다학제적 영역을 말한다. '젠더 연구'라고도 하는 이 분야의 연구 주제는 여성참정권의 역사, 페미니즘 정신 분석, 여성 보건 등이며 여기에는 여성주의의 영향을 받은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실천 연구 등도 포함된다.

페미니즘을 간단하게 정의하면 여성의 권리를 획득하기 위해 결성된 운동, 곧 '여권 신장론'이며, '여성해방운동'을 전제로 한 여성문제의 접근 방법으로 여성에게 가해지는 사회적 차별에 대항하는 하나의 이론이다. 페미니즘은 단일 이론 혹은 단일 사고체계가 아니다. 이것은 다양한 시각에서 접근되며 또한 정의에 있어서도 복잡하다. 즉 페미니즘을 한마디로 정의하거나 그 범주를 단순화시켜서 유형화하기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다. 오랜 동안 여성문제에 관심을 둔 학자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다양한 입장과 차이점을 체계화하려고 노력하였다. 특히 많은 연구자들은 사회학적 시각에서 성적 불평등의 유형을 찾아내고자 노력하였으며 주로 사회 속의 대다수 여성들이 갖는 경험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할애하였다.¹⁶⁾

페미니즘은 '여성의 특질을 갖추고 있는 것'이라는 뜻을 지닌 라틴어 '페미니나(femina)'에서 파생한 말로서 성 차별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시각 때문에 여성이 억압받는 현실에 저항하는 여성해방 이데올로기를 말한다. 여성을 여성 자체가 아니라 남성이 아닌 성 혹은 결합 있는 남성으로 간주함으로써 야기되는 여성문제에 주목하면서 올바른 전망을 제시하려는 일련의 움직임은 포함한다. 즉 여성을 억압하는 객

16) 김선남, 『매스미디어와 여성』 (서울: 범우사, 1997), p.32.

관적 현실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그 해결을 모색하는 것, 남성 특유의 사회적 경험은 여성들의 관심사를 체계성적인 것의 특수성이나 정당한 차이를 정립하고자 하는 것 등이 페미니즘의 목적이다. 때문에 페미니즘에서 문제 삼는 것은 생물학적인 성(sex)이 아니라 사회적 성(gender)이다.¹⁷⁾

이런 페미니즘적 인식에서 가장 논쟁적인 문제는 '평등'과 '차이'의 대립이다. 여성이 남성과 똑같아지기 위해서 투쟁해야 한다는 입장과, 여성과 남성과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 서로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입장의 차이는 여러 가지 하부문제를 포함하면서 여성문제를 다각화시키는 데에 일조하고 있다. 만일 여성이 남성과 평등하다면 어떤 남성이나 어떤 문제에서 평등한 것인가. 혹은 여성은 남성에게 기회의 평등을 요구해야 하는가 아니면 결과의 평등을 요구해야 하는가. 반대로 여성과 남성이 서로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그 차이는 자연적·생물학적 차이인가 아니면 사회적·경제적인 차이인가, 이에 대한 입장이나 시각에 따라 페미니즘의 정의나 방향은 달라진다.

역사적으로 페미니즘적 인식에는 '제1의 물결'과 '제2의 물결'이 있었다. '제1의 물결'은 메리 울스턴크래프트(Mary Wollstoncraft)의 『여권의 옹호』(1792)에서 영향을 받아 1890년에서 1920년 사이에 미국과 영국에서 있었던 참정권 운동을 말한다. 여성들의 선거권과 교육권, 출산권, 노동권 등을 주장하며 남성과의 '평등'을 주로 주장하는 경향이다. '제2의 물결'은 1960년대 후반의 학생운동, 반전운동, 흑인 운동 같은 반체제 운동과 맥을 같이 하면서 일어난 여성운동을 말한다. 특히 『제2의 성(The Second Sex)』(1949)에서 "여성은 여성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성으로 만들어진다"라고 말한 시몬느 드 보바르(Simone de Beauvoir)의 영향이 컸다. 그들은 여성의 평등권에서 더 나아가 보다 적극적으로 여성의 '해방'을 주장했다. 1980년대 이후 포스트모더니즘은 여성들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에 주목한다. 인종계급 때문이다.¹⁸⁾

지역적으로 볼 때는 영국의 페미니즘은 압제(oppression)를, 미국의 페미니즘은 텍스트중심으로 한 표현(expression)을, 프랑스 페미니즘은 정신적 억압(repression)을 강조한다. 그래서 영국과 미국의 페미니즘은 19세기 여권운동의 전통을 바탕으로

17) 김재인 외. 앞의 책, p.34.

18) 신미식, "포스트모더니즘과 여성교육", 『평생교육연구』, 서울대학교사법대학 교육연구소, 1988. p.97.

사회·경제적인 여성의 억압을 바탕으로 정치적이고 운동적인 차원에서 평등주의에 입각한 주장을 주로 보여준다. 반면 프랑스의 페미니즘은 데리다의 해체론과 프로이트나 라캉의 정신분석학의 영향을 받아 철학적이고 심리학적인 경향을 주로 보여준다. 물론 이때의 영국과 미국, 프랑스는 국가나 국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페미니즘에 접근하는 방법이나 시각에 따른 구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상대적인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여성에 대한 차별과 억압에 저항하고 여성의 권리와 평등을 추구한다는 공통점에는 변함이 없다.

2. 페미니즘의 흐름

20세기 후반의 자유주의 페미니즘은 1960년대 후반 미국에서 결성된 전미여성연맹(NOW: National Organization for Women)의 활동으로 대표된다고 할 수 있다. 전미여성연맹은 여성의 지위를 조사하기 위하여 조직된 여성지위위원회의 제3차 연례회 근로직· 정부· 언론· 산업단체 등에서 일하는 여성들을 회원으로 받아들였다. 온건파에 속하는 이 단체는 성별에 따른 차별을 철폐하라고 주장하면서 고용교육의 기회균등, 동일노동·동일임금 보장, 낙태(墮胎)의 자유 등을 호소하였다.

마르크스주의는 사회적 억압에 대해 가장 잘 알려져 있고 지적으로 정교한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로부터 네오 마르크스주의의 전체 문헌을 통하여 이 시각은 사회계급억압의 이론을 발전시키며 지배계급의 이해에 따른 노동자의 지배, 계급지배, 억압의 침투성, 국내·국제적 사회관계 유형에서의 갈등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은 마르크스주의의 계급분석과 페미니스트의 사회저항을 함께 결합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융합은 명료한 억압이론이 아닌 오히려 불평등에 대한 더욱 암묵적인 설명을 산출해냈다. 즉 성불평등이론인 것이다. 이 이론의 기초는 마르크스와 엥겔스에게 두고 있다.

현대의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스트는 현대자본주의적 계급체제 내에서의 성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이론적 관점으로 보면 각 개인의 삶의 경험의 질은 첫째로 그 개인의 계급적 위치를 반영하며 둘째로는 개인의 성을 반영한다. 어떤 특정 계급의 여성이 자신과 같은 계급의 남성과 관계하는 정도는 빈번한 반면 서로 다른 계급적 배경을 가진 여성들은 삶의 경험을 더 적게 공유한다.

1960년대 후반 서구에서 여성운동의 물결이 거세게 일어나면서 여성 억압을 보는

새로운 관점들이 나타난다. 이 가운데 여성 억압이 무엇보다도 근본적이며 독자적인 체제를 이룬다고 보는 것이 바로 급진적 페미니즘이다. 급진적 페미니즘은 모든 억압 가운데 여성 억압이 가장 처음 생겨났고, 가장 널리 퍼져있으며, 가장 뿌리깊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여성 집단을 지배하며 여성을 종속하는 데서 이득을 보는 것은 자본이나 사회구조가 아니라 바로 남성 집단이라고 본다.¹⁹⁾ 남성에 의한 여성 지배 체제가 바로 이들이 말하는 가부장제다.

사회주의 페미니즘은 1970년대에 맑스주의 페미니스트들에 대한 반발에서 비롯되었다. 사회주의 페미니스트들은 맑스주의자들이 성(性)문제를 인지하지 않고 성적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사회주의 페미니즘 관점에서 보는 여성문제란 가부장제와 자본주의에서 기인한다. 또한 이들은 여성문제를 야기하는 주체를 남성과 자본가로 상정하고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한다. ① 육체적 재생산과 사회적 재생산과의 관계 ② 가부장제는 계급관계를 발전시키고 유지할 수 있도록 어떠한 관계를 갖는가? ③ 여성억압은 남녀 간의 성관계에서 발생하였는가 아니면 계급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졌는가? ④ 인종 억압, 계급억압, 성별억압 등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 이와 같이 사회주의 페미니스트들은 여성문제를 성차별과 계급차별로 분리하지 않고 오히려 통합시켜서 해석한다.

사회주의 페미니즘은 여성을 억압하는 것이 계급사회의 구조만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한다. 즉, 계급관계(자본주의)와 남녀관계(가부장제)를 통해 여성억압의 문제를 인지한다. 줄리엣 미첼은 자본주의와 가부장제의 해체가 여성문제의 해결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본다. 즉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의 경제적 혁명의 전환이 정신 혁명으로 이어져 사회적인 억압으로부터 여성을 해방시킬 수 있다고 본다. 미첼은 여성억압의 사례로 생산, 출산, 사회화, 성관계 등을 들고 이 문제들의 해결방법을 통하여 여성억압을 종식시킬 수 있다고 전망한다.

하이디 하트만은 미첼의 가부장제를 비판하면서 새로운 개념으로 확장한다. 즉 가부장제의 물적 토대를 분석하고 가부장제의 물적 기반을 여성 노동력의 통제와 재생산능력 통제로 본다. 미첼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로 인해 나타나는 여성억압의 무의식적 형태를 살핀 반면, 하트만은 여성 노동력에 대한 남성들의 역사적 지배를 물적 토대에 근거한 사회내의 관계구조로 파악한다.

사회주의 페미니즘은 여성억압이 일차적으로는 경제적 요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

19) 한국 여성 연구소, 『새 여성학 강의』 (서울: 동녘, 2005), p.46.

식한다. 이것은 마르크스주의 접근과 일치한다. 또한 여성억압을 재생산과 가족이라는 가부장 제도에서 찾았다는 점은 급진주의적 접근과 일치한다. 그러나 사회주의 페미니즘은 급진주의 페미니즘과 달리 경제적 억압을 이차적인 것으로 보지 않는다. 또한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과는 달리 인종차별적 억압을 이차적인 것으로 다루는데 저항한다. 사회주의 페미니즘은 생산소유권뿐만 아니라 사회적 위치까지도 변해야 할 필요성을 주장한다. 이것은 여성억압의 원인을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원인을 두고 있음을 의미한다.²⁰⁾

3.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과 페미니즘

20세기 이후에 우리의 문화과정 전반에서 적극적이면서 가장 광범위하게 쟁점화된 것 중의 하나가 바로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이라고 할 수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은 20세기 후반을 특징짓는 시대정신이다. 19세기의 사실주의와 제1차대전 전후에서 2차대전 때까지 나타난 모더니즘과 대비되는 지배적인 오늘날의 사조가 바로 포스트모더니즘이다. 즉 20세기 서구사회에 대한 유의미한 재인식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한 유행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본질적인 차원에서 재검토되어야 할 문제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은 1970·80년대의 유럽사조에 그치지 않고 전세계를 지배하는 사조로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스트모더니즘의 지나친 포괄성과 개념의 모호성으로 인하여 그 개념이나 본질에 대해서는 아직도 견해가 일치하지 않고 있고, 이에 대한 의혹과 불신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포스트모던'이 포괄하고 있는 총체적인 측면을 해명하고 그 개념의 사회·문화·정치적 함의들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를 위해서 먼저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개념을 정립해 보고자 한다. 원래 '포스트모던'이라는 말은 아놀드 토인비(Anold Joseph Toynbee ; 1889~1975)에 의해 생겨난 개념으로서, 그의 책 『역사의 연구』(1934~61)에서 서구문명이 19세기 이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보고 이 시대를 불안, 전쟁, 혁명 등과 같은 'postmoden period'라고 하였다. 이후 이 개념은 미국에서 새로운 시대라는 낙관론적인 의미를 지녔다가 건축분야에서부터 수용되

20) 신미식, “성해방교육론이란 무엇인가”, 『여성과 사회』 제6호(1995), p.188.

어 차츰 여러 분야로 퍼져 나갔다.²¹⁾

포스트모더니즘은 근대주의를 대표하는 지배 엘리트 존재 자체를 거부하면서 그들로부터 지배의 대상이 되었던 타자에게 많은 관심을 보이고 나아가 그들이야말로 포스트모던 사회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에게 있어 타자는 억압당한 바로 그 경험 때문에 미래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여기서 타자란 근대사회에서 소외되고 주변화 된 여성(남성에 대해), 소수인종, 제3세계(서구에 대해), 장애인(육체적으로 장애를 갖고 있지 않은 자에 대해), 동성애자(이성애자에 대해) 등으로 볼 수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은 특히 타자로서의 여성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프랑스 포스트모더니스트인 데리다는 여성들이야말로 차이의 위계질서와 칸트의 존재론에 토대를 둔 담론(discourse)으로부터의 결렬을 대변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에서 저항의 원천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보았다.²²⁾

페미니즘은 1차 물결, 2차 물결에 이어 포스트모더니즘의 등장과 맥을 같이하는 3차 물결에 이르기까지 진보를 거듭하고 있다. 제3의 페미니즘은 성 불평등을 ‘가부장제’ ‘성차별적 사회화’라는 한 두가지 개념에 담으려는 환원주의적 입장을 지향하고, 여성의 경험과 이론을 지향하는 시도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페미니즘의 진보는 세계적으로 여성친화정책 확산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

4. 한국의 페미니즘과 여성친화도시

한국에서 페미니즘 운동이 활발해지기 시작한 때는 북미와 유럽을 중심으로 전개된 제2의 페미니즘 물결의 영향을 받은 1960년대 후반으로 본다. 당시 페미니즘은 여성들이 그들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언어적·시각적 이미지들에게 똑같이 대항함으로써 문자 그대로 정치적 실천 속에서 그들 스스로를 재현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여성운동이 학문적으로 연구되고 확산된 것은 이처럼 기존의 중심으로 여겨지던 남성적 사유, 즉 이성이나 합리성, 보편성에 도전하는 시대적 분위기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서구에서는 페미니즘 논의가 참정권 운동, 사회주의 운동, 신좌파 인권운동 등과

21) 한국문학비평가협회, 『문학비평용어사전』, 국학자료원, 2006.

22) 신미식, 앞의 책, pp.96~97.

결합에서 나타난 반면 한국에서 페미니즘 논의는 대학 강단을 통해 먼저 이루어졌다. 여성학은 권위주의 정권 때인 1977년 이화여대에서 교양강좌로 제도화되었고 페미니즘 연구 모임은 1984년 ‘또 하나의 문화’라는 단체로 기구화 되었다. 대학 내 페미니즘은 1970년대 급진적 페미니즘의 시각을 통한 가부장제 비판을 거쳐 1980년대 후반에 이르면 민주화운동, 노동운동 등 운동권에서 일해 온 여성과 실천적으로 결합한다. 이 결과 여성운동은 폭발적으로 신장되었다. 서구에서 200여년에 걸쳐 일어난 페미니즘의 사상적 실험이 한국에서는 1990년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²³⁾

1990년대에는 페미니즘의 제 3의 물결이 고조되었는데 여성들은 성불평등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에 뿌리 깊게 배어 있음을 절감하게 되었다. 제 3의 물결의 관점은 지금까지의 여성운동이 성불평등 문제 해결의 한계점에 도달하였다고 보고 인류가 당면한 모든 사회문제에 대한 공동의 원인과 해결방식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1980년대 말에서 1990년대 초부터 ‘여성민우회’를 중심으로 환경, 빈곤 문제, 교육 등 여성의 삶의 질과 관련된 영역에서 다양한 이슈가 제기됐고, 여성운동과 여성정책의 주요의제가 되기 시작하였다.

일상의 정치영역을 더욱 확장한 것은 1990년대 후반부터 한국 여성정책의 핵심기조가 된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정책’으로 모든 정치영역을 젠더(gender)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면서이다. 이로 인해 기존 여성정책의 영역으로 간주하지 않았던 거주공간, 보행로, 공공시설물을 이용하는데서 오는 편리함, 안전성 등이 여성의 삶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처음으로 도시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정의와 형평성을 요구하였으며 이러한 요구는 다시 도시를 만드는 데 있어 공평한 참여의 요구로 발전하게 되었다.²⁴⁾

이러한 페미니즘 운동의 연장선상에서 발전해 온 한국의 여성운동과 여성정책은 2009년 ‘형평성·돌봄·친환경·소통’ 등을 핵심가치로 삼은 여성친화도시의 등장으로, 자치단체 차원에서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탄생시켰다.

23) 이정옥, “1,2,3차로 진보 거듭하는 여성의 존재 선언”, 대구 카톨릭대 강의자료, 2007.

24) 홍미희, “여성친화도시가 지향하는 핵심가치”, 『월간국토』, 제372호, 2012. p.52.

제2절 여성친화도시

1. 여성친화도시의 시대적 요구

한국의 여성친화정책은 여성가족부가 2009년 3월 전국 최초로 전북 익산시를 ‘여성친화도시’로 지정하고 2013년 현재 전국 50개 광역·기초지방단체로 확산시키면서 각급 자치단체 행정의 주요 정책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와 같은 추세는, “미래 국가와 기업 경쟁력의 원천은 여성(Female)·감성(Feeling)·상상(Fiction)”²⁵⁾이라는 미국의 저명한 미래학자 존 나이스빗(John Naisbitt)의 예측을 상기해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1980년대 초, 캐나다에서 ‘여성의 안전한 밤길’에 대한 새로운 시도에서 촉발된 여성친화정책은 이후 UN, EU, OECD 등 국제기구의 각종 선언을 통해 세계적 현상으로 부각됐으며 우리나라에서도 1995년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을 바탕으로 선진화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남성과 여성의 평등한 권리, 여성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 등을 위한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정책이 국가적 차원에서 활발하게 논의되었고 법적·제도적 정비도 본격화됐다. 각급 자치단체도 ‘여성친화’ 가치에 대한 재조명과 함께 모든 분야에서 여성 참여 확대를 통한 행복하고 안전한 지역 공동체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여성친화정책이 더욱 강화돼야 하는 구체적 근거는 여성의 생식과 건강, 여성 권한, 여성의 노동참여 등을 총체적으로 평가하는 유엔개발계획(UNDP)의 2012년 ‘성불평등지수(GII)’는 조사 대상 148개국 중 27위(2011년 11위)로 하락했고²⁶⁾ 다소의 분석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기는 해도 남녀평등과 관련된 권위 있는 국제 통계 자료인 세계경제포럼(WEF)의 ‘성 격차지수(GGI)’에서는 135개국 중 108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다. 세계적인 여론조사 기관이 갤럽이 134개국을 대상(2012년 기준)으로 ‘안전한 밤거리’에 대해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는 52위로 아프리카의 수단보다도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와 같은 통계만 보더라도 ‘여성 안전’에 대해서는 한층 진전된 정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25) John Naisbitt 지음, 구홍영 옮김, 『메가트렌드(Megatrends)』 (서울: 문현각, 1983), p.55.

26)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3 세계 성 격차 보고서』, 2013.

법적인 측면에서 ‘여성 친화’를 바탕으로 한 여성정책의 선진화 논의는 이미 2008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선영 연구위원이 “현행 헌법은 평등 개념을 모든 개인들의 “법 앞의 평등”으로 협애하게 규정한 제헌 헌법 당시의 조항을 유지한 채 소극적인 의미에서 차별금지만을 규정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실질적 평등의 보장을 위해 성평등을 국가목표로서 규정하던가 아니면 실질적 평등을 위한 적극적 차별시정조치의 명문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한 바 있다.²⁷⁾

자치단체의 여성친화정책(Women Friendly policy)은 여성가족부가 제시한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정책과 발전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함께 참여하고 그 결과로써 혜택도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여성의 발전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여성정책을 운영하는 지역 공간(행정)을 의미한다.”(여성가족부, 2013)라는 개념을 기본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여성가족부에서 내놓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다소 획일적인 정책을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21세기 지방자치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각급 자치단체는 여성친화정책을 더욱 강화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복지 학계의 세계적인 석학인 덴마크 출신 에스핑 앤더슨(Esping-Andersen)은, “21세기 복지국가는 초 고령화 사회의 도래, 여성 역할의 변화, 인적자원의 중요성이라는 세 가지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질 좋고 보편적인 노인 요양서비스와 보육서비스를 확대해서 여성이 경력 단절 없이 더 오랫동안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여성 친화적 정책이 바로 가족 친화적 정책이고 동시에 사회 친화적 정책”이라고 미래 사회의 변화를 진단했다.²⁸⁾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 3월 전북 익산시가 여성가족부 주관 ‘여성친화도시’ 1호로 지정되고 같은 해 12월 전남 여수시가 2호로 지정된 이후 2013년까지 전국 50개 광역·기초단체가 ‘여성친화도시(Women Friendly City)’로 지정되면서 여성친화정책이 민선 5기부터 자치시대의 주요 정책 과제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긍정적 측면과 함께 정부 차원의 보육문제 개선을 통한 여성 일자리 창출과 공공기관과 기업 등의 여성·가족친화 문화 확산이 요청된다.

27) 박선영, “새로운 여성 정책을 위한 헌법 개정 방향”, 『젠더 리뷰』 1998. 가을 호, p.26.

28) 에스핑 앤더슨(Gosts Esping-Andersen), “수요자중심의 복지서비스 전달체계구축전략”, 경기복지재단(<http://www.ggwf.or.kr>)·한국보건사회연구원(<http://www.kihasa.re.kr>) 공동 주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발전을 위한 국가간 비교 심포지움’(2011.11.8., 한국프레스센터)에서의 기조강연,

여성친화정책에 대한 논의는 “개인으로서의 역할, 직장인으로서의 역할, 배우자 및 가족으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기회를 여성에게 제공하는 정책”(Cattaneo et al. 1994:23~28)²⁹⁾이라는 서구적 관점, 그리고 우리나라 여성가족부가 제시한 ‘형평성, 돌봄, 친환경, 소통’이라는 여성친화도시 기본 방향을 함께 고찰함으로써 심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여성친화정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견해가 대세를 이루고 있고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지역사회 구성원 전체가 만족하는 품격 높은 복지사회로 가는 지름길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이라는 구체적인 물리적, 공간적 범위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지역의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정책모델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2. 외국의 사례

선진 외국은 물론 국내에서도 붐을 일으키고 있는 여성친화도시는 ‘여성의 안전’이라는 측면이 강조된 새로운 도시 개념으로 출발했다. 이후, 각 나라마다, 지역마다 다른 도시입지와 생활여건에 따라 그 개념이 확장되기 시작했으며 여성친화도시라는 명칭이 보편화된 지 40여 동안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은 1970년대 북미에서 ‘안전한 도시’에 대한 요구에서부터 시작되었고 1995년 북경 행동강령이후 각국이 성평등을 실현하고 도시를 여성친화적으로 개조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발전되었다.³⁰⁾

캐나다 몬트리올 여성들은 여성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보고 여성의 시정 참여 증대로 여성의 관점에서 도시 공간의 계획과 설계를 지향하는 ‘Femmes et Ville’를 조직하여 활동을 지속했다. 그 결과 2002년 여성안전위원회에서 70년대부터 시작된 여성과 안전한 도시에 대한 각종 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무장애 공간³¹⁾으로서 도시 실현을 제안하였다. 캐나다의 여성친화정책은 1970년대 북미 여성운동에서 기인한 것으로 여성에 대한 범죄와 폭력 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여성의 안전을 확보하고

29) 강인호 외, “지방정부의 여성친화적 정책과 조직성과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과학회보』 제9권 제4호(2005), p.2.

30) 최성지, 앞의 논문, p.6.

31) 무장애 도시(Barrier-free Society)는 인종이나 성별, 연령에 대한 차별 없이 일하고 소통할 수 있는 보편적 시민권이 보장되는 공간을 의미한다(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2011.

도시의 각종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 편리성, 쾌적성 등을 담보할 수 있는 도시환경 개선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이 무렵에 나온 1979년 UN의 ‘여성차별철폐협약’은 세계 각 가맹국의 여성정책을 크게 변화시켰고 이후 국제사회에서는 지속적으로 ‘생활 속 여성의 안전’을 기본으로 한 여성친화정책을 강조하는 추세가 이어졌다.

1980년대부터 여성친화에 대한 문제 제기 차원의 캠페인이 활발해진 가운데 1992년 6월, 브라질의 수도 리우데자네이루에서 114개국 국가수반이 참여한 ‘UN 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여성은 환경관리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³²⁾라는 점을 명시함으로써 국제 사회에서 여성친화정책의 발전 방향이 제시됐다. 이 선언은 장애인과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여성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권 확보에 대한 국제 사회의 관심을 담고 있다.

1994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OECD(선진국 위주의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의에서 채택된 ‘도시 여성을 위한 유럽 선언’³³⁾은 "인류의 절반인 여성인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국가발전은 물론 흥망성쇠에 큰 영향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여성을 고려한 도시 발전 모델을 전제로 “그 동안 도시의 사용자나 계획자로서 소외된 여성의 요구를 도시 정책에 반영할 것”을 강조했다.

1995년 9월 중국 북경에서 세계 1백81개국 대표 2천5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UN 제4차 세계여성대회’에서는 “여성에 대한 권한 부여와 의사 결정 과정 및 권력에의 접근을 포함한 사회 모든 영역에서 동등에 기초한 여성의 완전한 참여가 평등, 발전, 평화를 이룩하는 기본”이라는 핵심으로 ‘북경선언’³⁴⁾이 발표되었다. ‘여성 과 여자 어린이들의 인권을 향상시키고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없애고 여성의 발전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이 선언은 1995년 우리나라의 『여성발전기본법』 제정의 계기가 되는 등 국제사회에 여성친화정책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심어주었다.

1996년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제2차 UN 정주회의’³⁵⁾에서는 여성과 남성간의 평등성 실현에 관한 논의를 통해 ‘인간 정주(定住)의 성(性) 평등을 천명하고, 관련 정책의 성 분석 및 지표 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들에

32) 리우선언(Rio Declaration) 27개의 주요 원칙 중 20번 원칙. 1992.

33) Paris : OECD Conference, 'Women and the City'. 1994.

34) Beijing : UN Conference, 'Equality, Development and Peace', 1995.

35) Istanbul : HABITAT II European Charter for Woman in the City. 1996.

대한 사회적 배려를 강화할 것을 촉구하였다.

국가 경쟁력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 핀란드는 의회와 정부 등에 50% 이상의 여성이 진출해 국가 정책을 비롯한 사회 전반에 여성친화정책 반영 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여성친화정책의 선도국인 캐나다를 비롯한 미국과 유럽 선진국에서는 여성친화정책이 보편화됨으로써 21세기 국가 경쟁력의 핵심 키워드로 꼽히는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와 성인지적(性認知的) 관점(Gender Sensitive Perspeticive)³⁶⁾의 사회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다.

캐나다 밴쿠버시는 6가지의 양성 평등 원칙을 바탕으로 여성친화도시를 실현하고 있는 대표적인 도시로 꼽힌다. 밴쿠버시의 양성평등 핵심 원칙은 ① 양성평등을 이룬다. ② 모든 여성이 정치·경제·문화생활에 충분히 참여한다. ③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과 관련조직이 영향력을 가진다. ④ 여성차별과 관련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한다. ⑤ 여성의 영향력과 기여를 통해 도시의 다양성을 장려한다. ⑥ 성적 차이를 인정한다. 등이다.³⁷⁾

밴쿠버시는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여성들이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영향력을 가지도록 보장하고 안전한 도시 조성을 통해 여성의 피해를 줄이며 다양성을 중시하고 성차별을 개선하는 등을 목적으로 양성평등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밴쿠버시는 도시의 다양성이 풍부한 장점을 내세워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모든 여성들이 인종, 출신, 종교, 성, 나이, 경제수준과 상관없이 시의 서비스 정책의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게 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최대 도시인 비엔나는 1990년대부터 남녀평등 개선을 도시정책의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면서 여성친화도시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했다. 비엔나는 1992년 여성국을 신설하여 안전한 도시 조성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였고, 이를 통하여 도시계획 및 공간정책에 여성의 관점을 깊이 반영하게 되었다.

비엔나는 2002년 마리아 힐프 구를 성주류화 시범지구로 지정하여 ‘도시의 공평한 배분(stadt fair teilen)’ 프로젝트를 전개하기 위해 성 별 실태파악을 하고 도시계획 및 교통과 관련된 모든 부서에서 추진하는 정책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 분석 결

36) 위키백과(wikipedia) : ‘성인지적 관점’은 남성과 여성이 지닌 생물학적, 사회문화적 경험의 차이에 의해 서로 다른 이해나 요구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특정 개념이나 정책 등이 특정성에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은 지, 성역할 고정관념이 개입되어 있는 지, 아닌 지를 검토하는 관점을 말한다. 2014.10. 검색.

37) Vancouver City hall, ‘A gender equality strategy of the city of vancouver’, 2005.

과를 토대로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도시환경 조성 방안을 마련하였다.(여성부 연구 보고서, 2009)

여성친화 정책이 유럽에서 빠르게 도입된 노르웨이는 1913년, 여성 참정권을 처음으로 인정하면서 여성의 권리를 보장했으며, 1979년 ‘양성에 관한 평등지위에 관한 법률’인 양성평등법(gender equality act)이 제정되었다. 이 법을 근거로 고용·교육 등 여성에 대한 차별 방지 및 제거를 시행하고 있고 결혼, 상속, 성명, 시민권법 및 근로관계 법령 등에 양성평등 및 차별 금지 규정을 두고 있다.(여성가족부, 2008)

노르웨이의 양성평등 정책은 전통적인 여성의 일을 강화하기 보다는 남성의 참여를 긍정적으로 이끌어내어 자발적인 참여를 일으키고 또 다른 사회적 문제들을 완화하는 효과를 이끌어내고 있다. 그리고 부부의 동등한 경제 활동과 공동육아를 지원했으며 2010년 양성평등위원회(gender equality commission)를 설립하여 사회적 계층, 생활주기, 민족성이라는 세 가지 관점의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여성중심의료센터(Feminist Woman’s Health Center)’는 여성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친화 기관으로 임신과 출산, 피임, 낙태 등에 대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여성의 생리적인 문제와 여성의 생애 주기에 맞는 건강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영국은 국가 주도로 범죄예방과 여성의 안전을 위해 ‘방범환경설계제도(SBD: Secured by Design)’를 시행하고 있고 브리스톨·맨체스터 등의 도시에서는 ‘안전을 위한 가로등 개선’, ‘여성 감성을 중시하는 색채 및 디자인’, ‘화장실 등 시설물 개선’, ‘야간의 대중교통 서비스 운영’과 같은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여성친화 도시 공간 조성 및 서비스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프랑스 릴(Lille)시는 출산과 가족의 건강을 관리하는 여성의 역할에 주목하여 ‘여성 건강’을 위한 정책 강화를 시행하고 있는 데 매년 5월 28일을 ‘여성 건강의 날’로 정해서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다양한 정보교환은 물론 여성 질병진단의 기회를 제공하고 의료진과 주민간의 의사소통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표 2> 여성친화도시 해외 우수사례

분야	지역	사업명	주요 내용
안전	캐나다 토론토 몬트리올	밤길 되찾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경: 여성의 야간활동 안전 확보 · 내용: 일몰 후 버스 정류장 사이라도 승객이 원하는 목적지에 더 가까운 곳에 정차하는 서비스 제공. 즉, 정류장과 집 사이의 안전교통 제공. · 독신여성과 모자가정을 위한 주택건설 등 · 조직 : 캐나다 여성단체
	뉴질랜드 크라이스트 처치	여성 안전 디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경: 디자인을 통해 여성의 안전의식 확산 및 범죄 예방 · 내용: 어둡고 한적한 도로에 감시카메라 작동 구역 표지판을 설치하며, 공원 산책길을 따라 관목식재, 은닉장소 제거, 적절한 조명을 통해 범죄 두려움 제거 등 ‘모두가 서로 지켜준다’는 스티커 부착하여 심리적 안전 도모
돌봄 공동체	독일	마더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경: 여성의 일과 가정생활 양립 지원을 위한 보육 서비스 · 내용: 마더센터 설립을 통해 자녀의 엄마가 직접 참여하여 공동으로 자녀를 돌보거나 혹은 시간제 자녀보육에 참여하여 일자리 창출

출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http://www.kwdi.re.kr>) 자료, ‘여성친화도시 국내외 우수사례’
 중국내 사례를 제외하고 외국 사례만 재구성, 2013.

제3절 한국의 여성친화정책 현황

1. 법과 제도를 통한 여성권의 향상

우리나라의 여성정책은 헌법 제1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 헌법 제32조 제2항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헌법 제36조 2항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국가적 차원의 관점을 기초로 발전되어 왔다.

여성정책의 획기적인 변화는 이러한 헌법의 이념을 전제로 1995년 12월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을 통해서 구체화되었다. 헌법의 남녀평등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고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이 법은 이후 우리나라 여성정책의 선진화를 이끄는 촉매제가 되었다.

1999년 2월에 제정된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남녀차별 금지법)』은 남녀차별 금지 명령의 구체화 입법으로서 차별 금지 분야를 사회의 모든 영역으로 하고 차별 금지 의무 및 차별 시정 기관으로 민간기업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을 공공기관으로 규정하고 고용, 교육, 재화·시설·용역 등의 제공 및 이용 그리고 법과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남녀 차별과 성희롱을 금지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07년 12월 제정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특별법』 역시 여성친화정책의 확산에 크게 기여했다. ‘가족친화’와 ‘여성친화’는 상호 보완적 개념³⁸⁾이기 때문에 이 법이 여성친화정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것은 당연한 결과다. 이 법은 저출산 및 고령화 그리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진 등 미래의 사회 환경변화에

38) 이영안, “논문 제목”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2007년) : “가정친화적 정책은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까지도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인 정책이다. 하지만 여성이 가사의 주된 책임을 지고 있는 현실, 특히 유교권 동양 여성들의 경우 가사와 가족에 대한 책임감과 관심도가 서양 여성들에 비해 훨씬 더 강해서 아직도 많은 여성들은 직장이나 자신의 경력 발전보다 가족과 가정을 더 소중히 여긴다는 Ng(1999)의 의견을 감안할 때 탁아소 설치, 육아휴직, 가사휴직 등의 가정친화적 정책들은 실제로 여성친화적 정책의 주요 요소이기도 하다(Doome-Huiskes, 1999). 따라서 여성친화적 정책은 가정친화적 정책을 포괄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규정할 수 있다.”

대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상과 같은 주요 법률 제정은 우리 사회의 양성평등 문화 확산과 가족친화 정책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됐으며, 궁극적으로 최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여성친화정책의 발전을 가능하게 한 밑바탕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법률 제정에 발맞추어 선진적인 여성정책 수립과 시행을 위한 제도(기구) 역시 진일보하고 있다.

2. 여성가족부의 역할 증대

우리나라의 여성정책 주류화는 1983년 국무총리 산하 여성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1998년 여성정책의 총괄 및 조정, 여성권익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안 제정 및 정책 입안 등을 총괄하는 정무장관실(2실)이 설치되면서 본격화 되었다. 이어 1997년 12월 대선에서 김대중 후보가 여성부 신설과 여권신장을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되었고 1998년 2월28일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41명)’가 설치되어 여성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기획·조정 업무를 관장하게 되었다.

2001년1월에는 여성특별위원회의 업무와 함께 보건복지부의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 성매매 방지 등과 노동부의 여성의 집 사무 등을 넘겨받은 여성부가 신설돼 정부 부처로서 입법권과 준사법권을 갖추게 되었다. 여성부는 2004년 6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영·유아 보육업무를 이관 받았고 2005년 6월, 통합적인 가족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로 개편되었다. 2008년 2월 보건복지부로 가족·보육업무를 이관하면서 다시 여성부로 환원됐다가 2년 여 만인 2010년 3월, 가족·청소년·아동 업무를 다시 넘겨받아 여성가족부로 환원되었다.

여성가족부는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여성인력의 개발·활용, 청소년활동 진흥 및 역량개발,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가족 및 다문화가족 정책의 기획,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지원,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이주여성·여성장애인 등의 권익 보호를 주요 업무로 다루고 있다.³⁹⁾

2013년 현재 우리나라의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49.9%로 남성보다 23.4%p 낮고, 대졸 이상은 25.6%p 낮은 것으로 조사 되었으며, 여성 임금은 남성의 68.0% 수

39) 여성가족부 자료, 여성가족부 개편 주요업무소개, 2012.

준이고, 15~53세 기혼여성 중 경력단절여성 비율은 20.3%로 나타났다. 반면 여학생의 대학 진학률은 74.3%로 남학생보다 높고, 여성 국회의원 당선자는 15.7%, 지방의회의원 당선자는 20.3%로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사회 안전에 관해서는 조사 대상의 11.2%만이 안전하다고 응답했고 강력범죄(흉악) 피해자의 10명 중 8명(83.8%)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95년 29.9%에 비하면 엄청난 증가 추세이다.⁴⁰⁾ 이와 같은 통계 자료는 우리 사회 전반에 여성친화정책이 더 강화돼야 한다는 당위성을 제공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여성친화정책 과제는 여성의 관점을 반영한 일과 가정의 양립, 여성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미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우수한 여성 인재 육성, 지방화 시대 자치단체 구성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성정책 등이 주요 과제인 것이다.

3. 국회의 관련 법 개정 노력

여성정책의 근간이 되고 있는 『여성발전기본법』은 지속적인 개정을 통해 여성친화정책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2013년 김제남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14년 2월부터 시행되는 법률은 “국기기관 등에 대한 성희롱 제재 강화, 예방 조치의 개선, 피해자 구제 실효성 강화” 등 공적 영역에서의 성희롱 문제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담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 넘지 않도록 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성인재 육성과 관련해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여성 인재에 관한 정보를 수집·관리하도록 하고 여성 인재의 역량 강화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가 차원의 여성 인재 육성 의지를 담고 있다.

전정희 국회의원이 2013년 11월 대표 발의한 일부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이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지고 있어 사업추진의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의 지속적 확대 및 관련 예산 확보 등에 애로점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이 체계적·공식적으로 추

40) 통계청, 『통계로 본 여성의 삶』, 2013. pp.35~40.

진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동안 중앙정부에 비해 저조한 실적을 보인 지역 여성정책이 활성화 되도록 하여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한편 2010년 10월 익산시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를 시작으로 이미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받은 도시나 지정을 준비하는 지자체는 대부분 관련 조례를 제정이나 개정 등을 통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여성친화정책 추진의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여성친화도시 관련 TF팀 구축과 민관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지역 사회 전반에 여성친화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여성정책은 법과 제도(기구)의 발전을 통해 선진화에 접어들었으며 2009년 3월 전국 최초로 전북 익산시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면서 전국의 각급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여성친화정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여성친화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제4절 여성친화도시 지정과 발전 과정

1. 국내 여성친화 문화의 확산

각급 지자체의 여성친화정책 수립·시행의 수준을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는 여성친화도시는 2009년 3월 전북 익산시를 필두로 민선 5기 3년째인 2013년까지 총 50개 기초·광역단체가 지정됨으로써 지방자치시대의 중요 정책 화두로 등장했다.

여성가족부의 방침에 따라 여성친화도시 지정은 향후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각급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가족부 지정 기준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여성친화정책을 더욱 늘려갈 것으로 예측된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정책의 공간적, 물리적, 사회적 측면에서의 안전과 편의, 참여와 성장에 대한 여성의 일상을 반영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지역공동체의 회복과 삶의 질이 구현되도록 하는 종합적인 지역정책의 새로운 모델”이라는 여성가족부의 정의(2010)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여성만이 아닌 사회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지역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다. ‘여성이 살기 좋은 곳이면 어린이와 노인도 살기 좋고 더불어 모든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곳’이라는 보편적인 인식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당위성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논의는 2003년 2월 ‘한국여성건설인협회’가 ‘도시와 공동주거 관점에서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시작되었고 2006년 김포시가 한강신도시를 건설하면서 처음으로 성별 영향평가를 도입하여 여성 친화형 도시의 모델을 제시하면서 진전 단계에 접어들었다.⁴¹⁾ 최초의 사례는 김포 한강도시 건설 계획에 대한 성별 영향 평가를 들고 있다. 이후 2007년 대구 혁신도시계획, 2008년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광교신도시, 화성 동탄 신도시 등 신도시계획에 여성친화 개념이 이미 포함되었다고 보고 있다.

2007년 서울시의 여성친화정책은 ‘여성이 행복한 도시 프로젝트(女幸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촉발되었다. 여성들이 도시에서 느끼는 불편이나 불안 등을 체계적으로 해소하여 여성들이 살기 좋고 편안한 도시를 지향하는 ‘여행 프로젝트’는 돌보는 서울, 일 있는 서울, 넉넉한 서울, 안전한 서울, 편리한 서울 등의 5대 영역을 사업 추진 목표로 제시함으로써 기존의 여성정책을 넘어선 획기적인 여성친화정책으로 관심을 모았고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도 본격적으로 여성친화정책에 대한 검토를 시작하게 되었다.

2008년 전북 익산시는 ‘여성친화 감성도시’를 목표로 지역 이미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여성정책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중앙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는 선도적인 정책 등으로 2009년 3월 전국 최초의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었다. 익산시는 2011년 7월 부시장 직속으로 여성친화담당관을 신설하는 등 제도정비를 통한 여성친화정책의 선진화를 주도하고 있으며 시정의 주요 업무를 의무적으로 여성친화담당관실에서 컨설팅 후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시정 전반을 여성친화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익산시에 이어 2009년 12월 전남 여수시가 여성가족부와 협약식을 갖고 전국 2호 여성친화도시로 출범한 이후 여성가족부는 2010년부터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다양한 평가기준을 통한 여성친화도시 지정 공모를 실시하는 등 여성친화정책이 각급 지자체의 주요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전환점을 만들었다.

2. 여성친화도시의 특징과 핵심 가치

이미원(2009)은 여성친화도시의 특징으로 ‘소프트시티·경쟁력 있는 도시·자연친화

41) 최성지, 앞의 논문, p.6.

적 통합도시’를 제시했다. 소프트시티 개념은 21세기 도시정책의 패러다임이 물질적 성장을 추구하던 하드시티에서 문화, 예술, 디자인을 중시하는 소프트시티로 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쟁력 있는 도시 개념은 성공적인 도시 개발의 가치를 여성 및 가족친화 환경조성에서 찾고 있으며 여성 및 가족친화도시는 도시 브랜드 전략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인식이다. 자연친화적 통합도시 개념은 글로벌시대 다문화주의 수용 및 녹색성장 화두를 포함할 수 있는 새로운 도시개발 전략으로 여성친화도시 이념이 대두되었다는 것이다.⁴²⁾

양광식(2009)은 여성친화도시의 개념과 목표에 대해 “여성친화도시란 여성과 남성이 동일하게 매력을 느끼고 동등한 발전기회를 보장하도록 도시를 조성하는 계획 과정이다. 즉 도시개발 및 계획을 위한 목표설정 자료 분석 전략개발 등의 모든 단계별 의사결정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요구 및 관심사가 동일하게 고려되어야 하며 더 나아가 어린이, 청소년, 성년, 남성, 여성이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및 공간을 창출하기 위한 제반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고 했다.⁴³⁾

장임숙 외(2012)는 “여성친화도시는 오랜 세월 소수자로 살아온 여성이야말로 기회 불평등구조를 인식하고 개혁하는 중요한 견인차가 될 수 있고 또 이들의 정치사회적 참여 확대는 사회 형평성을 구현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에서 비롯된 것이다. 즉 그동안 지역정책에서 배제되어왔던 여성을 비롯한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의 사회적 소수자의 요구를 반영하고 이들을 배려하여 모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하겠다.”라고 하였다.⁴⁴⁾

여성이족부는 삶의 질을 살피는 지역정책은 여성이 참여하는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비전으로 하여 형평성, 돌봄, 친환경, 소통의 4가지를 여성친화도시의 핵심 가치로 제시하였다. 첫째, 지역 내 참여의 기회, 자원과 서비스의 접근성과 배분, 일상생활의 안전과 편의 등의 측면에서 정의와 형평성을 추구. 둘째, 지역공동체 구성원 상호간의 협력과 지원, 육성의 문화를 조성하는 돌봄의 가치를 지향 셋째, 인간과 자연 간 공생의 철학에 기반하여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증진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생태적이며 지속 가능한 삶으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친환경적 발전을 추구. 넷째, 친밀한 관계를 촉진하는 주민 공간과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갖춘 민주적이며 개방적인 도

42) 이미원,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 및 발전 방향", 여성부, 2009. p.ii.

43) 양광식, "익산시 여성친화도시의 정책 과제", 『전북발전포럼』 통권 제12호, 2009. p.33.

44) 장임숙·이원일, 앞의 논문, p.34.

시 운영 시스템 구축을 통해 시민들 간의 소통 활성화를 추구하는 것이다.⁴⁵⁾

[그림 5] 여성친화도시 특징과 핵심가치



출처 : 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 메뉴얼, 2010. p.3.

3. 여성친화도시 추진 절차

여성가족부가 제시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은 “삶의 질을 보듬는 지역정책, 여성의 능동적 참여를 통한 지역 공동체 행복 구현”을 실현하기 위해 활용하는 정책 수단이며 따라서 조성 과정은 첫째,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역이 지자체 여건에 적합한 방식의 발전 방안을 제안하는 형태여야 하고 둘째, 지역사회 내 모든 구성원의 참여하에 계획, 실행, 평가되어야 하며 셋째, 시민의 요구를 행정 계획에 반영하고 이를 달성하는 과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지자체 행정의 유연하고 책임 있는 접근

45) 여성가족부 자료, 2010. pp.61~62.

이 요청된다.

여성친화도시 조성단계의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기초 작업으로 주무부서 지정과 지역 현황분석이 진행되어야 하며 시민·단체·기업 등을 아우르는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를 구성한다. 둘째 시·군·구와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에서 여성친화도시 조성 방향 및 과제에 대한 협의를 거쳐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하며 시민공청회를 거쳐 조례제정 등 추진체계를 정비한다. 셋째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각종 협력 회의를 조직하고 사업과정을 모니터링 한다. 넷째 사업 추진과정을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의 목표에 따라 평가하고 신규 사업을 발굴하여 향후 추진방안을 수립한다.⁴⁶⁾

여성친화도시 조성 계획 범위는 5년간 시행할 여성친화도시 방향과 목표, 추진체계, 주요 정책과제와 연차별 추진계획, 성과지표를 마련하며 여성친화도시 조성은 여성정책 전담 부서의 범위를 넘어 모든 부서와 행정 단위를 포괄하는 것이어야 한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계획수립 방향은 기존 여성정책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진단과 도시 관리의 성인지 분석에 기반하여 해당 지자체 사업 여건을 고려하고 정책 이슈를 개발하고 사업추진 부서가 다양하므로 사업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강화하기위한 체계적인 점검과 관리체계를 개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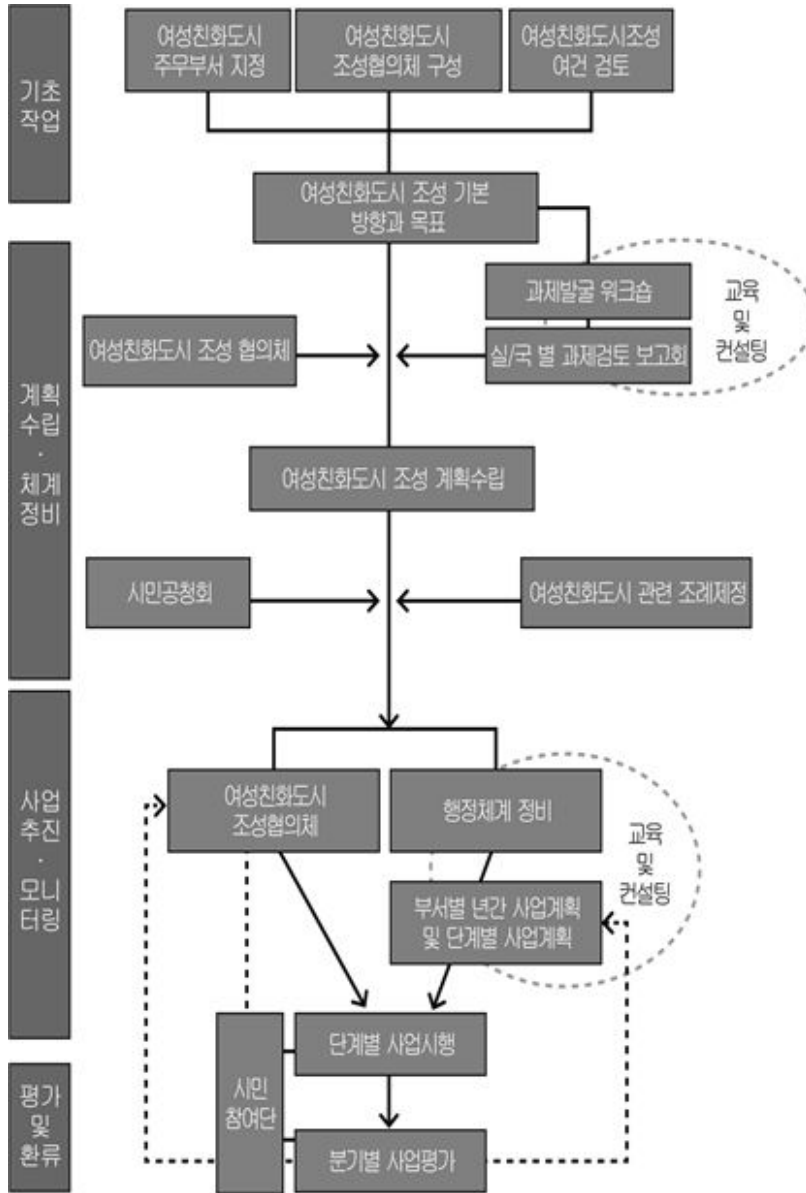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조성협의체 의견과 사업 분야별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면서 시행 가능성을 파악한다. 초안 개발 후, 관련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여성친화도시 목표, 정책 영역 등 계획의 전반적 구조, 세부 정책과제 선정의 타당성 등에 대한 자문회의를 개최한다.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에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목표, 정책 과제 (과제명, 사업 내용, 담당 부서, 사업비)가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추진현황과 실적을 보다 알기 쉽게 정리 보완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 수립 시 사업목표가 무엇이며, 중간과정의 산출물 (사업 참여자, 사업 시행회수), 예산소요액 등이 얼마인지, 제시되어야 하며 투입과 중간과정의 산출물은 과연 사업목표 달성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매해 점검하고 실적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각 자치구별로 제시되고 있는 사업현황과 추진실적은 일차적인 정보제공에 그치는 한계가 있으며 향후 어떻게 개선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찾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⁴⁷⁾

47) 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 매뉴얼, 2010, p.11.

47) 강현아, 앞의 연구보고서, p. xi.

[그림 6] 여성친화도시 조성 과정



출처 : 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 매뉴얼, 2010. p.12.

4. 국내 여성친화도시의 지정 현황

여성가족부가 2013년 12월 현재 지정한 여성친화도시는 <표 3>에서 나타난 기준 조건에 충족한 도시들로서 <표 4>에서 보듯이 전국적으로 50개 자치단체로 늘어났고 2011년 3월 ‘여성친화도시지정도시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어 지자체간 정보교환과 협력·교류의 분위기 조성이 이루어지고 있다. <표 5는> 여성친화도시의 대표적 국내 우수사례로서 이를 통해 각 자치단체마다 지역의 특성에 맞는 우수정책을 개발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는 지정 도시를 대상으로 2012년부터 우수사업 공모를 통해

<표 3> 여성친화도시 지정 기준 및 조건

항 목	지 표	내 용	비중
여성친화도시 구성 기반 구축 정도 (80)	여성친화도시 조성 여건	지자체 성 주류화 현황 및 실적	20
	해당 도시의 조성 의지	여성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및 대내외적 활동 현황과 성과	40
	거버넌스 추진기반	민관협력 방식의 여성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여건	20
여성친화도시 추진계획의 내용 (100)	목표와 내용의 부합성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목표와 내용 부합성	20
	사업계획의 충실성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계획 세부 내용의 실효성과 추진의 현실성 등	40
	예산 계획의 적절성	현실 가능한 예산운용 계획 및 재원확보 방안	20
	평가 및 환류계획 실효성	사업추진 실적의 자체 점검 및 환류 기제	20
여성친화도시 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20)	사업 기대효과	여성친화도시 추진으로 인한 각종 기대효과	20
계			200

출처 : 여성가족부 자료, ‘여성친화도시 지정 기준 및 조건’, 2012.

인천 부평구의 ‘성 평등한 마을 만들기’, 전북 익산시의 ‘여성친화시범구역 조성’, 경북 영주시의 ‘지역특화 섬유산업 여성기능 인력양성 사업’, 경남 창원시의 ‘우리 동네 한바퀴 지킴이단 안전망 구축운영’ 등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2013년에도 광주 북구의 ‘지킴·채움·나눔 골목길 조성’, 전북 익산시의 ‘여성친화 농촌마을 조성 사업’, 인천시 부평구의 ‘여성이 편안한 발걸음 500보 사업’ 등이 우수 사업으로 선정되는 등 지자체의 지역특성을 살린 우수 정책들이 계속 발굴·시행되고 있다

<표 4> 여성친화도시 지정도시(50개 도시)

여성친화도시 지정도시(50개 도시)	
(전북) 익산시, (전남) 여수시	’09년 지정 (2개)
(서울) 강남구, (대구) 중구·달서구, (경기) 수원시·시흥시 (강원) 강릉시, (충북) 청주시, (충남) 당진시	’10년 지정 (8개)
(서울) 도봉구, (부산) 사상구, (인천) 동구·부평구, (광주)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 (강원) 동해시, (경기)안산시·안양시, (충남)아산시, (전북) 김제시, (전남) 장흥군, (경북) 영주시, (경남) 창원시·김해시·양산시, 제주특별자치도	’11년 지정 (20개)
(서울) 서대문구·마포구, (부산) 연제구, (대구) 수성구, (경기) 의정부시·광명시, (강원) 영월군, (충북) 제천시, (경북) 포항시	’12년 지정 (9개)
(부산) 중구·남구, (인천) 연수구, (대전) 서구, (경기) 용인시, (강원) 원주시, (충남) 보령시·태안군, (전북) 남원시, (경북) 구미시·경산시	’13년 지정 (11개)

출처 : 여성가족부 자료, ‘여성친화도시 시범도시’, 2013.

<표 5> 여성친화도시 우수 사례

분야	지역	사업명	주요 내용
안전	안산시	안심귀가	·배경: 성폭력 및 흉악범죄 발생으로 여성의 밤길에 대한 두려움 증가하는 상황에서 예방책 마련 ·내용: 23:00~01:00 사이에 귀가하는 아동, 청소년, 여성의 신청을 받아 집까지 도보 및 자율방범대 차량으로 동행하는 귀가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사람은 시청 당직실에 신청하거나 혹은 지하철역에서 직접 현장 서비스 이용 가능 ·자율방범대(39개 대대, 1,727명)와 통장협의회
	창원시	우리동네 한바퀴 지킴이단 안전망	·배경: CCTV나 경찰인력 등 확대만으로 여성 및 아동에 대한 폭력방지가 어렵다는 인식하에 주민 스스로 안전지역 만들기 활동 시작 ·내용: 3인 1조가 되어 주1~2회 하교시간, 취약 시간에 위험지역 순회하여 안전실태 모니터링. 지역별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를 파악하여 지역 사회 복지자원과 연계 ·조직: 62개 읍면동 지킴이단 758명 구성
지역 공동체	부산시	주례2동 희망디딤돌사업	·배경: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재생을 도모한 주민참여형 통합복지 프로그램 ·내용: 어둡고 좁은 골목길과 여성과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CCTV와 보안등 설치, 여성이 주축이 된 마을 공동체 '냉정골 희망밥상' 설치
여성 건강 지원	서울 도봉구	더불어 사는 여성건강 마을	·배경: 지역 여성간 네트워크 구축 시범사업으로 추진, 보건소 중심의 건강체계에서 지역사회 자원 및 참여자 결집을 통한 여성건강 모형 구축 ·내용: 여성건강 멘토와 리더 양성교육, 양성 리더의 시범교육 및 카페지기 활동, 동아리 모임, 여성건강 축제 진행, 여성건강협의회 구성을 통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기반 구축 ·조직: 도봉구 보건소, 사회건강연구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도봉여성센터 등 여성건강 네트워크단

출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자료, '여성친화도시 국내·외 우수사례' 중 외국 사례를 제외하고 국내 사례만 재구성, 2013.

제3장 광주광역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현황

제1절 외부에서 본 광주광역시 여성친화도

1. 선행 연구 결과와 광주광역시의 위상

각 자치단체의 여성친화 수준은 지역 내부의 참여와 결속을 통한 지역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외지인들을 유인하여 지역의 위상을 높이고 경제 효과를 거두는데도 유용한 수단이 될 것이다. 더욱이 객관적인 외부 평가는 관련 정책수립에 좋은 참고 자료로 삼을 만하다. 국내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 자료는 거의 없다. 그 이유는 광역단위 여성친화도시가 광주광역시와 제주자치도 뿐이라는 한계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원래 여성친화도시는 기초자치단체 중심으로 시행되어 왔다. 그러나 광주광역시가 선도적인 광역단위 모델로 선정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큰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16개 시도별 여건은 차이가 있지만 선행 연구 중 16개 시·도를 평가한 채은주(2014)의 ‘광역자치단체의 여성친화도 평가 및 지역 간 비교 분석 -16개 시·도를 중심으로’와 여성가족부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3)에 의뢰한 ‘2013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와 광주여성재단의 강현아 외 ‘광주광역시 여성친화도시 광역형모델 연구’를 참고 자료로 활용했다.

채은주의 연구는 16개 시·도의 광범위한 통계 자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체감도, 호응도 등을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나 그런 통계 역시 지역주민들의 뜻이 깊이 반영되어 있고 자치단체의 정책 의지를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광역단위 여성친화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주재선 외 연구는 광주광역시의 성평등 수준과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며 지역의 특화된 여성정책 수립과 평가 그리고 체계화된 여성정책 수립에 필요한 각종 통계를 담고 있다. 성 평등 수준이 여성친화도시의 수준을 나타내는 바로미터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여성친화도시가 근본적으로 성 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연구 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표 6> 여성친화도 평가 지표

구분	중분류	세부자료
정치 및 의사결정	정치적 대표성	국회의원의 성비
		광역·기초의원의 성비
		구·시·군의장 및 의회의원의 성비
	의사결정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성비
		5급 이상 공무원의 성비
		교육위원의 성비
		초·중·고등학교 교장·교감의 성비
경제 및 고용	경제	경제활동 참가인구의 성비
		근로자의 성별 평균임금 격차
	고용형태	관리직 근로자의 성비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의 성비
		비경제활동인구 중 고학력경력 단절의 성비
보건 및 복지	건강과 보건	유병률의 성비
		검강점진 수검률의 성비
		주요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의 성비
	사회보험과 복지	국민연금 가입자의 성비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성비
		기초생활수급자의 성비
안전	도시공간에서의 안전	건축·시설물에 대한 안전도의 성별 인식 격차
		자연재해에 대한 안전도에 대한 성별 인식 격차
		야간보행에 대한 안전도의 성별 인식 격차
	범죄로부터의 안전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성별 인식 격차
		강력범죄 피해자의 성비
가족 및 문화	가족	육아휴직자의 성별 격차
		가정 내 가사시간의 성별 격차
		가족생활만족도의 성별 격차
	문화	문화 및 여가활동 만족도의 성별 격차

출처: 채은주, “광역자치단체의 여성친화도시 평가 및 지역간 비교 분석-16개 시·도를 중심으로 -”,
 인하대학교대학원 도시계획학 석사학위 논문, 2014. pp.37~38

<표 7> 지역 성평등 지수의 영역과 개별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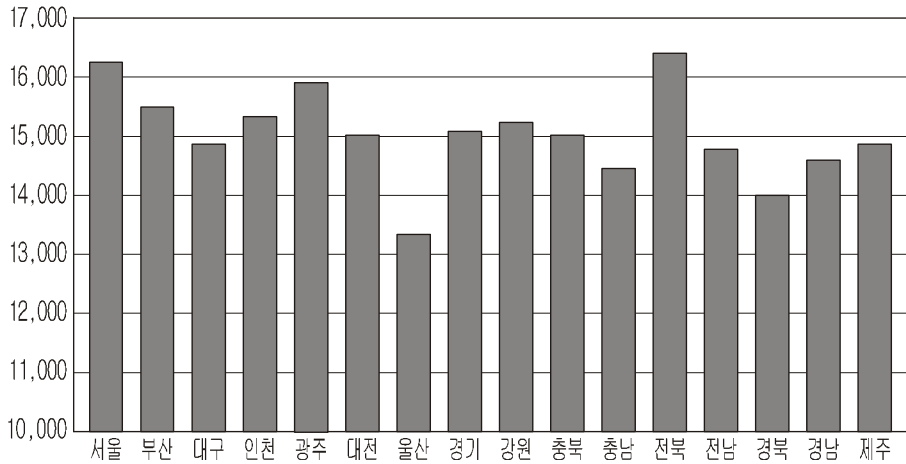
2011년		2012년~2013년	
영역명	개별지표	영역명	개별지표
여성의 대표성 제고	광역의회 의원 성비	대표성 제고	광역 및 기초의회 의원 성비
	기초의회 의원 성비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 성비
	광역 및 기초단체장 성비		5급 이상 공무원 성비
	5급 이상 공무원 성비		초·중·고 교장의 성비
여성의 경제 세력화	고용률 성비	경제참여와 기회	고용률 성비
	남녀 임금 격차		관리직의 성비
	관리직의 성비		상용직 근로자 성비
	전문직의 성비		남녀 임금 격차
여성의 가정과 안전한 삶	가사노동시간의 성비	가정과 안전한 삶	가족관계 만족도 성비
	가족관계 만족도 성비		가사노동시간의 성비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도 성비		육아휴직 사용 성비
	육아휴직 사용 성비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도 성비
	강력범죄 피해자 성비		강력범죄 피해자 성비
소외여성 사회통합	기초생활보호자 성비	복지	기초생활보호자 성비
	공적연금 가입자 성비		공적연금 가입자 성비
	노후준비자 성비		노후준비자 성비
	한부모가구 중 저소득가구 비율 성비		
가정영역	여성발전기금 규모	삭제	삭제
	여성관련 법 및 규정		
	보육아동 대비 보육비 예산		
	성별영향평가 대상 과제 수		
	공무원 대상 성인지교육 참여 비율		

출처 : 주재선 외, “2013년 지역별 성 평등 수준 분석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3. pp.37~38.

주: 1) 관리직은 통계청의 표준 직업분류에서 정부, 기업, 단체 또는 그 내부 부서의 정책과 활동을 기획, 지휘 및 조정하는 직무를 말함.

2) 상용직 근로자는 근로계약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이거나, 정해진 계약기간 없이 본인이 원하면 계속 일할 수 있는 근로자를 말함.

<그림 7> 지역별 여성친화도



출처: 채은주, “광역자치단체의 여성친화도시 평가 및 지역 간 비교 분석-16개 시·도를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4. pp.50~51.

<표 8> 지역별 성 평등 지수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성 평등 상위지역 (Lever-1)	강원	강원	경기	강원	강원
	광주	광주	대전	서울	대전
	서울	서울	서울	전남	서울
	제주	제주	인천	제주	제주
성 평등 중상위지역 (Lever-2)	경기	경기	강원	경기	경기
	경남	경남	전남	대전	부산
	인천	인천	제주	부산	인천
	충남	충북	충북	인천	전남
성 평등 중하위지역 (Lever-3)	대구	대구	경남	광주	경북
	대전	대전	광주	대구	울산
	부산	전남	대구	울산	전북
	충북	충남	부산	충남	충남
성 평등 하위지역 (Lever-1)	경북	경북	경북	경남	경남
	울산	부산	울산	경북	광주
	전남	울산	전북	전북	대구
	전북	충북	충남	충북	충북

출처: 주재선 외, “2013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3. p.32.

주 : 성평등 수준별 지역구분에서 각 집단별 시·도 순서는 ‘가나다’ 순서로 기술하였음.

광주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5개의 기초자치단체 모두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어 있다는 점이 전체의 여성친화도를 높이는 요인이 된 것으로 분석되며 1위인 전북의 경우, 여성친화도시 1호인 익산시가 소재하고 있고 익산시의 모범 사례가 주변 기초단체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지역의 전반적인 여성친화 수준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2위인 서울시의 경우, 자체적으로 모든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여성이 행복한 도시 프로젝트’를 추진함으로써 여성친화 수준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주재선 외 연구에서 광주광역시는 ‘성 평등 수준’ 평가에서 16개 시·도 중 경상남도, 대구광역시, 충청북도와 함께 상대적으로 성 평등 수준이 최하위 수준인 4개 지역(Level -4)에 포함됨으로써 여성정책 전반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2. 광주광역시의 분야별 여성친화도

가. 정치 및 의사 결정 / 대표성 제고 영역

광주광역시는 정치적 대표성이 서울에 이어 2위에 올라 여성의 정치 참여가 비교적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2014년 6.4(제6회) 지방선거에서 여성 광역의원 당선자 비율 21.1%(전체 19명 중 4명)로 전국 1위를 차지했고, 여성 기초의원 당선자 비율 23.7%(전체 59명 중 14명)로 서울 23.8%에 이어 전국 2위를 차지했다. 2014년 4.11(제19대) 총선에서는 여성 국회의원이 1명 당선되어(8명 중 1명, 12.5%)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한 여성 국회의원을 배출한 4개 시·도와 똑같은 12.5%를 기록했다.

<표 9> 광주광역시 광역의원 여성당선인비율

구시군명	제 5회 광주광역시 광역의원				제 6회 광주광역시 광역의원			
	당선 인수	성별		여성 당선인 비율	당선 인수	성별		여성 당선인 비율
		남	여			남	여	
합계	19	17	2	10.53%	19	15	4	21.05%
동구	2	2	0	0.00%	2	2	0	0.00%

서구	4	3	1	25.00%	4	3	1	25.00%
남구	3	3	0	0.00%	3	2	1	33.33%
북구	6	5	1	16.67%	6	5	1	16.67%
광산구	4	4	0	0.00%	4	3	1	25.00%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당선인 각종통계, 2014. 12

<표 10> 광주광역시 기초의원 여성당선인비율

구시군명	제 5회 광주광역시 기초의원				제 6회 광주광역시 기초의원			
	당선 인수	성별		여성 당선인 비율	당선 인수	성별		여성 당선인 비율
		남	여			남	여	
합계	59	47	12	20.34%	59	45	14	23.73%
동구	7	6	1	14.29%	7	5	2	28.57%
서구	11	8	3	27.27%	11	10	1	9.09%
남구	10	8	2	20.00%	9	7	2	22.22%
북구	18	15	3	16.67%	18	14	4	22.22%
광산구	13	10	3	23.08%	14	9	5	35.71%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당선인 각종통계, 2014.12

<표 11> 광주광역시 국회의원 여성 당선인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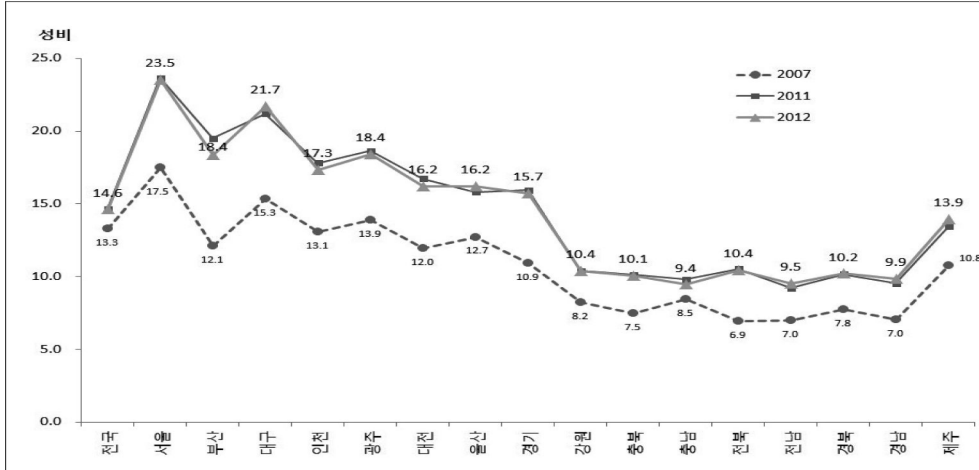
선거구명	18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명	19대 국회의원선거			여성당 선인 비율
	당선 인수	성별			당선 인수	성별		
		남	여			남	여	
합계	8	8	0	합계	8	7	1	12.5%
동구	1	1	0	동구	1	1	0	
서구갑	1	1	0	서구갑	1	0	1	
서구을	1	1	0	서구을	1	1	0	
남구	1	1	0	남구	1	1	0	
북구갑	1	1	0	북구갑	1	1	0	
북구을	1	1	0	북구을	1	1	0	
광산구갑	1	1	0	광산구갑	1	1	0	
광산구을	1	1	0	광산구을	1	1	0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당선인 각종통계, 2014. 12

주재선 외 연구에서도 광주광역시는 대표성 제고 영역에서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에 이어 최상위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앞으로 광역 및 기초단체장 배출과 여성 정치인 발굴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 전반적으로 지표에서 성평등 수준 제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8] 대표성 제고 영역의 성평등 지표 값 변화 추이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출처 : 주재선 외, '2013년 지역별 성 평등 수준 분석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3. p.35.

나. 경제 및 고용 / 경제 참여와 기회 영역

광주광역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11년 48.8%에서 2012년 47.3%로 감소하였으나, 같은 기간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8.7%에서 69.0%로 소폭 증가하였다.

여성의 고용률은 2011년 47.6%에서 2012년 46.2%로 감소한 반면 남성의 고용률은 2011년 66.3%에서 2012년 66.9%로 소폭 증가하였다. 실업률의 경우 여성은 2.6%에서 2.45로 감소하였고 남성은 3.4%에서 3.0%로 감소하였다. 2012년 전국 여성경제활동 참가율과 비교해 보면 여성은 전국(51.3%)보다 2.5%p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남성도 전국(74.1%)보다 5.4%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여성 실업률은 전국(2.9%)에 비해 약간 낮은 2.4%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제활동 활성화와 관련해서 2012년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이 실시한 조사

에 따르면 전업주부의 85%가 다시 일하고 싶은 것으로 나타난 만큼 광주시도 이러한 현실적인 데이터를 반영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한 발전적인 여성친화 정책 발굴과 시행에 적극 나서야 한다. 2012년 12월 현재, 광주시의 여성 고용률이 45%로 전국 특별시와 광역시 평균 48.2%에 비해 뒤쳐져 있고,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도 47.3%로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14위에 머물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표 12> 2012년 전국 및 광주광역시 경제활동 참가율

(단위 %)

구분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2012 전국	51.3	74.1	49.8	71.6	2.9	3.4
2012 광주광역시	47.3	69.0	46.2	66.9	2.4	3.0
2011 광주광역시	48.8	68.7	47.6	66.3	2.6	3.4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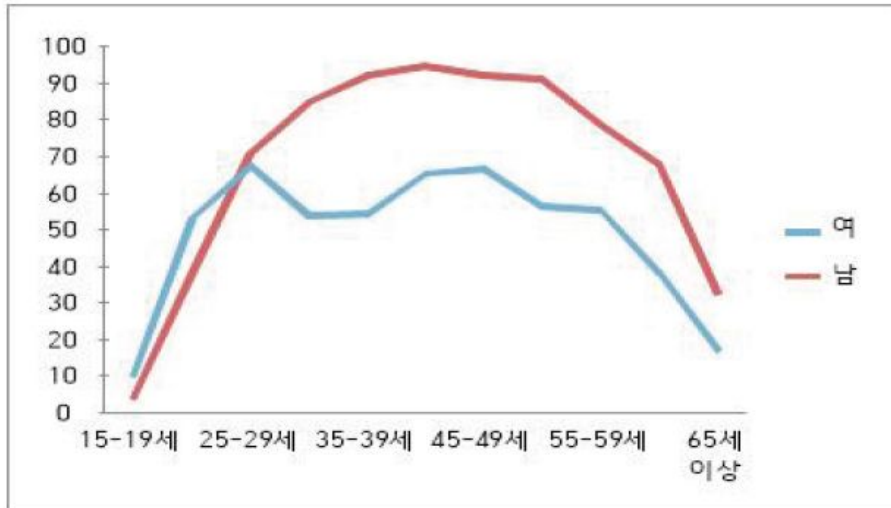
<표 13> 2012년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단위 %)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50-54세	55-59세	60-64세	65세 이상
여	10.4	52.9	67.6	53.9	54.3	65.3	66.6	56.5	55.5	38.4	17.3
남	4.1	38.0	70.8	85.0	92.3	94.7	92.4	91.1	78.8	67.8	33.0

자료 :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박주희, 2013. 2013 광주 성인지 통계에서 인용.

[그림 9] 2012년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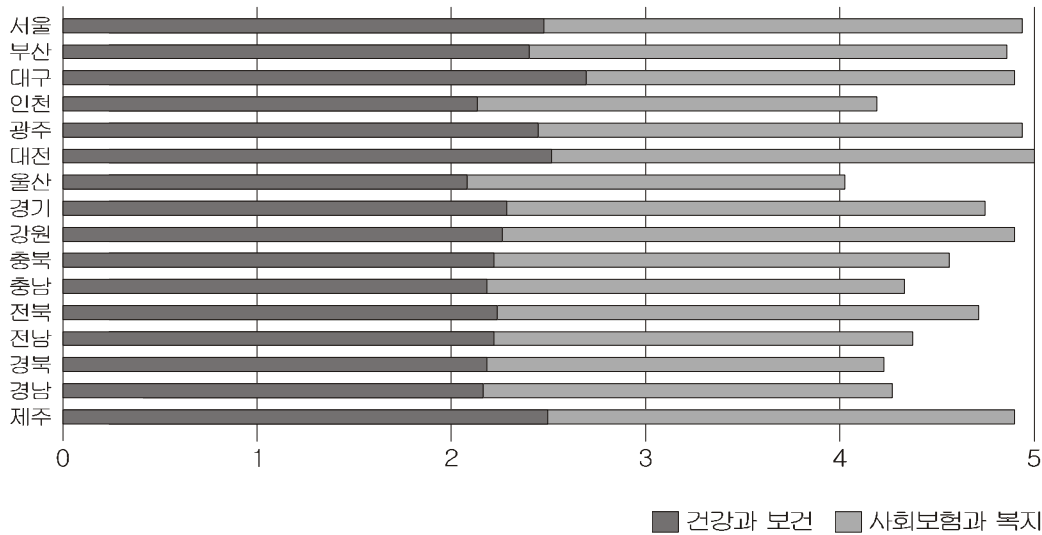
다. 보건 및 복지 / 복지 영역

보건 및 복지 분야는 전반적인 여성의 건강과 보건, 사회보험과 복지 부문 지표를 통해 여성친화도를 측정했다. 건강과 보건 부문 세부 지표는 유병률의 성비, 건강검진 수검률의 성비, 주요 만성질환 사망률의 성비 등으로 구성되었다. 사회보험과 복지는 국민연금 입자의 성비,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성비, 기초생활수급자의 성비를 세부 지표로 삼았다. 여성 평등을 평가하는 국제지수 중에서도 건강 및 보건 복지 부문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출생성비, 기대수명, 사망률 등을 지표로 활용했다.

광주광역시는 전체 평가에서 대전에 이어 2위에 올라 보건 및 복지 분야에서 전국 최고 수준의 여성친화도를 나타냈으며 건강과 보건 부문에서는 전국 상위권, 사회보험과 복지 부문에서는 대전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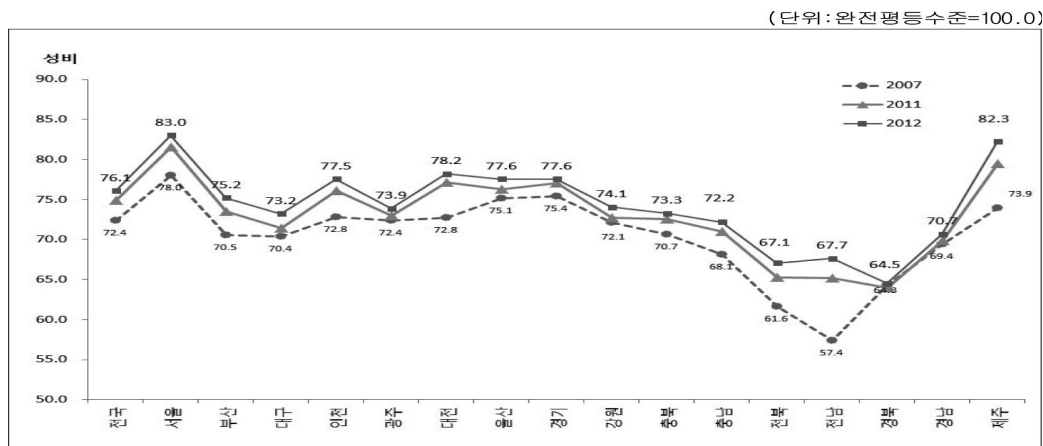
주재선 외 연구에서는 광주광역시 복지 영역이 수준은 상승하나 순위는 하락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기초생활보장자 성비에 대한 순위 제고 및 노후 준비자 성비의 빠른 하락에 대한 원인과 개선 방안이 요구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10] 보건 및 복지 분야의 지역별 여성친화수준



출처: 채은주, “광역자치단체의 여성친화도시 평가 및 지역간 비교 분석-16개 시·도를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4. p.54.

[그림 11] 복지 영역의 성 평등 지표 값 변화 추이



출처: 주재선 외, “2013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3. p.38.

라. 안전 / 가정과 안전한 삶

채은주의 연구에서 광주광역시의 안전 분야 여성친화도는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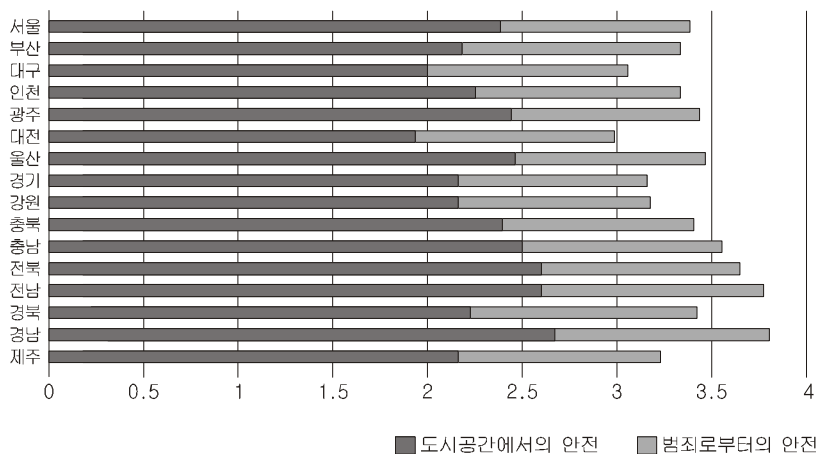
났다. 도시공간에서의 안전 부문은 전국 상위권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나 범죄로부터의 안전 부문은 상당히 취약한 결과를 보여주었고 전체적으로 안전 분야의 여성친화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분야의 지표는 도시공간에서의 안전 부문에서 건축·시설물에 대한 안전도의 성별 인식 격차, 자연재해에 대한 안전도의 성별 인식 격차, 야간 보행에 대한 안전도의 성별 인식 격차 등을 측정했고, 범죄로부터의 안전 부문은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과 성별 인식 격차, 강력범죄 피해자의 성비 등을 측정했다.

안전 분야의 여성친화도를 놓고 보면 광주광역시의 여성의 안전에 대한 정책이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 광주광역시는 2013년 7월 『광주광역시 여성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여성이 안전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광주시는 2012년 2월 『광주광역시 안전 조례』를 제정 하는 등 안전도시 조성에 대한 정책적 지원에 나서고 있으나 이 조사에서 보듯이 실제 생활 현장에서 여성들이 느끼는 여성친화적 안전도는 아직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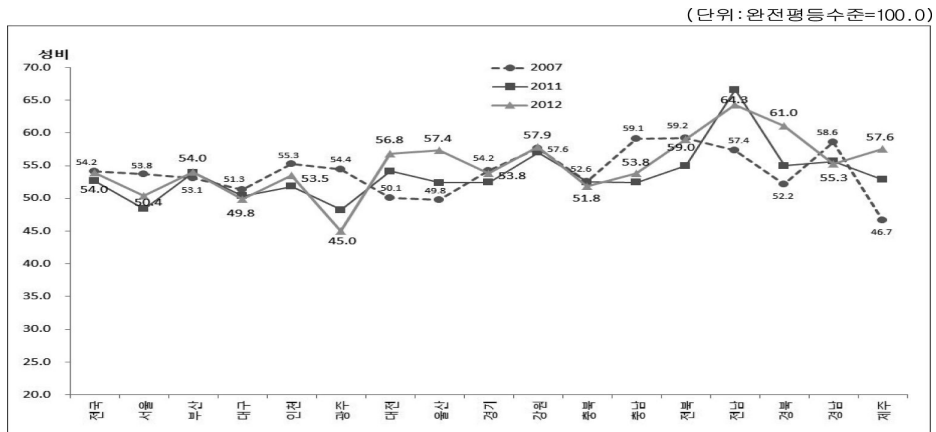
주재선 외연구에서 광주광역시는 가정과 안전한 삶 영역에서 성평등 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도, 강력범죄 피해자 등 안전 영역의 불평등 증가 등이 그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개선 방향으로는 안전영역 정책의 전반적 검토와 제고방안 및 육아휴직 사용을 위한 홍보와 정책적 지원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2] 안전 분야의 지역별 여성친화수준



출처: 채은주, “광역자치단체의 여성친화도시 평가 및 지역 간 비교 분석-16개 시·도를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4. p.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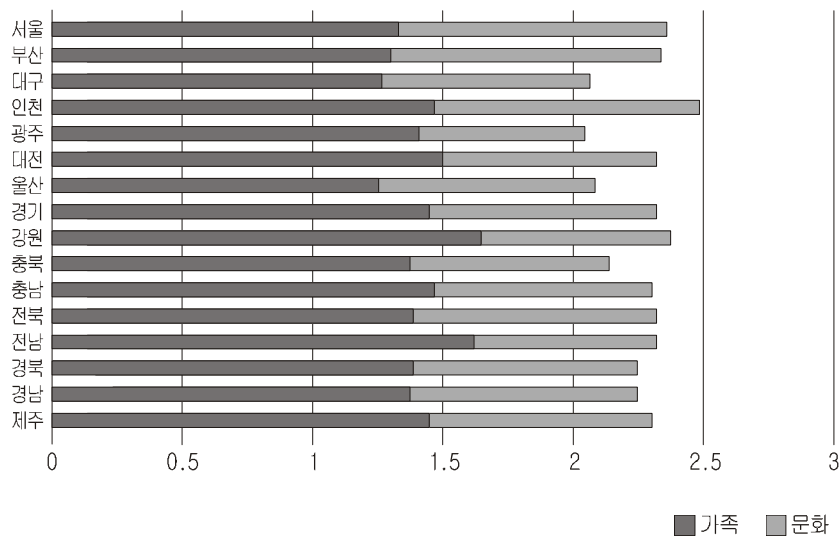
[그림 13] 가정과 안전한 삶 영역의 성평등지표 값 변화 추이



출처 : 주재선 외, “2013년 지역별 성 평등 수준 분석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3. p.37.

마. 가족 및 문화

[그림 14] 가족 및 문화 분야의 지역별 여성친화수준



출처 : 채은주, “광역자치단체의 여성친화도시 평가 및 지역 간 비교 분석-16개 시·도를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4. p.56.

가족 및 문화 분야의 여성친화도는 가족 부문에서 육아 휴직자의 성비, 가정 내 가사 시간의 성비, 가족생활 만족도의 성별 격차, 문화 부문에서는 문화 및 여가활동 만족도의 성별 격차 등을 세부 변수로 측정하였다. 문화 부문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지역의 문화·예술적 자산 등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시민의 문화생활 향유 수준 등을 측정했기 때문에 광주시의 전반적인 문화 수준과는 다른 개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광주광역시는 가족과 문화 부문 모두에서 전국 평균치를 밑도는 낮은 수치를 기록하여 종합적으로 이 분야에서 여성친화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족 부문에서는 남성의 육아휴직자 비율 등에서 광주시는 매우 낮은 수준이며, 문화 및 여가생활 만족도에서는 남성의 만족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는 주로 16개 시·도의 관련 통계 자료를 통해 이뤄졌기 때문에 조사결과와 실제 주민생활과는 체감도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갖고 있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2012년 여성가족부에서 전국 230개 지방자치단체와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가족친화사회환경 조성 실태조사 결과’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한 바 있다는 점이 이를 반증한다. 7개 부문으로 실시된 여성가족부의 조사에서 광주시는 ‘가족친화사회환경’, ‘육아·양육환경’, ‘노인생활환경’, 여가·문화생활환경 분야에서 각각 전국 1위에 올랐다. 채은주의 연구에서는 남녀 육아유직자, 가정 내 가사시간 남녀 격차 등 실생활에서의 통계를 위주로 여성친화도를 측정했다는 점이 상이한 차이를 나타낸 요인이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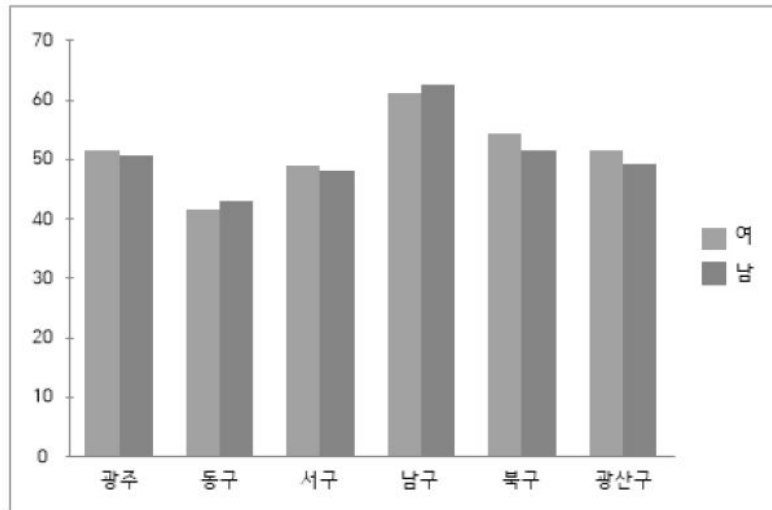
‘광주지역의 문화시설이 충분한가’에 대한 질문에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은 동구와 남구의 경우 남성이, 서구와 북구, 광산구의 경우 여성이 높게 나타났다. 남녀 모두 ‘문화시설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느낀 자치구는 남구였다.

<표 14> 2011년 광주지역 문화시설 충분도- ‘충분하지 않다’의 비율 (단위: %)

	광주광역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여	51.3	41.5	48.7	60.9	54.1	51.4
남	50.4	42.9	48.1	62.4	51.3	49.0
전체	50.9	42.2	48.4	61.6	52.8	50.3

출처: 박주희, 「광주사회통계조사」, 2013 광주광역시 성인지 통계에서 인용.

[그림 15] 2011년 광주지역 문화시설 충분도 - '충분하지 않다'의 비율



출처: 박주희, 「광주사회통계조사」, 2013 광주광역시 성인지 통계에서 인용.

지역에 부족한 문화시설은 모든 자치구에서 복지시설, 공연시설, 도서시설 순으로 나타났다. 복지시설은 동구의 답변 비중이 가장 높았고, 공연시설은 북구, 전시시설에 대한 답변은 서구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이 2015년 개관 후에는 광주광역시민들의 공연 등 문화시설에 대한 충분도는 훨씬 높아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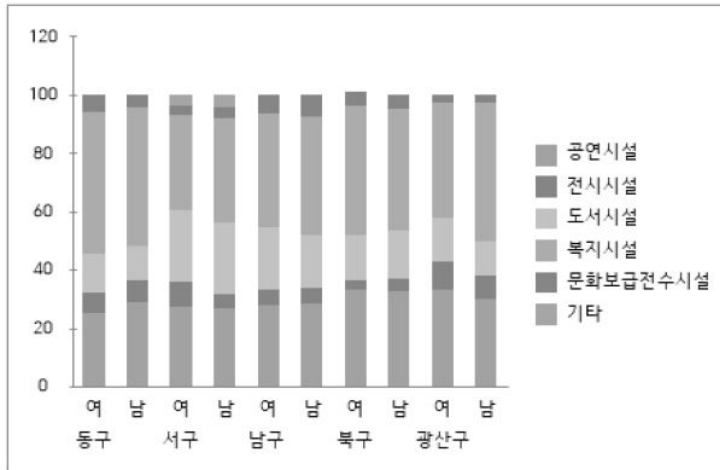
<표 15> 광주지역에 부족한 문화시설

(단위: %)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공연시설	25.1	28.7	27.3	26.8	27.9	28.5	33.2	32.4	33.0	29.8
전시시설	7.1	7.6	8.2	4.7	5.1	5.1	3.2	4.2	9.7	8.1
도서시설	13.0	11.8	24.8	24.8	21.2	18.0	15.6	16.7	14.9	11.6
복지시설	48.9	47.5	32.7	35.4	39.1	40.6	43.9	41.8	39.4	47.5
문화보급 전수시설	6.0	4.5	3.1	3.8	6.7	7.6	5.0	4.9	2.8	2.7
기타	0.0	0.0	3.8	4.5	0.0	0.1	0.0	0.1	0.2	0.3

출처: 박주희, 「광주사회통계조사」, 2013 광주광역시 성인지 통계에서 인용.

[그림 16] 광주지역에 부족한 문화시설



출처: 박주희, 「광주사회통계조사」, 2013 광주광역시 성인지 통계에서 인용.

제2절 광주광역시의 여성친화도시 지정 배경과 사업 목표

1. 광주광역시의 여성친화도시 지정 배경

광주광역시는 2011년 12월 산하 5개구와 함께 광역단위 자치단체로는 최초로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됨으로써 여성친화정책의 우수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받았다. 여성친화도시는 기초자치구별로 조성되기 때문에 광역시가 지정을 받는 것은 아니다. 광주광역시의 여성친화도시 지정에 대한 출발은 민선 5기 강운태 시장의 선거공약에 여성관련 공약으로 ‘여성이 행복한 창조도시’를 조성하겠다는 조항이 있다. 이를 위해서 여성 일자리를 늘리고, 여성 관련 전문 정책기관인 여성재단을 설립하고 여성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그러나 당시 공약에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항목은 없었다.

엄밀한 의미에서 광주광역시 여성친화도시의 출발은 여성정책의 활성화 및 성인지적 도시공간 전략에서 출발했다기보다는 행복한 창조도시의 핵심 키워드로 ‘여성이 행복한 도시’라는 목표실현의 방안으로 출발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성인지적 도시공간 전략의 부재는 향후 광주광역시가 여성친화도시 추진과정에서 풀어야 할 과

제가 될 것이다. 여성이 행복한 도시가 여성친화도시 지정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로 전환되는 데는 시· 구의회 여성의원들의 역할과 기초자치단체장들의 적극적인 의지 표명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특히 여성의원들의 역할이 컸다.⁴⁸⁾

광주광역시는 민선 5기 단체장의 공약에 따라 ‘여성이 행복한 광주 만들기 종합계획’을 수립했고(2010.7), 시· 자치구 합동벤치마킹 및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 하였다. 그리고 2011년 3월, ‘여성친화도시 추진계획 수립’ 이 시달된 후 2011년 12월 5일, 광역시와 5개 자치구가 동시에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받게 되었다. 광주광역시는 ‘여성의 사회적 참여 기회 확대 및 권익신장’을 기조로 광주여성재단 설립, 자치구 여성친화화장실 확충 추진, 여성기업 제품 구매우대 실시,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광주수제공방육성사업, 고객센터 유치 및 육성업, 손자녀돌보미 사업,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확대 등 출산 장려사업, 경력단절여성 원스톱 취업 지원, 한부모가족여성, 국제결혼이주여성, 여성장애인 등 취약계층 여성을 위한 맞춤형 취업 지원 사업, 전국 최초 보육시설 안전공제 가입비 지원, 여성친화기업 고용환경 개선 지원 사업, 워킹맘 지원 사업 등에서 성과를 거둠으로써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광주광역시는 2011년 12월에 (사)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주최한 전국여성대회에서 ‘우수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선정돼 여성친화정책 선진 도시의 면모를 알렸고, 2011년 8월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 경진대회에서 출산장려지원 부분 대통령상을 수상했으며, 2012년 7월에는 국무총리상, 2013년 7월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상(2012)을 연속 수상함으로써 여성·가족친화 도시의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높여왔다.

여성가족부 주관 ‘2011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우수기관 및 우수사례 선정(2관왕)’, 2011년, 여성의 경제 세력화, 소외여성 사회통합영역, 여성의 대표성 제고, 여성의 삶의 질 제고 등 4개 부문 17개 지표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종합 평가에서 광주광역시가 ‘성 평등지수 1위’로 나타난 것도 광주광역시의 여성 친화 잠재력을 보여준 경우라고 할 수 있다. 2011년 9월, 여성가족부로부터 성별영향분석센터 ‘정책분석·평가 지원기관’으로 지정받아 각종 시책에 양성평등 관점이 반영되도록 여성복지 증진의 기반을 구축한 광주광역시는 2011년 11월 5개 자치구가 『여성발전기본 조례』에 여성친화도시 조항을 신설하면서 법·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48) 오미란, “광주의 광역형 여성친화도시 모델형성 추진사례”, 『Daejeon Development Forum』 제41호, 2012. pp.79~80.

<표 16> 관리직 여성공무원 현황(광주광역시)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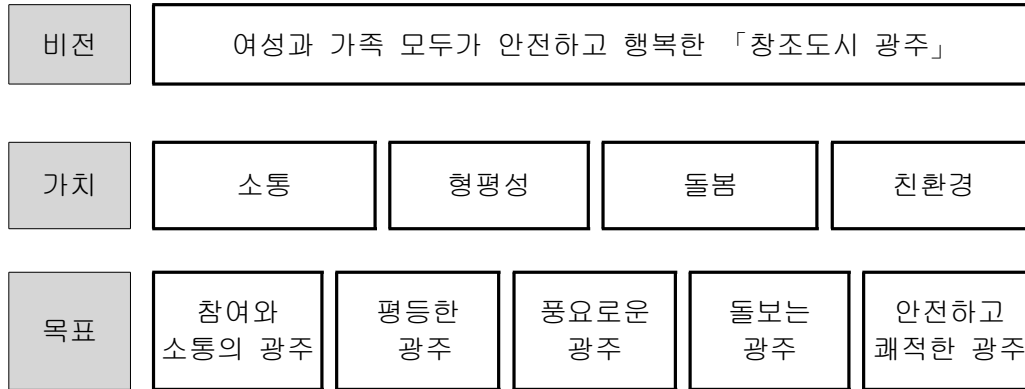
연도	전체공무원			관리직(6급)여성공무원			5급 이상 여성공무원		
	전체	여성	여성비율	전체	여성	여성비율	전체	여성	여성비율
2010	6607	1936	29.3%	2313	303	13.1%	611	64	10.5%
2011	6684	1988	29.7%	2357	333	13.1%	621	68	11.0%
2012	6806	2145	31.5%	2568	430	16.7%	673	82	12.2%
2013	7015	2281	32.5%	2643	508	19.2%	619	70	11.3%

출처: 2014 광주광역시 공무원 현황, 2014.12 현재.

2. 광주광역시의 여성친화도시 사업목표

광주광역시는 공직분야의 여성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2010년부터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을 확대(2010년 8.7%→2012년 10.3%)하고, 2011년 말 여성공무원 비율을 전국 평균인 30%보다 높은 30.3%, 5급 이상 여성비율을 전국에서 두 번째인 11.9%로 높였을 뿐만 아니라, 여성의 대표성 제고를 위해 공공서비스 분야의 30개 중점 관리대상 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도 2010년 32%에서 2012년 34.9%로 높임(2014년 50% 목표)으로써 각 분야의 인적 구성에서도 여성친화정책 발전기반을 조성했다. 이런 기반 조성 과정을 거쳐 2012년 2월 여성가족부와 지정 협약을 맺은 광주광역시는 민간분야 각계각층 전문가들과 ‘광역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5개 분과 69명)를 구성하고 공동과제 개발·추진, 재정지원 등 광역단위 여성친화사업을 포괄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생활 속 여성 불편 사례 아이디어 공모’ 등을 통해 ‘시민참여형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지향하고 있다.

[그림 17] 광주광역시 여성친화도시 비전과 목표



출처 : 광주광역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자료, 2012.

여성가족부의 여성친화도시 기본 가치와 실행 목표는 크게 4가지이며 소통, 형평성, 돌봄, 친환경이다.⁴⁹⁾

첫째, 형평성은 지역 내 참여기회, 자원과 서비스에의 접근성과 배분, 일상생활의 안전과 편의 등의 측면에서 정의롭고 형평함을 의미하며, 도시의 공간적·사회적 측면에서 여성과 일상의 요구를 반영하여 여성발전과 성평등 실현에 기여함을 의미한다. 둘째, 돌봄은 지역 공동체 구성원 상호간의 협력과 지원, 육성의 문화를 조성하며 전통적 성별 역할 고정관념을 극복하고 돌봄을 남녀가 공유하며 사회가 돌봄을 적극 분담하여 일·가정 양립의 환경을 촉진한다.

셋째, 친환경은 자연과의 공생의 철학에 기반하여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증진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생태적이며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삶의 전환을 촉진하는 지역발전을 의미한다.

넷째 소통은 행복의 원천인 소통과 친밀한 관계를 촉진하는 주민 공간과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갖춘 민주적이며 개방적인 도시 운영시스템을 의미한다.

49) 여성가족부 자료, 여성친화도시 메뉴얼, 2010.

<표 17> 광주광역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 과제 유형

유형	목적	내용
①기초과제	▪여성친화도시 추진기반 조성	i) 성 평등 촉진 법·제도 및 추진체계 마련 ii) 조성협의체 구성·운영 iii) 정책 결정과정 여성참여 확대 iv)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등 제도 정착 v) 여성친화도시조성 중장기 계획수립
②심화과제	▪여성친화도시 운영 및 활성화	i) 여성·아동 안전시스템 구축·운영 ii) 각종 여성지원센터 생활권별 안배를 통한 여성능력 개발 및 효율화 iii) 경력단절 여성취업지원 및 직업훈련 확대 iv) 자발적 지역 돌봄문화 확산 v) 여성의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 과제
③지역특성화 과제	▪여성친화도시 지역 특수과제	▪ 새로운 택지단지 조성, 도시재생과제, 기타 대규모 건설과제 추진 시, 설계단계부터 여성친화과제 반영 - 도시계획, 주거단지, 여성특화거리 조성, 도로 및 교통, 돌봄 편의 시설설치, 공원·녹지 네트워크 과제 등

출처 : 광주광역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자료, 2012.

제3절 광주광역시의 여성친화도시 관련 조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전국의 50개 자치단체는 모두 이와 관련된 조례 제정이나 개정을 통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조례는 여성친화도시를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며 여성친화도시를 위한 물리적 조성방향 및 공공서비스 운영 방안의 근거로 기능하게 된다. 조례에 따라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역시 추진형식이나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 조례를 양산해 놓고 실행하지도 못한 채 폐기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모든 정책추진에 있어서 조례의 합리성과 실효성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조례 제정은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의원 스스로 발의하기 때문에 지방의원들의 책임과 역할은 그만큼 막중하다고 할 것이다.

광주광역시의 여성친화도시 관련 조례는 2011년 3월, 기존의 『광주광역시 여성발전 기본조례』에 여성친화도시 기반조성을 위한 내용을 보완하여 개정함으로써 기본 틀을 갖추게 되었다.

광주광역시 5개 자치구도 2011년 11월 이전에 관련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광주광역시와 5개 자치구가 동시에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충족시킨 것이다. 이어서 2012년 5월부터 11월까지 광주광역시와 5개 자치구가 전국 최초로 『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광주광역시의 『여성발전 기본 조례』는 2011년 3월 광주광역시의회 정현애 의원에 의해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며 개정을 거쳤고 2013년 4월1일 『여성발전기본조례』는 『성평등 기본조례』로 명칭이 바뀌었다.

정현애 의원은 “현재 여성정책이 ‘여성’의 발전만이 아닌 양성의 균등한 발전을 지향하는 정책으로 변화되고 있는 시대적 추이를 반영하고, 그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됐다”며 “조례의 제명에도 이를 반영, ‘여성발전기본 조례’를 ‘성평등 기본 조례’로 개정하여 이 조례가 성평등 실현을 위한 조례임을 밝히고 있다”고 『성 평등 기본 조례』의 취지를 밝혔다.⁵⁰⁾

<표 18> 광주광역시 『성 평등 조례』중 여성친화도시 관련 사항

<p>제3장 여성·가족 친화도시 기반시설 조성</p> <p>제22조(도시 기반시설) 시장은 일상생활에서 성별 차이가 없으며 여성의 성장을 도모하는 여성·가족 친화도시 구현을 위하여 지역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등을 조성할 경우에는 다음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행 편의 2. 대중교통의 안전성 3. 자연친화적 환경 조성

50) 정현애, 광주광역시의회 제19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2011.

제23조(공공이용시설) 시장은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을 조성할 경우에는 다음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안전성과 내외적인 소통 구조의 연결
2.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요구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 간 연계
3.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
4.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증진

제24조(주거 단지) 시장은 단지조성, 주택 건축 등에서 다음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다양한 가족(다세대 가구, 대가족, 독신가족, 학생가족, 한부모가족 등)을 위한 거주 공간 확보
2. 이웃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 마련

제25조(여성·아동안전시스템 구축 및 운영) 시장은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가족친화 공동체 조성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통하여 돌봄의 사회적 분담을 위한 지원체계 조성을 지원하고 주민 역량 증진과 가족, 마을, 행정의 협력구조를 통한 사회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주민의 참여를 촉진시키고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향의 행정지원
2. 가족친화기관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제7장 여성친화도시 조성 광역협의체 등<개정 2014.3.1.>

제57조(광역협의체)<개정 2014.3.1> ① 시장은 각 자치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위원회 또는 협의회 위원을 포함하여 시민, 시민 단체,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광주광역시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이하 “광역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4.3.1>

② 광역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제안한다.

1. 여성친화도시 사업의 평가 및 개선 방안
2. 자치구의 긍정적인 사업 공유 및 공동 사업 발굴

3. 도시계획, 주거 단지 조성, 도로, 교통 체계 등 광역 단위의 정책 개발

4. 그 밖에 시장이 자문하는 사항<본항신설 2014.3.1>

③ 광역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14.3.1>

제58조(정책지원단)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는 여성친화정책지원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발전적 의견 제시
2. 일상생활에서 성별 불균형 요소 및 불편 사항 개선 건의
3. 여성친화도시 추진 사업에 대한 주민 홍보 및 의견 수렴
4.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과 관련된 사항<본조신설 2014.3.1>

출처 : 광주광역시의회(<http://council.gwangju.kr/>) 자료, 2014.

광주광역시의 여성친화도시 관련 조례를 분석해 보면, 『성평등 기본조례』(구 ‘여성발전 기본조례’)에 포괄적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 사업추진의 구체성에 미흡한 점이 나타나고 있다. 즉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추상적이고 선언적 규정이 아니라 관련 예산과 조직 체계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광주광역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이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성평등 기본조례』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조례 제정의 필요성도 간과할 수 없는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여성친화도시에 관한 별도의 조례 제정은 사업 아이템 발굴에 있어서 종합적인 관점을 반영하여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낼 수 있고 사업 추진에 있어서 본래 목적 달성을 위해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여성친화도시 선도 자치단체라 할 수 있는 전북 익산시, 전남 여수시 등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를 통해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높인 사례로 꼽을 수 있다.

광주광역시도 광역단위 여성친화도시에 부합하는 조례 제정 및 광역형 지역특화사업에 대한 규정을 조례에 명시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

<표 19> 자치단체 여성친화도시 관련 조례 현황

도시명	제정명(제정년월일)	도시명	제정명(제정년월일)
(전북)익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2010.10.6)	(광주광역시)서구	여성발전기본조례 (2011.6.10)
(전남)여수시	여성발전기본조례 (2011.12.31)	(광주광역시)남구	여성발전기본조례 (2009.9.30)
(서울)강남구	여성발전기본조례 (2010.8.13.)	(광주광역시)북구	여성발전기본조례 (2010.1.4)
(대구)중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2011.5.30)	(광주광역시)광산구	여성발전기본조례 (2010.11.18)
(대구)달서구	여성발전기본조례 (2011.11.1)	(경기)안산시	여성발전기본조례 (2010.1.19. 개정) 성평등기본조례 (2012.10.22)
(경기)수원시	성평등기본조례 (2012.10.4)	(경기)안양시	성평등기본조례 (2012.5.16)
(경기)시흥시	성평등기본조례 (2012.1.9)	(강원)동해시	여성발전기본조례 (2011.12.30)
(강원)강릉시	여성발전기본조례 (2011.8.10)	(충남)아산시	여성발전기본조례 (2011.12.15)
(충북)청주시	여성발전기본조례 (2010.12.31)	(전북)김제시	성평등기본조례 ((2012.8.10)
(충남)당진군	여성발전기본조례 (2009.1.28)	(전남)장흥군	여성발전기본조례 (2009.12.31)
(서울)도봉구	여성발전기본조례 (2011.4.1)	(경북)영주시	여성발전기본조례 (2012.7.19)
(부산)사상구	여성발전기본조례 (2011.11.25)	(경남)창원시	여성발전기본조례 (2011.1.20)
(인천)부평구	성평등기본조례 (2012.9.28)	(경남)김해시	여성발전기본조례 (2005.6.4)
(인천)동구	성평등기본조례 (2012.8.8)	(경남)양산시	여성발전기본조례 (2011.2.1)
(광주광역시)동구	여성발전기본조례 (2011.9.26)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발전기본조례 (2008.1.2.)

출처 : 이미원 외,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확산 정책 - 성별영향분석평가”, 여성가족부, 2012. p.34.

제4절 광주광역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분석

1.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개요

광주광역시는 '2013년 여성가족부 '건강가정을 위한 우수가족정책 추진사항 평가 최우수기관, 대통령 표창', '2013년 여성가족부의 민선5기 3년간 여성·가족정책 평가 최우수기관 대통령 표창(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 지원 사업 - 최우수정책 평가)' '2011년~2013년 보건복지부 주관 '아이 낳기 좋은 세상 경진대회 3년 연속 최우수 기관 선정', '2013년 여성가족부 가족친화 사회환경조성 실태조사(전국 230개 지방 자치단체 및 16개 시·도 대상) 만족도 전국 1위', '보건복지부 주관 2013 보육사업 발전 평가 전국 시·도 중 보육정책 분야 최우수기관 선정, 대통령 표창'등 여성·가족 친화정책을 주로 하는 각종 평가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와 함께 민선 5기 여성·가족분야 12개 공약 중 '여성·가족친화적 도시환경 구축',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출산·보육체계 구축', '광주여성재단 설립', '민간단체 위탁 및 공모 개선안 마련', '노인시설 운영개선(빛고을노인건강타운 등)', '다문화가족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요보호아동 지원강화 및 청소년시설 복합공간화' 등 8개 분야를 이행했고 임기 내 '가족친화적기업(기관) 지원', '여성위원 및 여성공무원 확대', '청소년 육성과 보호', '신규 일자리 10만개 창출' 등 4개 분야의 추진 실적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광주광역시는 이러한 결과로 '2013년 (사)한국여성유권자연맹 주관 '전국 광역단체장 여성·가족정책 공약이행평가'에서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어 특별상인 '실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또한 광주광역시는 '전국 최초 자치구 여성친화 화장실 재원조정교부금 지원(5개 자치구 별 1개소 - 7억5천만 원 지원)', '전국 최초 여성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조례 제정', '각종 공공물 신축 시 설계단계부터 성인지 정책을 반영하는 여성친화도시 공간 조성가이드라인 법제화(2013.6)' 수립·시행으로 '여성화장실 1.5배 이상 확충 -광주 신야구장(1:1.7배 설계 반영), 광주 제2컨벤션센터(1:1.7배)' 등 신규 건축물에 적용 하였고 수유실 설치 등으로 시민들의 호평을 받으며 제도와 시설 면에서 다양하게 선진화되고 있다.

<표 20> 광주광역시 2013 여성친화도시 신규 추진사업 목록

사업명	주무부서
대중 교통약자 배려석 색상 도입	대중교통과
밥상 먹거리 위해사범 단속	민생사업경찰단
공중위생업소 위해사범 단속	
여성 특별사법경찰 배치	
선정성 불법 전단지 원천 차단을 위한 시↔통신3사 업무협약	
송정시가지 우회도로 개설공사	도시계획과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력 향상 과정 개설	교육기획과
여성 독거노인 가정 등 소외계층 정서안정 지원사업	보건환경연구원
화목한 가정형성을 위한 생명존중 동물체험교실 운영	

출처 : 광주광역시 자료, 여성친화도시 신규추진사업 재구성, 2013.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여성 일자리 사업’도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민선5기 광주광역시는 24,873개의 여가 여성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수제공방 창업지원 (138개소), 고객센터유치(2,183명),돌봄서비스(1,183명) 여성인턴(530명), 새일센터 취업지원(10,395명) 등으로 2012년말 현재 10,395개의 새로운 여성 일 자리를 확보하여 달성률 58%을 기록했다.

2013년에도 일자리 창출, 신증설 고객센터, 빈 일자리 채우기, 여성인턴, 취업연계 등 다양한 부문에서 6,663명의 여성 일자리를 창출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한 2012년 말 현재 공사와 용역, 물품 등에 대한 여성기업인 물품 구매 실적도 19.5%로 법정 의무비율(3~5%)에 비해 평균 4.5배의 실적을 올렸다.

<표 21> 광주광역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2013 여성친화도시 추진사업

사업 분야	사업명
참여하고 소통하는	여성친화정책 서포터즈 운영 확대
지역 공동체 강화	여성가족친화마을센터 설치 확대
성평등 정책추진 기반 확립	중점관리위원회 여성위촉 확대 및 전문가 인력풀 구축
	광역여성친화도시협의체 운영
	공직자 성인지력 향상교육 확대
	여성친화마을 서포터즈 양성교육
여성의 경제·사회적 평등 실현	차세대 여성정책전문가 과정운영
돌봄의 사회화, 일·가정양립 지원	여성·아동 안전지역 연대 운영 활성화
	가족친화기업 인증 지원
	아이 돌보미 사업지원 강화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손자녀 돌보미 지원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청소년수련시설 인프라 확충 및 복합 공간화
	맞춤형 상시 보육 서비스 체계 유지
	광주시립 모듬이 나눔이 어린이집 설치·운영
	체형형 남편 가사·육아 참여교실 운영

출처 : 광주광역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자료, 2013.

2012년 현재 5천3백여 명에 이르는 다문화 가족을 위한 광주광역시의 지원정책은 2020년경에 다문화가구가 우리나라 전체의 1/5로 전망되는 시대의 변화에 걸 맞는 선진적인 정책으로 꼽힌다. ‘고향 방문사업’, ‘인권지킴이’, ‘일자리 알선’ 등을 통해 다문화 가족을 지역공동체의 일원으로 흡수하고 있으며 주요 사업으로 ‘다문화가정 모국방문사업’(2013년, 30가정 114명, 왕복항공료, 현지 교통비, 기념품비 전액 지원)과 전국 최초로 실시된 다문화가정 ‘인권 지킴이’ 제도가 있는데 지정된 이주여성 110명이 각 동별로 다문화가정을 직접 방문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 결과 2013년 상반기까지 1천7백여 명의 이주 여성들이 의료와 법률 서비스 해

택을 받는 등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은 광주광역시가 민주·인권·평화의 도시이자 여성친화도시로서 위상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 가운데서 ‘가족친화기업(기관) 인증 획득 지원 사업’은 향후 민간참여를 확대 시키고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필수 정책으로 지역 내 기업, 대학, 공공기관, 지자체를 대상으로 인증심사비 지원, 여성친화기업 고용환경개선자금 지원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계속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시는 관내 530여개 여성친화기업 중 2013년까지 100여개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고용환경 개선자금을 지원해 수유실 등 각종 여성편의 시설의 확충을 유도하고 있다. ‘아이돌보미 사업’은 맞벌이·취업 한 부모, 장애부모 등의 생후 3개월~만12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돌보는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는 400여명의 전문교육을 받은 돌보미들이 시간제와 종일제 등 개별수용에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며 2013년에는 국비와 시비 33억 원이 투입되어 시행되었던 광주광역시의 특화 정책이다.

광주광역시가 2013년에 5개 자치구의 여성친화 특화사업을 발굴·추진하도록 총 5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 것도 전국 최초의 사례다. 이와 함께 광주광역시가 기존 추진사업 외에 2013년부터 신규 발굴한 여성친화정책도 향후 여성친화도시 기반 조성에 일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광역시의 신규 추진사업 가운데서 ‘선정성 불법 전단지 원천 차단 사업’은 주택가 등 공공장소에 무차별 살포되는 성매매 알선 등 선정성 불법 전단지에 적힌 전화번호를 시가 요청하면 즉시 이용 정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민선5기 출범 이후 광주광역시가 전국 최초로 펼친 ‘딱지(불법 전단지 등)와의 전쟁’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한 시책으로 2013년 KT, LG U+, SK텔레콤 등 통신 3사와 업무 협약식을 갖고 본격 추진되었다. ‘여성특별사법경찰 배치’는 행정업무 지도·단속 과정에서 적발한 위법사항을 검사의 지휘를 받아 직접 수사해 송치하는 수사권한을 보유한 행정공무원인 특별사법경찰에 여성공무원을 배치하는 것으로 광주광역시는 2013년 8월 13명의 공무원으로 ‘민생사법경찰단’을 구성했고 향후 여성 특별사법경찰들이 식품, 환경 등 다양한 여성친화 위해요소 제거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광주광역시의 ‘2013년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목록’을 보면 이 사업은 ‘1부서 1과제 이상 발굴 참여’ 방침에 따라 전체 실·과, 사업소, 시립미술관을 비롯한 산하 관 등 광주광역시의 모든 행정체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본연의 여성친화정책과는 동떨어진 성과위주의 사업이 다수 포함되는 등 개선해야 할 사항이 엇보

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광주광역시의 주요 정책으로 자리매김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여성친화도시는 이제 필요성의 차원을 넘어 실행의 차원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고도의 개념과 함께 실행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표 22> 광주광역시 및 5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현황 종합

단위	목표	제도 기반	협의체	여친 교육	지역특성
시	여성과 가족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건설	여성발전 기본법 내 조항 신설	구성 2012년 5개분과 87명	시·구 공무원 교육	·인권도시, 아시아문화 중심도시 추진 · 5·18 역사유적 보유 · 산업단지 미약, 일자리 한계
동구	동구여성 꿈&희망 프로젝트	여성친화도시 조례제정	미구성	교육 1회 실시	·도심 공동화 극복 (전국 최고령도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건립 ·5·18 역사자원 복구
서구		여성친화도시 조례제정	2011 구성	교육실시 공무원 여성단체	·광주광역시청, 금융기관 터미널 등 광주의 중심지역활
남구		여성친화도시 조례제정	2011 구성	워크숍 여성단체 교육	·광주·전남혁신도시 인접 ·안전, 건강, 평생학습, 도시 등과 연계 ·구청사 여성친화적 조성 ·2012 여성친화도시 중장기 계획 수립 실시 중
북구		여성친화도시 조례제정	2011 구성	워크숍 여성단체 교육 공무원 교육	·2003년 전국 최초 주민참여 예산제 시행 및 마을만들기 사업의 연속 수상 ·여성친화도시 중장기계획 수립 ·2011 전담부서 설치 여성친화정책팀(서무팀)으로 신설 및 인력을 보강
광산구		여성친화도시 조례제정	2011 구성	교육 없음.	·도·농 복합지역이면서 신도시 개발지역, 산업단지 지역 ·여성친화 주거단지 조성, 여성특화거리 추진 ·다문화가족과 이주근로자들이 많음 ·여성친화도시 비전 선포

출처 : 오미란, “광주의 광역형 여성친화도시 모델 형성 추진사례”, 『Daejeon Development Forum』 제41호, 2012. p.85.

2.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 및 광주여성재단의 주요사업

광주광역시는 2012년부터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1년에 2회 전체 회의를 열고 5개 분과 69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즉 인권복지 14명, 문화체육 14명, 환경생태 15명, 경제고용 13명, 도시교통 14명 등이다. 주요사업으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평가와 대안 제시, 정책 발굴, 주요 사업 평가 보고 등을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각계 전문가와 공무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거버넌스’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를 통하여 각 부서별로 발굴해 추진 중인 분과별 주요사업을 심층 분석·평가해 앞으로도 광주광역시가 여성친화도시 광역형 모델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별도로 광주여성재단에서는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단을 운영하고 있다. 서포터즈단은 2012년 6월 발족되어 2014년 6월까지 활동하게 되며 28명의 여성으로 구성되어있으며 1년에 2회 정도 간담회를 통해 여성 일자리·평등문화 개선을 위한 시정 제안 활동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다음 <표23>은 광주여성재단에서 매년 ‘여성친화도시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통해 선정된 사업으로 관심 있는 시민들과 단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우수작은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등 시민 참여형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도 계속 추진되고 있다.

이와 같은 광주광역시의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와 여성재단의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단 등 민관 거버넌스가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조성사업의 실질적인 주체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5개년 단위 사업 완료 시점인 2016년 이후까지 내다본 중·장기 운영 로드맵을 수립하여 단계별로 민간참여자의 폭을 확대하거나 전문성을 갖춘 분과위원 인선 등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서포터즈단 운영도 2014년의 경우, 5개 분과 28명의 서포터즈 중 동구 출신은 한 명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지역 형평성에 문제점을 드러냈고 공모 대상이 ‘20세 이상 여성친화정책에 관심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남성 서포터즈가 한 명도 없다는 점은 정책추진의 허술함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광주여성재단의 아이디어 공모도 각 자치구별 특성과 분야별 전문성을 반영한 아 이템이 대부분으로 광역단위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의미를 살린 응모작이 절대 부족하고 최종 선정된 응모작에 대한 시상금도 각각 30만 원에 불과해, 다양한 계층

의 참여와 동기부여를 위해서도 조속한 보완대책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와 관련하여 제시한 <표24>는 기초자치단체인 동구에서 2013년 12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1년간 추진하고 있는 ‘여성친화·인권보장·주민행복 마을 만들기 사업’이다. 선정된 총19개 사업에 대해 1억1천3백만 원의 구비를 확보하여 500만~1,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는 점은 광역단체인 광주광역시가 아이디어 최종 선정 작에 대한 지원 규모를 어느 정도로 했을 때 사업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하나의 잣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표 23> 여성친화도시 아이디어 경진대회 연도별 선정 현황

-2012년 : 13개팀

소모임명	아이디어명
동네엄마들	동네에서 전통놀이로 놀자
쫓대있는 부모모임	부모멘토 강사단 슈퍼비전
페미니즘 세미나	여성의 놀봄 노동과 사회서비스의 확대
개구리교실	엄마와 아이가 함께 하는 생태 체험
양림동친환경모임	환경과 건강을 생각하는 친환경모임
C·T	댄스로 만나는 청소년
에코숨씨공방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에코마을 공동체’
락앤발룬티어스	여보게, 함께 하세나! 해금소리가 마음을 어루만져 줄 것이니.....
차사랑	차 향 가득한 다례 교실
여배우봄날씨	연극을 통한 소통 확산
아름다운사람들의 모임	함께 만들어가는 꿈과 희망
나나애	생명존중이야기
기다리는 마음	가곡으로 만나는 이웃

- 2013년 : 7개팀

상명	소모임명	아이디어명
대상(1)	중흥동 우리춤 동아리	건강체조 행복마을 만들기
금상(1)	아름다운 사람들의 모임	내일의 희망을 위해
은상(2)	수화로 소통하는 우리	수화로 하는 '육아' 소통문화 만들기
	니하오! 광주문화공부방	니하오! 광주!
동상(3)	여배우봄날씨	여성친화와 행복을 위한 민생힐링 연극시리즈 II -택시드리벌-
	동네엄마품	반찬으로 일곡동 취약계층 만나기
	꼬매	다시쓰고 나눠쓰고

- 2014년 : 20개팀(1차)

분야	소모임명	주 제
문화	아트-통(通)	-여성소모임들이 시민들과 재능으로 소통- "문화나눔 通"
	중흥동 우리춤 동아리	고운선으로 사랑을 전하고 진화하는 중흥동 우리춤
	춤츄클레이	외국인과 함께하는 문화재능기부
	방실방실	조각이야기 주머니가방
	같이가치	화장대신 분장으로
	소나무 통기타	통기타공연을 통한 소통과 재능나눔
	아이리스	건강한 소리로 심신이 움직인다
	생활공감모니터	작은새 오카리나를 불다

분야	소모임명	주 제
돌봄	다운	함께 가는 공동체
	이야기하는 우리가족	한부모가정 날개를 달자
	함께	미술치료와 함께하는 치매예방교육
	프랜디	아빠랑 놀자!
	여성단체지도자 홀리클럽	나눔스토리
생태· 환경	EM녹색센터	함께 해봐요 EM효과
	5+2	한번에 해결하자!!
	양림동친환경모임	양림동 오거리에서 피는 사랑꽃
일자리· 경제	까만이 그림 공부방	동남아(동네에 남아있는 아름다운 아줌마들)의 꿈을 현실로!
	행복드림	공공건물 및 다중이용시설 픽토그램 모니터링
학술·여 성·건강	북.두.칠,성	아기 사랑방을 만들자!
	더 나비	광주여성작가와 공간

출처 : 광주광역시 자료, 2014.

<표 24> 광주광역시 동구 여성친화·인권보장·주민행복마을 만들기 사업

동 명	단 체 명	사 업 명	사업비	추진률
총장동	주민자치위원회	A·B·C 갤러리 운영	5,000	100%
동명동	통우회	행복공동체 광주 주먹밥	5,500	80%
	주민자치위원회	행복이 피어나는 골목길 조성사업	5,000	95%
계림1동	주민자치위원회	푸른길 마을방송 시범사업	5,500	40%
계림2동	두산위브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꿈·사랑·낭만이 있는 행복동네 만 들기사업 『We've문화썸방』 조성	5,500	80%
산수1동	서예를 사랑하는 모임 「서사모」	선비들이 사는 마을 『산수화 그리는 마을』	5,000	95%
	산수1동 동진맨션 자치회	수세미 영글어 가는 마을	5,500	95%
산수2동	두암타운 입주자 대표회의	두암타운 가족친화형 문화공간 조 성	5,000	100%
	두암그린파크 입주 자 대표회의	정 나누며 건강한 그린파크 만들 기 사업	5,500	100%
지산1동	주민협의체 (지산휴먼시아)	“탄소는 DOWN 그린은 UP” 초록이 숨쉬는 쉼터	7,000	85%

학운동	대주피오레힐즈 입주자대표회의	노블리스 오블리제 구현으로 정다운 이웃과 만남	5,000	100%
	운림동 무등파크3차아파트 자치위원회	무등산 가는길 (오동골) 경관 level up	10,000	80%
	운림동 라인1차아파트 입주자대표위원회	버섯돌이 아파트로 건강UP! 소통UP!	5,000	80%
지원1동	모아아파트 자치회	통일동산 쉼터 조성	5,000	100%
지산2동	동산파크아파트	동산에 힐링이 있네	5,000	100%
서남동	주민자치위원회	흙몸노인 정나누기 사업	5,000	60%
학동	학2아파트 부녀회	아름다운 아파트조성 꽃길가꾸기	5,500	100%
지원2동	다닥실 마을 주민협의체	다닥실 마을 꽃길 조성	5,000	90%
	동구노인종합복지관	자서전 쓰기	7,000	100%

출처 : 광주광역시 동구 ‘여성친화·인권보장·주민행복마을 만들기 사업’,

(<http://www.donggu.kr>)에서 인용, 2014.

제5절 광주광역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나열식 사업 지양

광주광역시의 '2013 여성친화도시조성 사업 목록'을 분석해보면 각 부서별로 총 180건의 사업 망라돼 있는데 주무 부서라고 할 수 있는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추진 사업을 제외한 여타의 사업 중에서는 본연의 여성친화정책이라기 보다는 '여성도 관련 있는 사업'이라고 할 만한 사업도 많은 편이나 다소 나열식 사업추진으로 보인다.

'참여하고 소통하는 지역 공동체 강화' 분야에서는 '역사문화마을 관광자원화사업' '도로명 여성친화적 홍보 활성화와 같은 사업' 등이, '여성의 경제·사회적 평등 실현' 분야에서는 '저소득층 수돗물 사용요금 감면 지원'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 등이, '돌봄의 사회화 일·가정양립 지원' 분야에서는 '소방공무원 체력단련 프로그램 운영' 등이, '편리하고 쾌적한 도시기반 시설확충 분야'에서는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문화전당과 연계한 민주평화광장 조성' 등이, 신규 사업 분야에서는 '송정시가 지 우회도로 개설 사업' 등이 있는데 여성친화정책과는 다소 거리가 멀다고 볼 수 있다.

여성들의 안전을 위한 정책도 미흡한 편이다. 2012 통계청 사회조사⁵¹⁾를 보면, '사회 안전 전반에 인식'에서 광주광역시 여성 39.7%가 비교적 불안 '7.1%가 매우 불안 등 46.8%로 전국 1위', '교통사고에 대한 안전 인식'에서 비교적 불안 47.3%, 매우 불안 9.9% 등 57.2%로 전국 4위, '범죄 위험에 대한 안전 인식'에서 비교적 불안 47.2%, 매우 불안 26.9% 등 74.1%로 전국 1위, 식품 안전에 대한 안전 인식에서 약간 불안전하다 33.4%, 매우 불안전하다 등 38.4%로 전국 3위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광주광역시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서 이들 분야에 대한 눈에 띄는 정책은 매우 부족하다.

여성정책 추진 체계와 관련해서는 여성친화도시 1호인 익산시가 부시장 산하의 여성친화담당관실에서 3천만 원 이상의 용역과 5천만 원 이상의 공사 그리고 1천만 원 이상의 행사 및 주요 업무보고를 의무적으로 컨설팅 하도록 하는 모델을 도입한 것

51) 통계청, 「2012 사회조사」 자료, 2012.

처럼 광주광역시도 “여성가족정책관은 행정부시장 산하에 배치, 여성정책 업무 협의 및 협조 체제를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⁵²⁾. 현재 광주광역시의 성 주류화 관련 업무 분장을 보면 여성친화도시는 여성정책담당부서에서 성별영향평가는 가족복지담당부서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성주류화의 추진력 강화를 위해서는 여성정책팀이 광주광역시 성주류화 전반을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본다.

2014년 광주광역시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성인지 예산서가 부실해 본래의 취지와 목적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부실한 성인지 예산서가 나오게 된 것은 성별 수혜 자료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성인지 예산을 총괄할 부서가 부재해서 발생한 일로 광주광역시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⁵³⁾는 정현애 광주시의원의 발언처럼 광주시는 시정발전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여성친화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를 조속히 구축해야 할 것이다.

2.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필요

개별 사업에 대한 평가⁵⁴⁾에서는 “행복한 광주 만들기 종합계획 수립과 여성정책 5개년 계획 및 여성친화 중장기 계획 등을 수립하였으나 그렇다할 지역특화사업이 두드러지지 않는다. 대부분의 예산이 중앙 부처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많다보니 지역특화사업이 부진했던 것으로 보인다.”라는 전제하에, “여성친화기업 발굴 및 기업문화를 개선하는 일에 시의 적극성 부족”, “지역특성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출산과 보육체계 구축보다는 저출산 정책에 부응하기 위한 출산 축하금 지급과 셋째아이 지원정책에만 집중되어 형평성이 맞지 않는 문제점”도 지적됐다. 이와 함께 광주광역시의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사업 중 2013년 여성가족부 ‘가족친화 사회환경조성 실태조사’(전국 230개 지방자치단체 및 16개 시·도 대상, 만족도 전국 1위) 분야 가운데 전국 7위로 비교적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난 ‘장애우 생활환경’이나 4위로 나타난 ‘여성 생활환경’과 관련된 진척된 사업이 없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2011년 인구 중 아동, 노인, 장애인 인구를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광산구는 아동인구가 85,139명으로 구 전체 인구의 22.7%를 차지해 가장 많은 수를 나타내고 있다. 이어

52)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시 민선 5기 3년 여성정책분야 평가 보고서」, 2013. p.23.

53) 광주광역시의회 정현애 의원, ‘2014 본예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

54)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시 민선 5기3년 시정평가 자료집」, 2013. p.25.

서구와 북구가 아동의 비율이 높다. 북구는 노인과 장애인 인구가 가장 많으며 동구는 자치구 중 노인인구와 장애인인구 비율이 각각 15.9%, 11.5%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

2011년 기준으로 아동복지시설은 아동인구가 가장 적은 동구에 6개가 있으며, 아동인구가 가장 많은 광산구에는 2개, 아동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서구에는 아예 설치되어 있지 않다.

<표 25> 2012년 자치구별 아동복지시설 수 및 생활인원

(단위: 개,명)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시설수	6	-	2	1	2
생활인원	326	-	160	95	82

출처 : 광주광역시, 「통계지도」에서 구성.

노인복지시설은 노인인구 당 시설비율로 보면, 광산구가 100명당 1.69개로 가장 많고, 노인인구비율이 가장 높은 동구는 100명당 0.81개가 설치되어 있다. 노인시설 이용은 광산구가 100명당 6.33명으로 가장 많고, 북구가 100명당 2.93명으로 가장 적게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6> 2011년 자치구별 노인복지시설 수 및 생활인원

(단위: 개,명,%)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시설 수	136	286	306	442	431
생활인원	598	1,054	1,531	1,208	1,614
노인 천명당 시설 수	8.1	9.3	12.2	10.7	16.9
노인시설 이용비율	3.54	3.44	6.11	2.93	6.33

출처 : 광주광역시, 「통계지도」에서 재구성, 2011.

장애인 복지시설은 장애인인구가 가장 많은 북구에 4개, 그 다음으로 많은 광산구에는 5개가 설치되어 있다. 장애인복지시설 이용비율은 북구가 0.5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27> 2011년 자치구별 장애인복지시설 수 및 생활인원

(단위 : 개,명,%)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시설수	2	3	3	4	5
생활인원	154	99	144	109	216
장애인시설 이용비율	2.50	0.71	1.27	0.52	1.33

출처: 광주광역시, 「통계지도」에서 재구성, 2011.

위의 표에서 제시한 것처럼 광주광역시 전체를 보면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시설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다. 따라서 진정한 여성친화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시설확충을 위한 우선순위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3. 홍보·교육 프로그램 강화

여성친화정책의 효율적인 발굴·추진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인지도와 체감도를 높이는 시민 인식 전환을 위한 홍보 강화와 체험 프로그램 확대 등도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 2011년 한국여성단체연합의 ‘지자체 여성정책에 대한 인지도’ 조사 결과를 보면, 광주시민들은 ①잘 알고 있다. 2.7%, ②부분적으로 알고 있다. 42.9%, ③잘 알지 못한다. 43.9%, ④전혀 모른다. 8.5% 등으로 시민 50% 이상이 여성정책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⁵⁵⁾. 이와 관련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 문화, 직장·가정·학교 등 일상적인 영역에서 여전히 여성과 남성의 불평등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으며 사회 모든 영역에서의 성평등 사업이 저조하다거나, 인권도시, 문화중심도시로서의 여성의 참여 및 전망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⁵⁶⁾는 지적은

55) 한국여성단체연합(<http://www.women21.or.kr>), ‘여성이 바라는 지역여성정책 토론회’ 자료집, 2011. p.11.

56) 광주시민단체협의회(cafe.daum.net/ngosimin), 앞의 자료, p.25.

향후 광주광역시의 여성친화정책 수립에 반드시 반영돼야 할 숙제이다.

연구자의 경험으로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은 선진화된 시민의식이 선행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예산 낭비에 그친다는 것이다. 2011년 광주시 5개구 여성의원들이 여성친화도시인 익산시를 방문하여 선진적인 익산시의 여성친화 행정과 사업에 대해 현장 체험을 하였다. 그리고 광주광역시장에게 5개구에 여성친화 화장실을 짓게 해달라고 건의하여 각 구마다 화장실 건립 지원금을 1억5천만 원씩 특별교부금으로 지원 받았고 연구자의 지역인 동구도 여성친화 화장실을 짓게 되었다.

주민의 수요가 많은 동구 관내 푸른길 옆에 수유실과 휴게실, 옥상에 쉼 공간을 갖추고 남자 화장실의 1.5배 넓은 여자화장실로 만들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화장실은 밤이면 청소년들의 놀이터가 되어 수유실 침대가 불타고 휴게실 공간의 의자는 다 부서졌으며 옥상의 쉼 공간에는 담배꽂초와 쓰레기가 수북이 쌓여서 화재위험 때문에 도저히 문을 열어 놓을 수가 없게 되었다. 물론 화장실을 전담하는 인력이 없는 탓도 있지만 실종된 시민의식과 현실의 수준을 보면서 특히 여성친화정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는 기본적인 질서 및 시민의식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반드시 강화해야 한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제4장 광주광역시 지방의원과 시민대상 여론조사

제1절 조사 연구의 실제

본 연구는 광역형 모델인 광주광역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전체적으로 분석하고, 지방의원 서면조사·면접조사 및 시민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결과를 도출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5개 자치구단위의 연구는 진행하지 않았다. 광역시와 5개 자치구는 부서 간 추진 협력을 강화했으며 광역시의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기초단체의 사업 추진은 한계가 있고 대부분 자체 예산보다는 광역단체 예산지원의 협조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많은 행정력을 쏟기에는 무리가 있는 상황이다.

연구를 위한 설문 대상은 광주광역시민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설문조사 대상은 남성과 여성을 약 1:3의 비율로 설계하여 성별로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였다. 또한 남녀 각각 50대 이상과 50대 미만으로 분류하였고 남·녀 직장인과 비 직장인으로도 분류하였다. 이는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광주광역시민의 보편적인 의식을 알아보는데 첫 번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더 세분화된 데이터를 추출하지 않았다.

여기서 보편적이라는 의미는 단순비교를 뜻하는 것으로 본 연구의 목적 달성에 더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와 함께 광역형 지역특화사업과 관련된 지방의원들의 인식과 필요성 등에 대한 기초자료 추출을 위해 서면조사 및 면접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조례 제정권 등 여성친화도시사업과 무관할 수 없는 지방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지방의원들에 대한 조사는 광주광역시 및 5개 자치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선진화에 필요한 정책 제언을 위한 매우 유용한 자료가 되었으며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는 광주광역시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전반에 대한 검증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로 활용할 가치가 있었다. 본 연구를 위한 각종 조사의 개요 및 대상은 다음과 같다.

<표 28> 광주광역시 지방의원 대상 서면조사 개요

구분	개 요
조사대상	광주광역시 지방의원 30명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연구자 서면조사
표집방법	답변서 전원 표집
조사기간	2014. 09.05~2014,09,20

<표 29> 서면조사 대상 광주광역시 지방의원 성별 분포도

(단위: 명)

구분	여성	남성	합계
시의원	3	5	8
구의원	12	10	22
합계	15	15	30

<표 30> 서면조사 대상 광주광역시 지방의원 지역별 분포도

(단위: 명)

구분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합계
시의원	1	2	1	3	1	8
구의원	3	5	4	6	4	22
합계	4	7	5	9	5	30

<표 31> 광주광역시 전·현직 여성 지방의원 면접조사 개요

구분	개요
조사대상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한 선진지 벤치마킹 및 워크숍 등에 적극 참여한 광주광역시 전·현직 여성 지방의원 9명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연구자 면접조사
표집방법	면접 내용 전원 표집
조사기간	2014. 11.06~2014.11.14

<표 32> 광주광역시 전·현직 여성 지방의원 면접조사 분포도

면접 여성의원	경력	지역
A	전 광주광역시의원	북구
B	전 광주광역시의원	북구
C	전 남구의원	남구
D	전 서구의원	서구
E	현 광주광역시의원	북구
F	현 광산구의원	광산구
G	전 동구의원	동구

<표 33> 광주광역시민 대상 설문조사 개요

구분	개요
조사대상	광주광역시 거주 남녀 시민 376명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조사원 면접조사
표집방법	광주광역시 5개 자치구별 각 80명 할당 후 유효 설문지만 표집
조사기간	2014. 09.15~2014.09.25

<표 34> 설문조사 대상 광주광역시민 성별·연령별 분포도

(단위: 명)

구분	50대 이상	50대 미만	합계
여성	64	198	262
남성	52	62	114
합계	116	260	376

<표 35> 설문조사 대상 광주광역시민 직업별 분포도

(단위: 명)

구분	직장인	비직장인	합계
여성	171	91	262
남성	78	36	114
합계	249	127	376

제2절 광주광역시 지방의원 여론조사

1. 지방의원 서면 조사

가. 조사 배경

지방의원은 의회를 통해 조례 제정권을 비롯한 여러 권한을 가진 지역민의 대변자로서 여성친화도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존재이다. 수시로 지역구 구민들과 접촉하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민원을 해결하는 지방의원들의 목소리는 시정(市政)이나 구정(區政)에 막강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 등의 의결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지방의원들이 여성친화도시 및 사업 추진 방식 등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연구의 의제 설정을 위한 필수 요소이며, 현실적인 정책 제언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라 할 수 있다. 지방의원 서면조사는 연구자가 직접 실시함으로써 조사 내용 외에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생동감 있는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됨으로써 연구 내용을 심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다. 조사 대상 지방의원은 총 30명으로, 여성의원과 남성의원 비율은 5:5로 하였고 구의원과 시의원 비율은 전체 의원 비율에 따라 시의원 8명, 구의원 22명을 선정하였으며 각 구별 지방의원 선정은 전체 지방의원 수에 따라 비율을 조정하였다.

나. 통계자료 분석

(1)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 방식에 관한 지방의원 인식

1. 귀하께서는 광주광역시가 전국 최초 ‘광역형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후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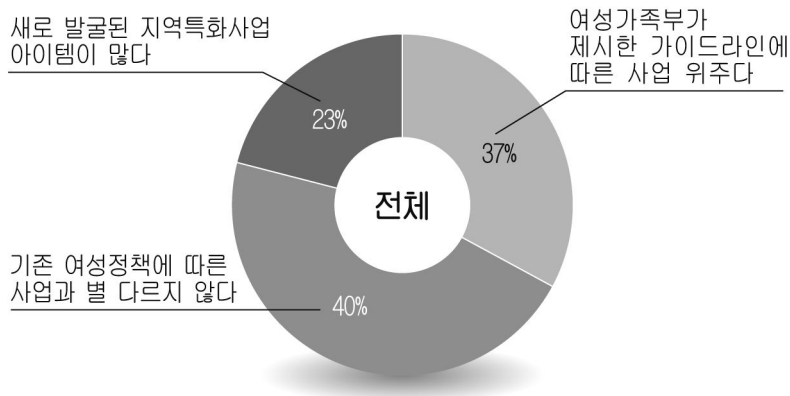
- 1) 여성가족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른 사업 위주다()
- 2) 기존 여성정책에 따른 사업과 별 다르지 않다()
- 3) 새로 발굴된 지역특화사업 아이템이 많다()

이 질문은 집행부와 함께 실질적인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한 축인 지방의회 의원들이 여성친화사업의 현재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광주광역시와 5개 자치구의 여성친화도시 지정 과정에서 시의원, 구의원 등 지방의원의 역할이 컸고, 특히 여성의원들의 노력이 많은 영향을 끼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때문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지방의원들의 인식은 향후 광주광역시의 정책 추진에 영향이 크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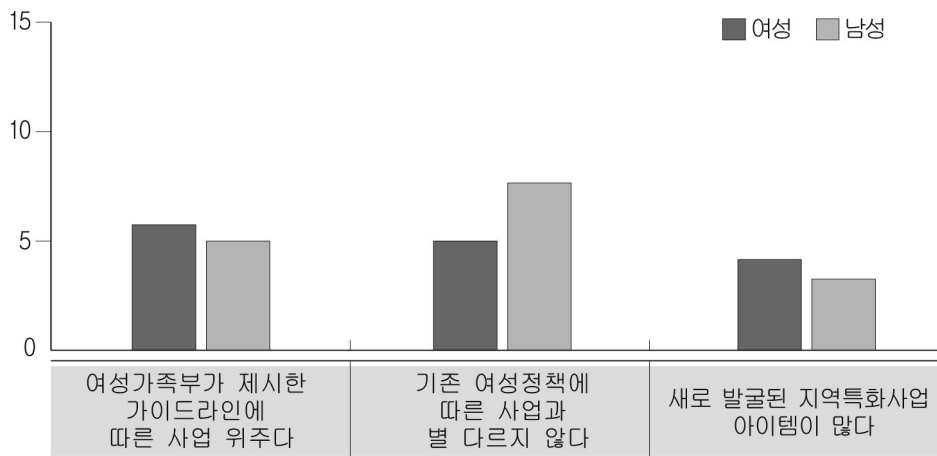
답변 결과를 보면, 전체 응답자 중 ①여성가족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사업 위주다. 37% ②기존 여성정책에 따른 사업과 별 다르지 않다. 40% ③새로 발굴된 사업 아이템이 많다. 23%로 응답했다. 여성의원들은 ①40%가 여성가족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사업 위주다. ②33%가 기존 여성정책에 따른 사업과 별 다르지 않다. ③27%가 새로 발굴된

지역특화사업 아이템이 많다고 했고, 남성의원들은 ①33%가 여성가족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사업 위주다. ②47%가 기존 여성정책에 따른 사업과 별 다르지 않다. ③20%가 ‘새로 발굴된 지역특화사업 아이템이 많다’라고 응답하였다. 남녀 의원들의 인식에 다소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지방의원들은 광주광역시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해 새로운 방향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8]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 방식 관련 전체 의원 조사 결과



[그림 19]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 방식 관련 남녀 의원 조사 결과



<표 36>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 방식 관련 조사 통계표

구분	여성	남성	합계
1	6(40%)	5(33%)	11(37)%
2	5(33%)	7(47%)	12((40%)
3	4(27%)	3(20%)	7(23%)
합계	15	15	30(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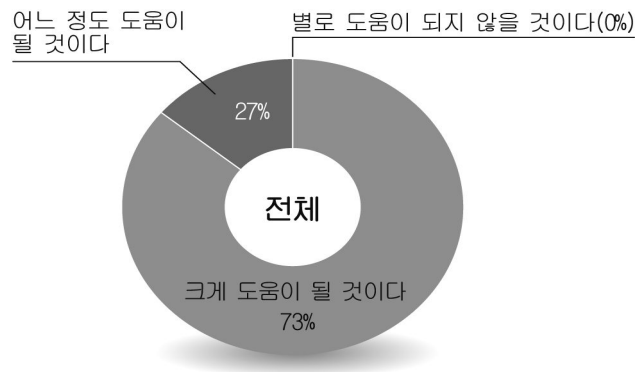
(2) 여성친화도시 기여도 관련 지방의원 인식

2. 광주광역시가 추진하고 있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이 앞으로 광주의 도시 이미지 개선과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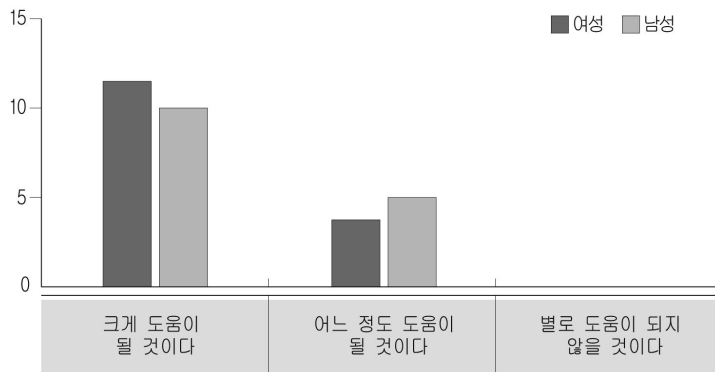
- 1)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2)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다()
 3)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 질문은 정책의 발굴, 집행 현장에 있는 지방의원들이 여성친화도시의 미래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함으로써 시민 여론과의 상이성(相異性)을 검증해보고자 하는 내용이다. 지방의원들은 시민의 대변자로서 언제나 시민들과 호흡하고 있기 때문에 여론의 수렴은 물론 확산, 전파에도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기에 중요하다. 답변 결과를 보면 ①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73% ②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다. 27%로 지방의원들의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지지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27%,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다. 64% 보다도 높은 수치이다.

[그림 20] 여성친화도시 기여도 관련 전체 의원 조사 결과



[그림 21] 여성친화도시 기여도 관련 남녀 의원 조사 결과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답변은 여성 80% 남성 67%,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답변은 여성 20% 남성 33%로 나타났다. 여성의원들의 기대치가 높게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지만 남성의원들도 여성친화도시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표 37> 여성친화도시 기여도 관련 지방의원 조사 통계표

구분	여성	남성	합계
1	12(80%)	10(67%)	22(73%)
2	3(20%)	5(33%)	8(27%)
3	0	0	0
합계	15	15	30(100%)

(3) 광주광역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지방의원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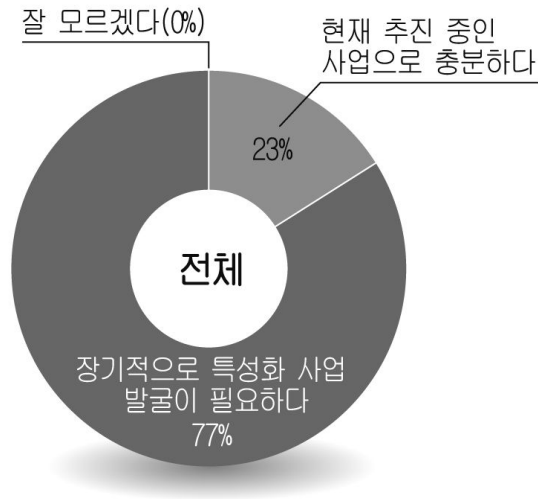
3. ‘여성친화도시 광주’의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광주’만의 고유한 도시자산을 활용한 특화된 여성친화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괄호 안에 한 가지만 ○로 표시해주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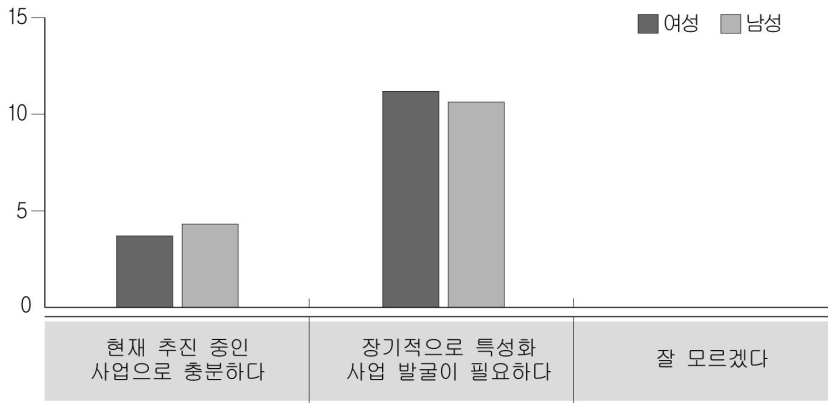
- 1) 현재 추진 중인 사업으로 충분하다()
- 2) 장기적으로 지역특화사업 발굴이 필요하다()
- 3) 잘 모르겠다()

이 질문은 본 연구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광역단위 지역특화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의원들의 인식이 광주시의 정책수립에 충분히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또 그것이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답변 결과를 보면, 전체 응답자의 23%가 현재 추진 중인 사업으로 충분하다고 답한 반면, 77%가 장기적으로 지역특화사업 발굴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그림 22] 여성친화도시 지역특화사업 필요성에 대한 전체 의원 조사 결과



[그림 23] 여성친화도시 지역특화사업 필요성에 대한 남녀 의원 조사 결과



‘현재 추진 중인 사업으로 충분하다’에 대해서는 여성 20% 남성 27%, ‘장기적으로 지역특화사업 발굴이 필요하다’에 대해서는 여성 80% 남성 73%로 나타났다.

이 조사 결과를 분석해 보면 남녀 지방의원들은 현재 광주광역시가 추진하고 있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보다는 한 단계 더 발전된 지역특화사업 발굴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 지방의원들은 의정활동을 통해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기본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 시민에 비해 인지도가 높고 정책에 대한 관심도 높다는 점에서 광주광역시는 향후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방의원들의 관점을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

<표 38> 지역특화사업 필요성에 대한 지방의원 조사 통계표

구분	여성	남성	합계
1	3(20%)	4(27%)	7(23%)
2	12(80%)	11(73%)	23(77%)
3	0	0	0
합계	15	15	30(100%)

(4) 광주광역시 유·무형 자산 중 지역특화사업 발굴 아이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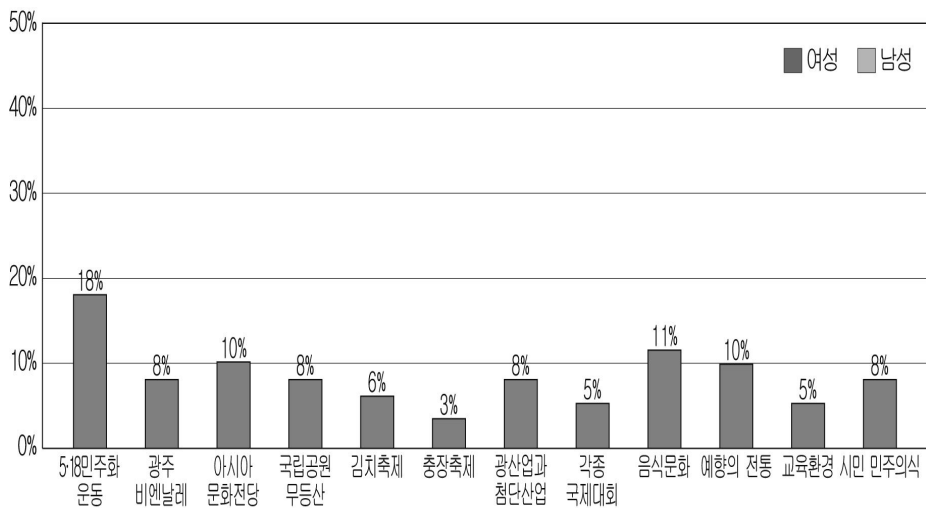
4. 광주광역시 여성친화도시 ‘광역형 지역특화사업’ 추진을 위해 광주의 유·무형의 자산 중 여성친화정책 발굴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항목을 5개 골라주십시오.		
1) 5·18민주화운동 ()	2) 광주비엔날레 ()	3) 아시아문화전당 ()
4) 국립공원 무등산 ()	5) 김치축제 ()	6) 총장축제 ()
7) 광산업과 첨단산업 ()	8) 각종 국제대회 ()	9) 음식문화 ()
10) 예향의 전통 ()	11) 교육환경 ()	12) 시민 민주의식 ()

이 질문은 광주광역시의 여성친화도시 지역특화사업 추진을 위해 광주의 유·무형의 자산 중 여성친화정책 발굴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선호도를 측정함으로써 앞으로 광주광역시의 정책 수립에 참고 자료로 활용할 목적으로 실시됐다. 전체 의원들의 응답을 보면, 5·18민주화운동, 음식문화, 예향의 전통, 아시아문화전당, 광주비엔날레와 시민 민주의식 등의 순으로 광주의 유·무형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는 5·18민주화운동, 국립공원 무등산과 음식문화, 예향의 전통, 광주비엔날레와 아시아문화전당, 김치축제 순으로 나타났고, 남성의 경우는 5·18민주화운동, 아시아문화전당, 음식문화, 예향의 전통, 시민 민주의식, 광산업과 첨단산업 순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 결과를 통해서 지방의원들은 광주광역시의 역사적 자산인 ‘5·18민주화운동’ 그리고 전국적으로 유명한 ‘음식문화’ 자산에 대해 높은 선호도를 나타냈으며, 여성의원들은 ‘5·18민주화운동’과 함께 ‘국립공원 무등산’을 중요한 자산으로 꼽았고, 남성의원들은 ‘5·18민주화운동’과 함께 ‘아시아문화전당’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4] 광주광역시의 유·무형 자산 중 지역특화사업 발굴 아이템 대한 지방의원 조사 결과



<표 39> 광주광역시 유·무형 자산 중 지역특화사업 발굴 아이템 대한 지방의원 조사 통계표

구분	여성	남성	합계
1	12(16%)	15(20%)	27(18%)
2	7(0.9%)	5(0.7%)	12(8%)
3	7(0.9%)	9(1.2%)	16(0%)

4	9(1.2%)	3(0.4%)	12(8%)
5	6(0.8%)	4(0.5%)	10(7%)
6	4(0.4%)	3((0.3%)	7(4%)
7	6(0.8%)	6(0.8%)	12(8%)
8	4(0.4%)	5(0.5%)	9(5%)
9	9(1.2%)	8(1%)	17(11%)
10	8(1%)	8(1%)	16(10%)
11	4(0.5%)	5(0.7%)	9(5%)
12	4(0.5%)	8(1%)	12(8%)
합계	75(100%)	75(10%)	150(100%)

(5) 여성친화도시 관련 지방의원과 주민 교감 실태

6.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하여 지역주민으로부터 사업에 대해 건의를 받거나, 관련 정책에 대해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까?

1)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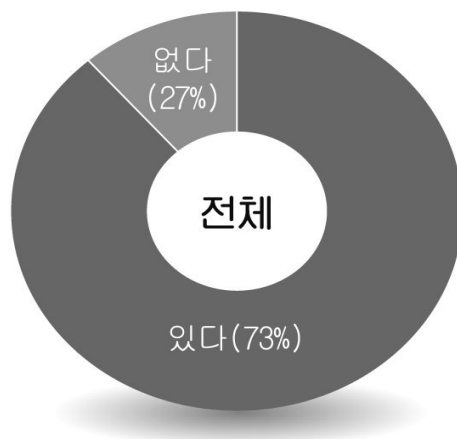
2) 없다()

이 질문은 여성친화도시에 대해 평소 지방의원들과 지역주민들의 상호 교감의 정도를 측정함으로써 여성친화도시가 광주 사회 전반에 뿌리내릴 있는 기반 조성의 기초자료를 추출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답변 결과를 보면, 전체 응답자 중 ①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73%, ②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 27%로 다수 지방의원들이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하여 지역주민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①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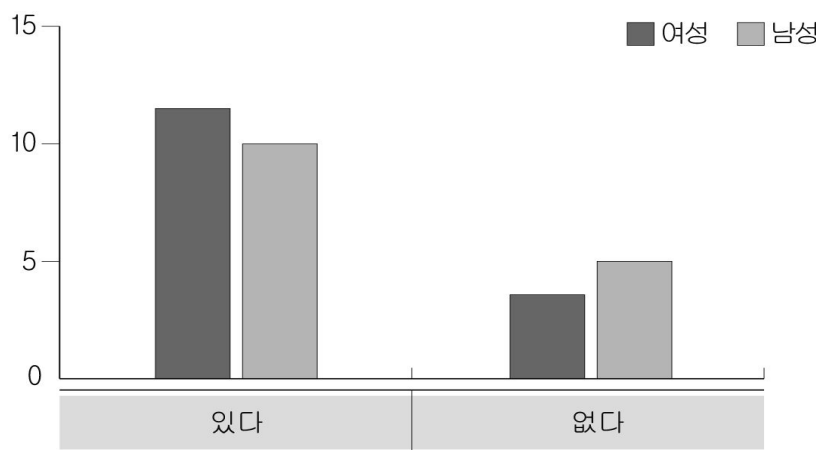
를 나누는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여성 80% 남성 62%, ②대화를 나누는 적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 여성 20% 남성 33% 비율로 나타났다.

이 조사 결과를 분석해보면 전체적으로 여성친화도시에 대해 지방의원들과 지역주민간의 소통은 원만하고, 여성의원들과 주민들 간의 대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난 것은 자연스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지방의원들이 주민들과 직접 교감하면서 자치구뿐만 아니라 광주광역시 광역단위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홍보하고, 여론을 수렴하여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는 것은 집행부의 사업 추진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림 25] 지방의원들과 주민들 간의 여성친화도시 교감 실태 전체 의원 조사결과



[그림 26] 지방의원들과 주민들 간의 여성친화도시 교감 실태 남녀 의원 조사결과



<표 40> 지방의원과 주민들 간의 여성친화도시 교감 실태 지방의원 조사 통계표

구분	여성	남성	합계
1	12(80%)	10(67%)	22(73%)
2	3(20%)	5(33%)	8(27%)
합계	15	15	30(100%)

2. 전·현직 지방의원 면접조사

광주광역시 전·현직 지방의원 면접조사는 광주광역시의회 여성 시의원들과 5개 자치구 여성 구의원들 중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공동 조례를 만들고 예산 지원을 이끌어내 사업을 진행했던 의원들의 증언을 통해 광주광역시 여성친화도시의 성과와 발전 방향을 도출해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실시했다. 당시 여성의원들은 여성친화도시라는 생소한 정책을 이식해오고 광주광역시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의 사명감과 함께 여성친화정책을 만드는데 선도적 역할을 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음을 확인했다.

연구자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깊이 관여했고, 특히 2015년 개관을 목표로 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관련한 학술모임 멤버로 참여하면서 이 시설이 세계적인 문화시설이 되기 위해서는 광주광역시가 선포한 여성친화도시라는 명제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시설이나 정책들이 강화됨으로써 광주광역시가 문화·관광도시로 도약하게 될 것이라는 구상을 갖게 되었다.

광주광역시가 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인들에게 친근하고 매력 있는, 다시 찾고 싶은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광주광역시를 명품도시로 브랜드화해야 하며 그 새로운 출발점이 여성친화도시라고 할 수 있다.

전·현직 지방의원들은 광역단위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포괄적인 활동은 아니지만 광주광역시와 5개 자치구의 여성친화도시 지정에 노력했고 지정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사업 추진에 앞장섰다는 점에서 그들의 육성 증언은 큰 의미

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41>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 참여 전·현직 여성 지방의원 면접조사 질문 요지

- 1) 귀하가 의원 재직 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떤 사업을 추진했나요?
- 2)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가장 아쉬운 점은 무엇이며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은 무엇인가요?

A) 전 광주광역시 의원

여성친화도시의 근거를 만들기 위해 입법화가 중요해서 조례를 만들기 위해 우선 성별영향평가를 먼저 한 후 성인지 예산을 편성하도록 한 것에 보람을 느낀다. 시범적 사업발굴은 ‘5개 구에 여성친화 화장실’을 만들고, 여성의 안전문제에 우선순위를 두고 독거여성의 안전생활 사업발굴을 위한 근거로 ‘여성안전지원조례’를 만들었다. 구체적 사업으로는 ‘안심벨 사업’, ‘귀가 서비스’ 등을 추진했고, 보육 문제와 교육 문제 관련 시설 확충과 예산확보 및 교사의 지위향상을 위해 노력하였다.

『여성기업인 우대조례』를 만들어 여성기업인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권장하였고, 공무원들의 성 평등 교육을 의무화하기 위한 근거로 ‘성인지 예산편성’을 확대했으며, 모든 위원회에 여성참여 40%를 의무화하였다. 시의원 시절, 업무보고,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수시로 여성친화정책에 대해 질문하고 지적하여 꾸준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정책이 수행되도록 하였다. 이런 정책들을 입안하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느낀 점은 여성의 정치참여가 50%이상 되어서 보다 더 평등하고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사회전체의 발전을 위한 성 평등정책이나 여성친화정책은 하나의 수단이며 이런 모든 것들이 잘 되기 위해서는 여성친화 의식개선 운동이 선행되어야 한다.

B) 전 광주광역시의원

성인지 예산편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각 부서별 예산을 성별영향평가분석을 먼저 하고 실질적으로 여성의 감수성을 내용에 담아서 여성친화정책을 수립하였다. 예를 들

면 예전에 공원을 만든다면 녹지과와 건설과가 진행하였는데 정책수립 후에는 여성 정책과나 장애인과도 함께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서 사업을 진행하였다. 초기비용은 더 들지 모르지만 여성, 아이들, 노인, 장애인 등을 배려하면서 사업을 진행하여 장기적으로 민원의 소지와 불편함을 최소한으로 없애는 것이 여성친화도시 사업의 시발점이라는 생각이다.

C) 전 남구의원

구의원으로 활동을 하면 경로당에 갈 기회가 많았는데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우리나라가 점차 노령화가 되어가는데 아직은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인력을 방치해 두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노인당에 아직은 갈 수 없는 50대 후반에서 60대까지의 인력들(거의 집에서 손자들을 많이 돌봄)을 경로당에 끌어들여서 경로당을 공동 육아방으로 만들어 주부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노인들에게 아이들을 공동으로 돌보게 하면서 공공근로지원금을 주면 좋겠고 도우미를 파견하여 청소와 요리를 일부 책임지게 하면 일자리 창출도 되고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의견으로 많은 여성의원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이런 여성친화사업을 각 자치구에서 광주만의 특성을 살린 핵심 사업으로 실천해도 좋을 것 같다.

D) 전 서구의원

서구는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이 많아서 시의 1차 지원금으로 운천저수지, 호수공원에 여성친화 화장실을 만들었고 2차지원금으로 쌍암공원에 여성친화 화장실을 만들어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쾌적하고 편리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개인적으로는 중증 장애인 돌봄 시스템구축을 통해서 장기간 중증 장애인을 돌보고 있는 가족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역할을 지자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는 방향을 모색하였고 중증 장애인 돌봄 요양센터 구축을 위해 힘썼다.

E) 현 광주광역시의원

2010년 익산시와 여수시의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접하면서 지방의원이 되기 전부터 이에 대한 구상을 해왔다. 구청의 사업을 살펴보니 시에서 내려준 사업 외에는 특성화사업이 없는 것을 보고 구정질문을 통해서 여성친화도시의 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하였다. 괄목할만한 성과로 복지국의 명칭을 복지여성계로 바꾸고 담당공무원을

여성친화도시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교체하였다. 의원 현장활동 시에도 담당 공무원과 민간인, 여성의원들이 함께 가서 선진지를 견학하고 토의, 연구하였다. 마을단위 여성친화센터를 시지원금으로 만들었는데 지금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F) 현 광산구의원

여성친화도시 관련 조례를 만들어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지원 근거를 만든 것이 보람 있었고, 운남 근린공원에 1차 지원금으로 여성친화 화장실 신축 및 주변 LED 조명시설 설치로 우범 지역을 탈피하였으며 2차 지원금으로는 여성보육과에서 공모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올해도 구 자체 예산을 세워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쉬운 점은 구에서 여성정책을 수립할 때 여성의원들의 의견을 더 많이 반영해준다면 정책의 효율성 면에서 더 발전할 수 있을 것 같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리라고 본다.

G) 전 동구의원

지원금 1억으로 노령 인구가 많은 구도심의 특성상 13개동별 여성친화공모사업을 실시하여 구청 강당에서 신청 사업에 대한 각 동별 심사를 진행하여 사업을 선정했다. 이를 통해 동별 단합과 마을 공동체의식을 함양시키는 데 기여한 것이 보람으로 남아있고, 앞으로 지속적인 여성친화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한 것이 큰 수확이었다. 광역단체와는 달리 기초자치단체는 주민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추진할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이 많고, 지역 특성을 살린 특화사업 추진이 용이한 편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일률적인 사업을 지정하는 것보다는 구의 특성에 맞는 사업과 지속성을 고려하여 통 큰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서면조사와 면접조사에 응한 광주광역시 전·현직 지방의원들은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관심이 높은 편이었으며 천편일률적인 정책보다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미래 지향적인 아이템 발굴을 주문하는 경우가 많았다. 현재 추진 중인 여성친화정책이 여성가족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른 사업 위주라는 답변이 많다는 것이 그 반증이다. 또한 여성친화도시가 광주의 이미지 개선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고, 광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지역특화사업 발굴이 필요

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지역주민들과 여성친화도시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적이 많다는 비중도 높았다.

이러한 조사 자료는 집행부가 지방의원들과 간담회나 공동 세미나 등을 통해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교감의 폭을 넓힌다면 현재보다 더 내실 있고 미래지향적인 여성친화도시 조성이 가능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지방의회는 조례 제정, 예산 심의, 의결 등의 권한을 감안한다면, 집행부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의회의 도움이 필수적인 만큼,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 마련을 통해 여성친화도시가 형식적이고 포퓰리즘적인 정책 과제가 아니라, 자치단체의 경쟁력 강화와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절대적인 실천 과제라는 점을 공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조사 결과에서 지방의원들이 여성친화도시에 우호적이고 발전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는 만큼, 광주광역시의회는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조례 제정 등 입법 활동을 통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지원 및 여성친화문화 확산, 범시민 참여 분위기 조성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능동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여성친화도시가 광주의 새로운 도시 브랜드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이론적 토대와 함께 지역특화사업 발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한 축으로서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제3절 광주광역시민 대상 설문조사

1. 설문조사 배경

이 조사는 광역단위 여성친화도시 모델인 광주광역시가 현재까지 추진해온 각종 사업에 시민들의 인지(認知)나 호응도 등에 대한 포괄적인 현황을 파악하고자 실시하였다. 이와 함께 ‘광주’라는 도시의 대표 이미지와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 지를 여과없이 수렴함으로써 광주의 미래는 물론 향후 광주광역 여성친화도시의 나아갈 길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 설문조사는 정교한 표본 할당보다는 남녀 직장인 구분, 50대 이상 50대 미만 구분 등 비교적 단순하게 설계했다. 다만 5

개 구청 민원실을 중심으로 조사원 면접조사 방식을 택했는데, 이는 구청 민원실이 각계각층의 시민이 출입하는 공간으로 시민의 대표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이 설문조사의 결과는 많은 선행 연구와 본 연구의 비교 검토에 도움이 되었으며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광주광역시민의 기본 인식을 파악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었다. 사업추진 3년차를 맞고 있는 광주광역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해 ‘잘 모른다’는 답변이 많았지만 반대로 기대감도 크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광역단위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폭넓은 설문조사 등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 설문조사를 통해 광주광역시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새로운 길을 모색해보고자 하는 목적이 담겨있다. 남성:여성의 비율을 1:3으로 한 것은 무엇보다도 여성친화도시의 주체라 할 수 있는 여성의 의견을 더 많이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2. 설문조사 통계 분석

설문 통계분석은 SPSS 21.0 통계패키지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주요 분석은 여성친화도시 인지도, 여성 친화도시 기여도, 여성친화적 환경 수준 체감도에 대하여 독립표본 T-검정을 시행하였다. 이를 통해 성별, 연령별(50대 미만 젊은층, 50대 이상 노장년층), 직장유무별(직장인, 비직장인)에 따라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는지 조사하였다. 그 결과, 첫째 광주광역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대한 인지도는 성차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였다. 즉 여성은 남성에 비해 여성친화도시에 대해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여성친화도시 사업의 도시 이미지 개선과 지역 발전의 기여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여성이 남성보다 긍정적인 기대감을 표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직장인이 비직장인보다 여성친화도시 사업이 도시 이미지 개선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리라고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광주의 여성 친화적 환경 수준에 대한 답변은 성별, 연령, 직장유무에 따른 집단별 유의미한 통계적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로는 광주광역시가 제주도를 제외하고 전국 유일의 광역 여성친화도시라는 점에 대한 홍보가 미흡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따라서 광주광역시가 여성친화도시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획기적인 의제(議題) 발굴과 함께 치밀한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 낮은 인지도는 시민들의 무관심을

심화시킬 수 있고 여성 친화도시가 광주광역시의 새로운 브랜드로 정립되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성친화가 구호에 그치거나 일부시설의 개·보수, 여성의 안전, 육아문제 등 기존의 여성친화정책이 추구하고 있는 가치에만 충실한 정책보다는 과감한 발상의 전환을 통해 시민 속으로 파고들어야 한다는 것을 이 조사는 말해주고 있다.

가. 설문 응답자의 특징

(1) 설문 응답자의 일반적 특징

<표 42> 설문 응답자의 일반적 특징

		빈도(명)	퍼센트(%)
성별	남성	114	30.3
	여성	262	69.7
연령	50대 이상	116	30.9
	50대 미만	260	69.1
직장유무	직장인	249	66.2
	비직장인	127	33.8

전체 설문 응답자는 376명이었다. 이 중 남성은 114명(30.3%), 여성은 262명(69.7%)이고, 50대 이상은 116명(30.9%), 50대 미만은 260명(69.1%)이며, 직장인은 249명(66.2%), 비직장인은 127명(33.8%)이었다. 표본 추출과정에서 장소의 특수성으로 인해 여성, 50대 미만, 직장인 응답자가 과 표집된 측면이 있다.

<표 43> 응답자의 성별-연령별 교차표

		50대 이상	50대 미만	전체
남성	빈도(명)	52	62	114
	남성 중 %	45.6%	54.4%	100.0%
	전체 %	13.8%	16.5%	30.3%
여성	빈도(명)	64	198	262

	여성 중 %	24.4%	75.6%	100.0%
	전체 %	17.0%	52.7%	69.7%
전체	빈도(명)	116	260	376
	전체 %	30.9%	69.1%	100.0%

응답자의 성별-연령별 분포는 남성의 경우 50대 이상이 52명(45.6%), 50대 미만인 62명(54.4%), 여성은 50대 이상이 64명(24.4%), 50대 미만이 198명(75.6%)으로 나타났다. 남성과 여성 모두 50대 미만 응답자가 50대 이상 응답자보다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표 44> 응답자의 성별-직장유무별 교차표

		직장인	비직장인	전체
남성	빈도(명)	78	36	114
	남성 중 %	68.4%	31.6%	100.0%
	전체 %	20.7%	9.6%	30.3%
여성	빈도(명)	171	91	262
	여성 중 %	65.3%	34.7%	100.0%
	전체 %	45.5%	24.2%	69.7%
전체	빈도(명)	249	127	376
	전체 %	66.2%	33.8%	100.0%

응답자의 성별-직장유무별 분포를 보면, 남성은 직장인 78명(68.4%), 비직장인 36명(31.6%), 여성은 직장인 171명(65.3%), 비직장인 91명(34.7%)으로 나타나 남성, 여성 모두 직장인 비율이 높았다. 이는 남성과 여성 모두 50대 미만 응답자가 많은 것과 더불어 경제활동을 하는 취업자 비중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45> 응답자의 연령별-직장유무별 교차표

		직장인	비직장인	전체
50대 이상	빈도(명)	60	56	116
	50대 이상 중 %	51.7%	48.3%	100.0%
	전체 %	16.0%	14.9%	30.9%

50대 미만	빈도(명)	189	71	260
	50대 미만 중 %	72.7%	27.3%	100.0%
	전체 %	50.3%	18.9%	69.1%
전체	빈도(명)	249	127	376
	전체 %	66.2%	33.8%	100.0%

응답자의 연령별-직장유무를 살펴보면, 50대 이상은 직장인이 60명(51.7%), 비직장인이 56명(48.3%)이었으며, 50대 미만은 직장인이 189명(72.7%), 비직장인 71명(27.3%)로 나타났다. 50대 미만 직장인이 전체의 50.3%를 차지하였다.

나. 여성친화도시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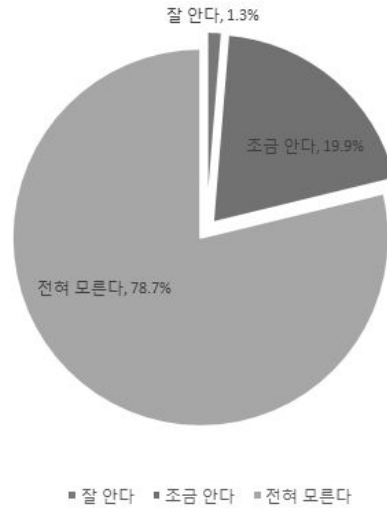
1. 귀하께서 광주광역시가 전국 최초 ‘광역형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후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여성친화 조성 사업을 알고 계십니까?
 괄호 안에 한 가지만 ○로 표시해 주십시오.

1) 잘 안다 ()
 2) 조금 안다 ()
 3) 전혀 모른다 ()

<표 46> 여성친화도시 인지도

	빈도(명)	퍼센트(%)	누적퍼센트(%)
잘 안다	5	1.3	1.3
조금 안다	75	19.9	21.3
전혀 모른다	296	78.7	100.0
합계	376	100.0	

[그림 27] 여성친화도시 인지도



여성친화도시 사업에 대한 인지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296명(78.7%)이 모른다고 응답하여 인지도 매우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지하는 경우도 잘 안다 5명(1.3%), 조금 안다 75명(19.9%)으로 파악되어 이를 합친 인지도는 21.3%로 나타나 10명중 2명 정도만 여성친화도시에 대해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7> 성별에 따른 여성친화도시 인지도

		잘 안다	조금 안다	전혀 모른다	전체
남성	빈도(명)	1	15	98	114
	남성 중 %	0.9%	13.2%	86.0%	100.0%
	전체 %	0.3%	4.0%	26.1%	30.3%
여성	빈도(명)	4	60	198	262
	여성 중 %	1.5%	22.9%	75.6%	100.0%
	전체 %	1.1%	16.0%	52.7%	69.7%
전체	빈도(명)	5	75	296	376
	전체 %	1.3%	19.9%	78.7%	100.0%

성별에 따른 여성친화도시 인지도는 남성의 경우 ①잘 안다. 1명(0.9%), ②조금 안

다. 15명(13.2%), ③전혀 모른다. 98명(86.0%)로 나타났으며, 여성은 ①잘 안다. 4명(1.5%), ②조금 안다. 60명(22.9%), ③전혀 모른다. 198명(75.6%)로 조사되었다.

<표 48> 연령에 따른 여성친화도시 인지도

		잘 안다	조금 안다	전혀 모른다	전체
50대 이상	빈도(명)	1	18	97	116
	50대 이상 중 %	0.9%	15.5%	83.6%	100.0%
	전체 %	0.3%	4.8%	25.8%	30.9%
50대 미만	빈도(명)	4	57	199	260
	50대 미만 중 %	1.5%	21.9%	76.5%	100.0%
	전체 %	1.1%	15.2%	52.9%	69.1%
전체	빈도(명)	5	75	296	376
	전체 %	1.3%	19.9%	78.7%	100.0%

연령에 따른 여성친화도시의 인지도는 50대 이상의 경우 ①잘 안다. 1명(0.9%), ②조금 안다. 18명(15.5%), ③전혀 모른다. 97명(83.6%)이며, 50대 미만 응답자는 ①잘 안다. 4명(1.5%), ②조금 안다. 57명(21.9%), ③전혀 모른다. 199명(76.5%)으로 나타났다.

<표 49> 직장유무에 따른 여성친화도시 인지도

		잘 안다	조금 안다	전혀 모른다	전체
직장인	빈도(명)	3	48	198	249
	직장인 중 %	1.2%	19.3%	79.5%	100.0%
	전체 %	0.8%	12.8%	52.7%	66.2%
비직장인	빈도(명)	2	27	98	127
	비직장인 중 %	1.6%	21.3%	77.2%	100.0%
	전체 %	0.5%	7.2%	26.1%	33.8%
전체	빈도(명)	5	75	296	376
	전체 %	1.3%	19.9%	78.7%	100.0%

직장에 다니고 있는지에 따라, 직장인은 ①잘 안다 3명(1.2%), ②조금 안다 48명(19.3%), ③전혀 모른다 198명(79.5%)으로 나타났으며, 비직장인의 경우 ①잘 안다 2명(1.6%), ②조금 안다 27명(21.3%), ③전혀 모른다 98명(77.2%)로 파악되었다.

<표 50> 여성친화도시 인지도 T-검정

		빈도(N)	기술통계량		T-검정		
			평균(M)	표준편차(SD)	t	(양쪽) 유의확률	차이의 95% 신뢰구간
성별	남성	114	1.15	0.38	-2.200*	0.028	(-0.21, -0.01)
	여성	262	1.26	0.47			
연령	50대 이상	116	1.17	0.40	-1.549	0.122	(-0.18, 0.02)
	50대 미만	260	1.25	0.47			
직장유무	직장인	249	1.21	0.44	-0.555	0.579	(-0.12, 0.07)
	비직장인	127	1.24	0.47			

*는 유의수준 $p < .05$ 에서 유의함.

‘여성친화도시’에 대하여 성별, 연령, 직장유무에 따라 집단별 차이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①잘 안다 3점, ②조금 안다 2점, ③전혀 모른다 1점으로 구성하여 3점 척도화하여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다.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인지도는 여성(1.26), 50대 미만(1.25), 비직장인(1.24) 집단이 높게 나타났고, 여성, 50대 미만, 비직장인의 표준편차는 남성, 50대 이상, 직장인 집단보다 크게 나타났다. 하지만 T-검정 결과, 통계학적으로 연령, 직장유무와 인지도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다만 성별 집단 간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게 여성이 여성친화도시에 대해 인지도가 높고, 남성은 여성친화도시에 대해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 여성친화도시 기여도

2. 광주광역시가 추진하고 있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이 앞으로 광주의 도시 이미지 개선과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괄호 안에 한 가지만 ○로 표시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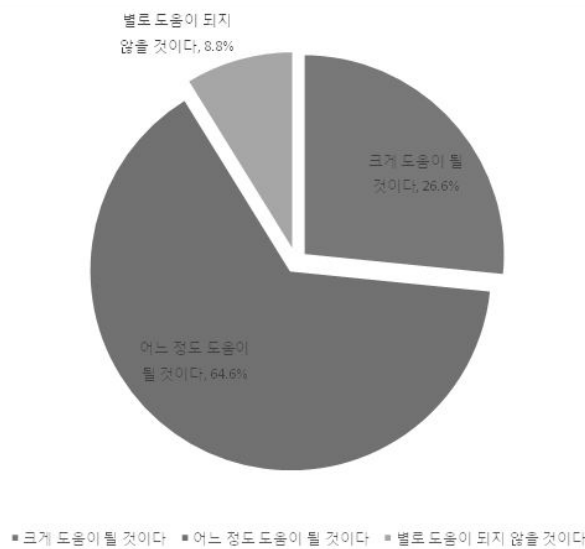
- 1)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 2)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다()

3)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표 51> 여성친화도시의 광주도시 이미지 기여도

	빈도(명)	퍼센트(%)	누적퍼센트(%)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100	26.6	26.6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다	243	64.6	91.2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33	8.8	100.0
합계	376	100.0	

[그림 28] 여성친화도시의 광주도시 이미지 기여도



‘여성친화도시’가 광주의 도시 이미지 개선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고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①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100명(26.6%), ②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다 243명(64.6%), ③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33명(8.8%)로 나타났다. 이미지 개선과 도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긍정적 평가가 91.2%를 차지하였다.

<표 52> 성별에 따른 여성친화도시의 광주도시 이미지 기여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전체
남성	빈도(명)	22	80	12	114
	남성 중 %	19.3%	70.2%	10.5%	100.0%
	전체 %	5.9%	21.3%	3.2%	30.3%
여성	빈도(명)	78	163	21	262
	남성 중 %	29.8%	62.2%	8.0%	100.0%
	전체 %	20.7%	43.4%	5.6%	69.7%
전체	빈도(명)	100	243	33	376
	전체 %	26.6%	64.6%	8.8%	100.0%

성별에 따른 여성친화도시의 광주 도시 이미지 개선과 도시 발전 기여에 대한 평가 응답은 남성의 경우 ①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22명(19.3%), ②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다. 80명(70.2%), ③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12명(10.5%)이었으며, 여성은 ①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78명(29.8%), ②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다. 163명(62.2%), ③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21명(8.0%)으로 나타났다. 긍정적 평가는 여성(92%)이 남성(89.5%)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53> 연령에 따른 여성친화도시의 광주도시 이미지 기여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전체
50대 이상	빈도(명)	36	72	8	116
	50대 이상 중 %	31.0%	62.1%	6.9%	100.0%
	전체 %	9.6%	19.1%	2.1%	30.9%
50대 미만	빈도(명)	64	171	25	260
	50대 미만 중 %	24.6%	65.8%	9.6%	100.0%
	전체 %	17.0%	45.5%	6.6%	69.1%
전체	빈도(명)	100	243	33	376

	전체 %	26.6%	64.6%	8.8%	100.0%
--	------	-------	-------	------	--------

연령에 따른 여성친화도시의 광주도시 이미지 기여도는 50대 이상은 ①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36명(31.0%), ②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다. 72명(62.1%), ③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8명(6.9%)이었으며, 50대 미만은 ①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64명(24.6%), ②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다. 171명(65.8%), ③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25명(9.6%)으로 파악되었다. 기여도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50대 이상(93.1%)이 50대 미만(90.4%)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54> 직장유무에 따른 여성친화도시의 광주도시 이미지 기여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전체
직장인	빈도(명)	74	157	18	249
	직장인 중 %	29.7%	63.1%	7.2%	100.0%
	전체 %	19.7%	41.8%	4.8%	66.2%
비직장인	빈도(명)	26	86	15	127
	비직장인 중 %	20.5%	67.7%	11.8%	100.0%
	전체 %	6.9%	22.9%	4.0%	33.8%
전체	빈도(명)	100	243	33	376
	전체 %	26.6%	64.6%	8.8%	100.0%

직장을 다니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여성친화도시의 광주도시 이미지 기여도 평가를 살펴보면, 직장인은 ①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74명(29.7%), ②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다. 157명(63.1%), ③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18명(7.2%)로 나타났으며, 비직장인의 경우 ①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26명(20.5%), ②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다. 86명(67.7%), ③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15명(11.8%)으로 파악되었다. 직장유무에 따른 기여도의 긍정적 평가는 직장인(92.8%)이 비직장인(88.2%)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55> 여성친화도시의 광주도시이미지 기여도 T-검정

		빈도 (N)	기술통계량		T-검정		
			평균 (M)	표준편 차(SD)	t	(양쪽) 유의 확률	차이의 95% 신뢰구간
성별	남성	114	2.09	0.54	-2.045	0.042*	(-0.25, -0.01)
	여성	262	2.22	0.58			
연령	50대 이상	116	2.24	0.57	1.442	0.150	(-0.33, 0.22)
	50대 미만	260	2.15	0.57			
직장 유무	직장인	249	2.22	0.57	2.224	0.025*	(0.02, 0.26)
	비직장인	127	2.09	0.56			

*는 유의수준 $p < .05$ 에서 유의함.

여성친화도시의 광주 도시이미지 기여도에 대해, ①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3점, ②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다. 2점, ③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1점으로 구성하여 3점 척도화하여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50대 이상(2.24), 50대 미만(2.15) 연령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성별과 직장유무에 따라서는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분석결과 남성(2.09)보다는 여성(2.22)이, 비직장인(2.09)보다는 직장인(2.22)이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이 앞으로 광주의 도시 이미지 개선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마. 여성친화적 환경 수준 체감도

3. 평소 생활하시면서 광주광역시의 여성친화적 환경이 어느 정도라고 느끼셨습니까?
 괄호 안에 한 가지만 ○로 표시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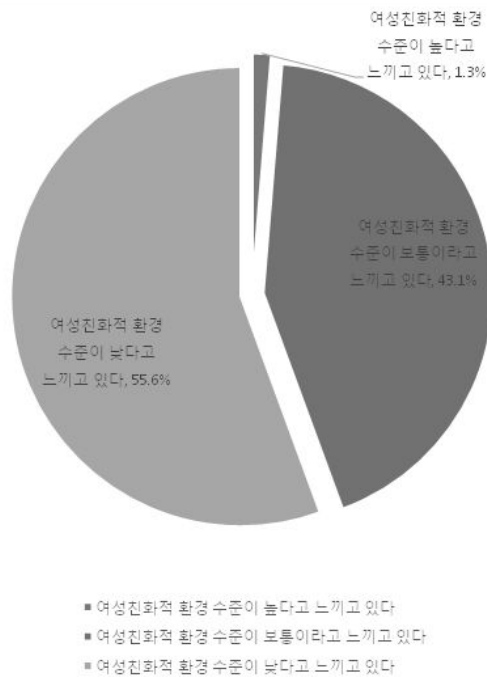
- 1) 여성친화적 환경 수준이 높다고 느끼고 있다()
- 2) 여성친화적 환경 수준이 보통이라고 느끼고 있다()

3) 여성친화적 환경 수준이 낮다고 느끼고 있다()

<표 56> 여성친화적 환경 수준 체감도

	빈도(명)	퍼센트(%)	누적퍼센트(%)
여성친화적 환경 수준이 높다고 느끼고 있다	5	1.3	1.3
여성친화적 환경 수준이 보통이라고 느끼고 있다	162	43.1	44.4
여성친화적 환경 수준이 낮다고 느끼고 있다	209	55.6	100.0
합계	376	100.0	

[그림 29] 여성친화적 환경 수준 체감도



광주광역시의 여성친화적 환경 수준에 대한 체감도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209명 즉 절반 이상(55.6%)이 여성친화적 환경 수준이 낮다고 느끼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여성친화적 환경 수준이 높다고 느끼고 있다는 5명(1.3%), 여성친화적 환경 수준이 보통이

라고 느끼고 있다는 162명(43.1%)으로 나타나, 긍정적 평가는 44.4%를 기록하였다.

<표 57> 성별에 따른 여성친화적 환경 수준 체감도

		여성친화적 환경 수준이 높다고 느끼고 있다	여성친화적 환경 수준이 보통이라고 느끼고 있다	여성친화적 환경 수준이 낮다고 느끼고 있다	전체
남성	빈도(명)	1	42	71	114
	남성 중 %	0.9%	36.8%	62.3%	100.0%
	전체 %	0.3%	11.2%	18.9%	30.3%
여성	빈도(명)	4	120	138	262
	여성 중 %	1.5%	45.8%	52.7%	100.0%
	전체 %	1.1%	31.9%	36.7%	69.7%
전체	빈도(명)	5	162	209	376
	전체 %	1.3%	43.1%	55.6%	100.0%

성별에 따른 여성친화적 환경 수준에 대한 평가와 인식은 남성의 경우, 여성친화적 환경 수준이 높다고 느끼고 있다 1명, 여성 친화적 환경 수준이 보통이라고 느끼고 있다 42명(36.8%), 여성친화적 환경 수준이 낮다고 느끼고 있다 71명(62.3%)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여성친화적 환경 수준이 높다고 느끼고 있다 4명(1.5%), 여성친화적 환경 수준이 보통이라고 느끼고 있다 120명(45.8%), 여성친화적 환경수준이 낮다고 느끼고 있다 138명(52.7%)으로 파악되었다. 광주광역시가 여성친화적 환경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남성 37.7%, 여성 47.3%를 기록하여, 여성이 남성보다 긍정적 인식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58> 연령에 따른 여성친화적 환경 수준 체감도

		여성친화적 환경 수준이 높다고 느끼고 있다	여성친화적 환경 수준이 보통이라고 느끼고 있다	여성친화적 환경 수준이 낮다고 느끼고 있다	전체
50대 이상	빈도(명)	2	49	65	116
	50대 이상 중 %	1.7%	42.2%	56.0%	100.0%
	전체 %	0.5%	13.0%	17.3%	30.9%
50대 미만	빈도(명)	3	113	144	260
	50대 미만 중 %	1.2%	43.5%	55.4%	100.0%
	전체 %	0.8%	30.1%	38.3%	69.1%
전체	빈도(명)	5	162	209	376

	전체 %	1.3%	43.1%	55.6%	100.0%
--	------	------	-------	-------	--------

연령에 따른 여성친화적 환경 수준 체감도는 50대 이상의 경우, 여성친화적 환경 수준이 높다고 느끼고 있다 2명(1.7%), 여성친화적 환경 수준이 보통이라고 느끼고 있다 49명(42.2%), 여성친화적 환경 수준이 낮다고 느끼고 있다 65명(56.0%)로 나타났으며, 50대 미만은 여성친화적 환경수준이 높다고 느끼고 있다 3명(1.2%), 여성친화적 환경 수준이 보통이라고 느끼고 있다 113명(43.5%), 여성친화적 환경수준이 낮다고 느끼고 있다 144명(55.4%)으로 조사되었다. 긍정적 평가는 50대 미만(44.7%)이 50대 이상(43.9%)보다 조금 높게 나왔다.

<표 59> 직장유무에 따른 여성친화적 환경 수준 체감도

		여성친화적 환경 수준이 높다고 느끼고 있다	여성친화적 환경 수준이 보통이라고 느끼고 있다	여성친화적 환경 수준이 낮다고 느끼고 있다	전체
직장인	빈도(명)	4	104	141	249
	직장인 중 %	1.6%	41.8%	56.6%	100.0%
	전체 %	1.1%	27.7%	37.5%	66.2%
비직장인	빈도(명)	1	58	68	127
	비직장인 중 %	0.8%	45.7%	53.5%	100.0%
	전체 %	0.3%	15.4%	18.1%	33.8%
전체	빈도(명)	5	162	209	376
	전체 %	1.3%	43.1%	55.6%	100.0%

직장을 다니고 있는 경우, 다니지 않는 경우에 따라서 여성친화적 환경 수준 체감도를 살펴보면, 직장인은 여성친화적 환경수준이 높다고 느끼고 있다 4명(1.6%), 여성친화적 환경수준이 보통이라고 느끼고 있다 104명(41.8%), 여성친화적 환경수준이 낮다고 느끼고 있다 141명(56.6%)으로 나타났으며, 비직장인은 여성친화적 환경 수준이 높다고 느끼고 있다 1명(0.8%), 여성친화적 환경 수준이 보통이라고 느끼고 있다 58명(45.7%), 여성친화적 환경 수준이 낮다고 느끼고 있다 68명(53.5%)이었다.

<표 60> 여성친화적 환경 수준 체감도 T-검정

		N	기술통계량		T-검정		
			평균	표준편차	t	(양쪽) 유의확률	차이의 95% 신뢰구간
성별	남성	114	1.39	0.51	-1.747	0.082	(-0.22, 0.01)
	여성	262	1.49	0.53			
연령	50대 이상	116	1.46	0.53	-0.014	0.989	(-0.116, 0.115)
	50대 미만	260	1.46	0.52			
직장유무	직장인	249	1.45	0.53	-0.395	0.693	(-0.14, 0.09)
	비직장인	127	1.48	0.52			

*는 유의수준 p<.05에서 유의함.

광주광역시의 여성친화적 환경이 어느 정도라고 느끼는지에 대하여, 여성친화적 환경 수준이 높다고 느끼고 있다 3점, 여성친화적 환경 수준이 보통이라고 느끼고 있다 2점, 여성친화적 환경 수준이 낮다고 느끼고 있다 1점으로 구성하여 3점 척도화시킨 후 독립표본 T-검정을 시행한 결과, 성별, 연령, 직장유무와 관련하여 통계학적 의미의 집단 간 차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바. 광주광역시 대표 도시 브랜드 선호도

4. 광주광역시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도시 이미지가 형성되었거나 형성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다음 중 ‘광주’라는 도시가 외부에 어떻게 알려지는 것이 도시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중 5가지만 골라 ○로 표시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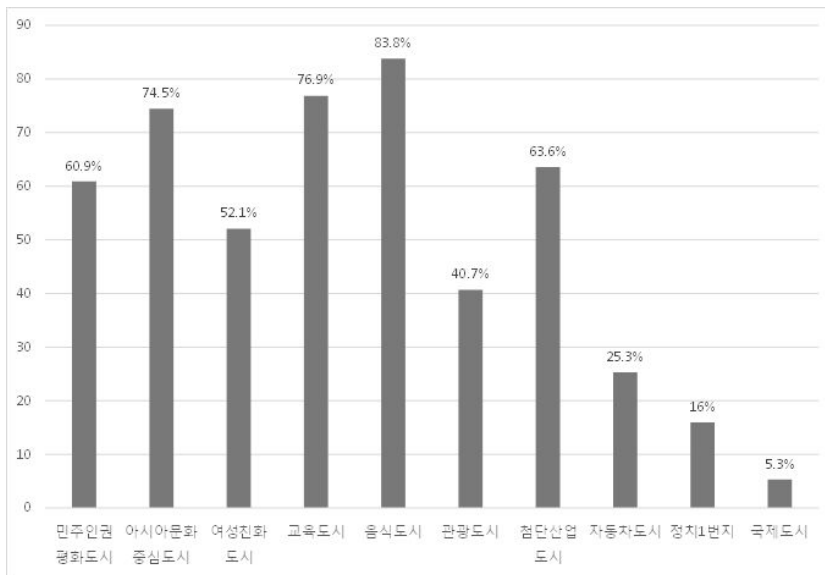
1) 민주인권평화도시 () 2) 아시아문화중심도시 () 3) 여성친화도시 ()
 4) 교육도시 () 5) 음식도시 () 6) 관광도시 ()
 7) 첨단산업도시 () 8) 자동차도시 () 9) 정치1번지 ()
 10) 국제도시 ()

<표 61> 광주광역시 대표 도시 브랜드 선호도

	응답		케이스 퍼센트(%)
	N(건)	퍼센트(%)	
민주인권평화도시	229	12.2%	60.9%
아시아문화중심도시	280	14.9%	74.5%
여성친화도시	196	10.4%	52.1%
교육도시	289	15.4%	76.9%
음식도시	315	16.8%	83.8%
관광도시	153	8.2%	40.7%
첨단산업도시	239	12.7%	63.6%
자동차도시	95	5.1%	25.3%
정치1번지	60	3.2%	16.0%
국제도시	20	1.1%	5.3%
합계	1,876	100.0%	498.9%

주: 복수응답 항목으로 구성비(케이스 퍼센트)가 100.0을 초과함. 각 비율(케이스 퍼센트)은 각 항목별 응답수를 응답자 계(376명)로 나누고 100을 곱하여 구한 것임.

[그림 30] 광주광역시 대표 도시 브랜드 선호도



광주광역시를 대표하는 도시 브랜드 선호도 조사의 복수응답 결과는 전체 응답자의 응답 건수 기준으로, 음식도시(83.8%), 교육도시(76.9%), 아시아문화중심도시(74.5%), 첨단산업도시(63.6%), 민주인권평화도시(60.9%), 여성친화도시(52.1%), 관광도시(40.7%), 자동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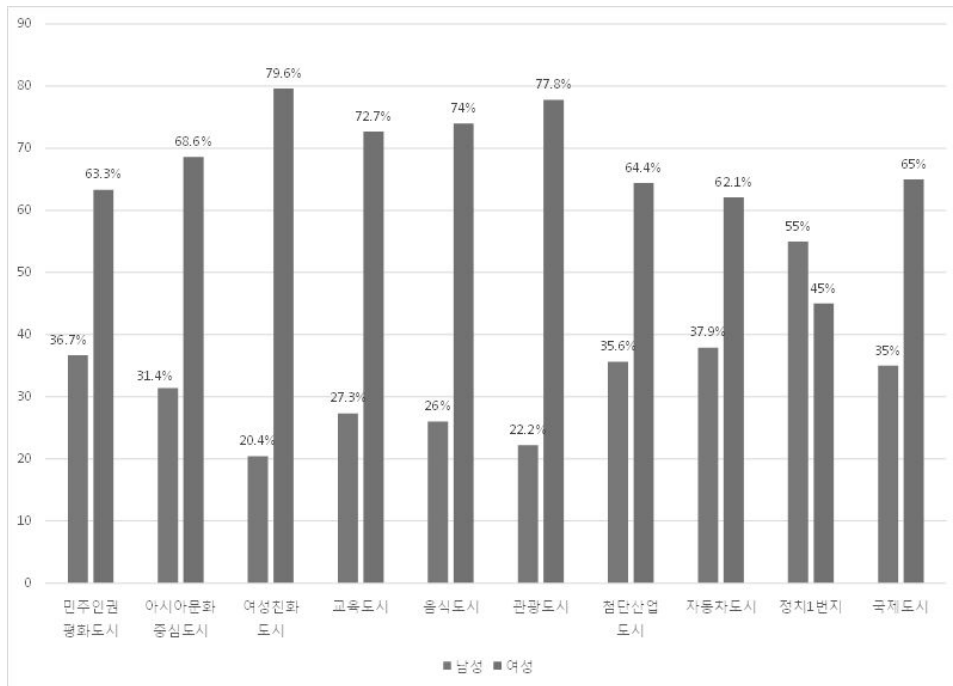
도시(25.3%), 정치1번지(16.0%), 국제도시(5.3%)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여성친화도시는 전체 응답 건수(1,876건)의 응답 수 기준으로는 196건, 비율로는 10.4%를 차지하였다.

<표 62> 성별에 따른 광주광역시 대표 도시 브랜드 선호도

		남성	여성	합계
민주인권평화도시	총계	84	145	229
	브랜드 비중 %	36.7%	63.3%	
	전체 중 %	22.3%	38.6%	60.9%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총계	88	192	280
	브랜드비중 %	31.4%	68.6%	
	전체 중 %	23.4%	51.1%	74.5%
여성친화도시	총계	40	156	196
	브랜드 비중 %	20.4%	79.6%	
	전체 중 %	10.6%	41.5%	52.1%
교육도시	총계	79	210	289
	브랜드 비중 %	27.3%	72.7%	
	전체 중 %	21.0%	55.9%	76.9%
음식도시	총계	82	233	315
	브랜드비중 %	26.0%	74.0%	
	전체 중 %	21.8%	62.0%	83.8%
관광도시	총계	34	119	153
	브랜드 비중 %	22.2%	77.8%	
	전체 중 %	9.0%	31.6%	40.7%
첨단산업도시	총계	85	154	239
	브랜드 비중 %	35.6%	64.4%	
	전체 중 %	22.6%	41.0%	63.6%
자동차도시	총계	36	59	95
	브랜드 비중 %	37.9%	62.1%	
	전체 중 %	9.6%	15.7%	25.3%
정치1번지	총계	33	27	60
	브랜드 비중 %	55.0%	45.0%	
	전체 중 %	8.8%	7.2%	16.0%
국제도시	총계	7	13	20
	브랜드 비중 %	35.0%	65.0%	
	전체 중 %	1.9%	3.5%	5.3%
합계	총계	114	262	376
	전체 중 %	30.3%	69.7%	100.0%

주: 복수응답 항목으로 구성비가 100.0을 초과함. 각 비율은 각 항목별 응답수를 응답자 계로 나누고 100을 곱하여 구한 것임.

[그림 31] 성별에 따른 광주광역시 대표 도시 브랜드 선호도



성별에 따른 광주광역시 도시 브랜드의 절대적 선호도는 남성의 경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88명(23.4%), 첨단산업도시 85명(22.6%), 민주인권평화도시 84명(22.3%)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는 음식도시 233명(62.0%), 교육도시 210명(55.9%), 아시아문화중심도시 192명(51.1%), 여성친화도시 156명(41.5%)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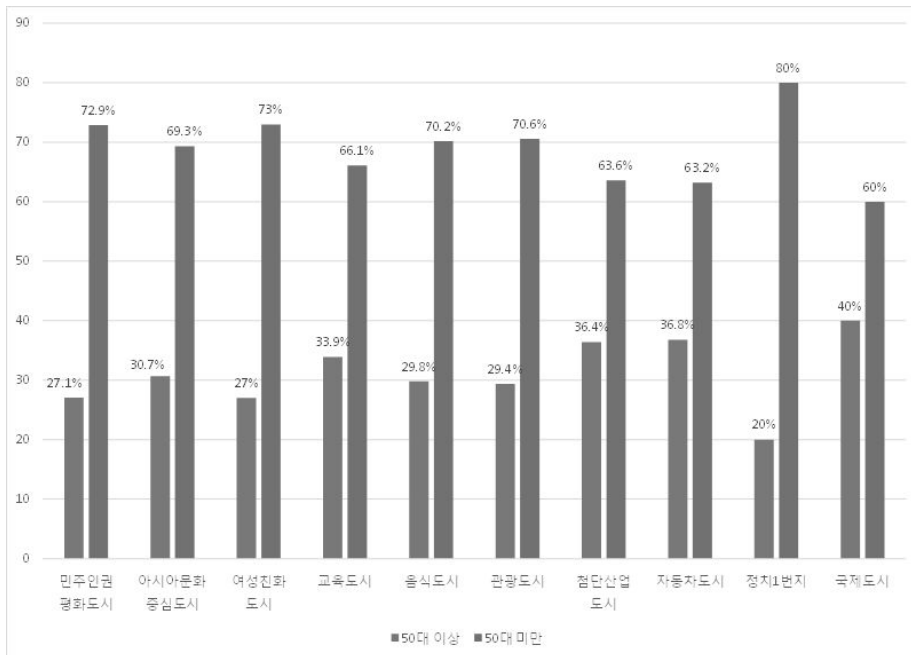
성별 대비 광주광역시 도시 각 브랜드의 상대적 선호도는 남성의 경우, 정치1번지(55.0%), 자동차도시(37.9%), 민주인권평화도시(36.7%), 첨단산업도시(35.6%), 국제도시(35.0%), 아시아문화중심도시(31.4%), 교육도시(27.3%), 음식도시(26.0%), 관광도시(22.2%), 여성친화도시(20.4%)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반면 여성은 여성친화도시(79.6%), 관광도시(77.8%), 음식도시(74.0%), 교육도시(72.7%), 아시아문화중심도시(68.6%), 국제도시(65.0%), 첨단산업도시(64.4%), 민주인권평화도시(63.3%), 자동차도시(62.1%), 정치1번지(45.0%)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브랜드 선호도의 성차에 있어, 남성은 정치1번지'를 여성은 '여성친화도시'를 상대적으로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63> 연령에 따른 광주광역시 대표 도시 브랜드 선호도

		50대 이상	50대 미만	합계
민주인권평화도시	총계	62	167	229
	브랜드 비중 %	27.1%	72.9%	
	전체 중 %	16.5%	44.4%	60.9%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총계	86	194	280
	브랜드비중 %	30.7%	69.3%	
	전체 중 %	22.9%	51.6%	74.5%
여성친화도시	총계	53	143	196
	브랜드 비중 %	27.0%	73.0%	
	전체 중 %	14.1%	38.0%	52.1%
교육도시	총계	98	191	289
	브랜드 비중 %	33.9%	66.1%	
	전체 중 %	26.1%	50.8%	76.9%
음식도시	총계	94	221	315
	브랜드비중 %	29.8%	70.2%	
	전체 중 %	25.0%	58.8%	83.8%
관광도시	총계	45	108	153
	브랜드 비중 %	29.4%	70.6%	
	전체 중 %	12.0%	28.7%	40.7%
첨단산업도시	총계	87	152	239
	브랜드 비중 %	36.4%	63.6%	
	전체 중 %	23.1%	40.4%	63.6%
자동차도시	총계	35	60	95
	브랜드 비중 %	36.8%	63.2%	
	전체 중 %	9.3%	16.0%	25.3%
정치1번지	총계	12	48	60
	브랜드 비중 %	20.0%	80.0%	
	전체 중 %	3.2%	12.8%	16.0%
국제도시	총계	8	12	20
	브랜드 비중 %	40.0%	60.0%	
	전체 중 %	2.1%	3.2%	5.3%
합계	총계	116	260	376
	전체 중 %	30.9%	69.1%	100.0%

주: 복수응답 항목으로 구성비가 100.0을 초과함. 각 비율은 각 항목별 응답수를 응답자 계로 나누고 100을 곱하여 구한 것임.

[그림 32] 연령에 따른 광주광역시 대표 도시 브랜드 선호도



연령에 따른 광주광역시 도시 브랜드의 선호도는 50대 이상의 경우, 교육도시 98명(33.9%), 음식도시 94명(29.8%), 첨단산업도시 87명(23.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86명(22.9%)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50대 미만의 경우는 음식도시 221명(58.8%), 아시아문화중심도시 194명(51.6%), 교육도시 191명(50.8%), 민주인권평화도시 167명(72.9%)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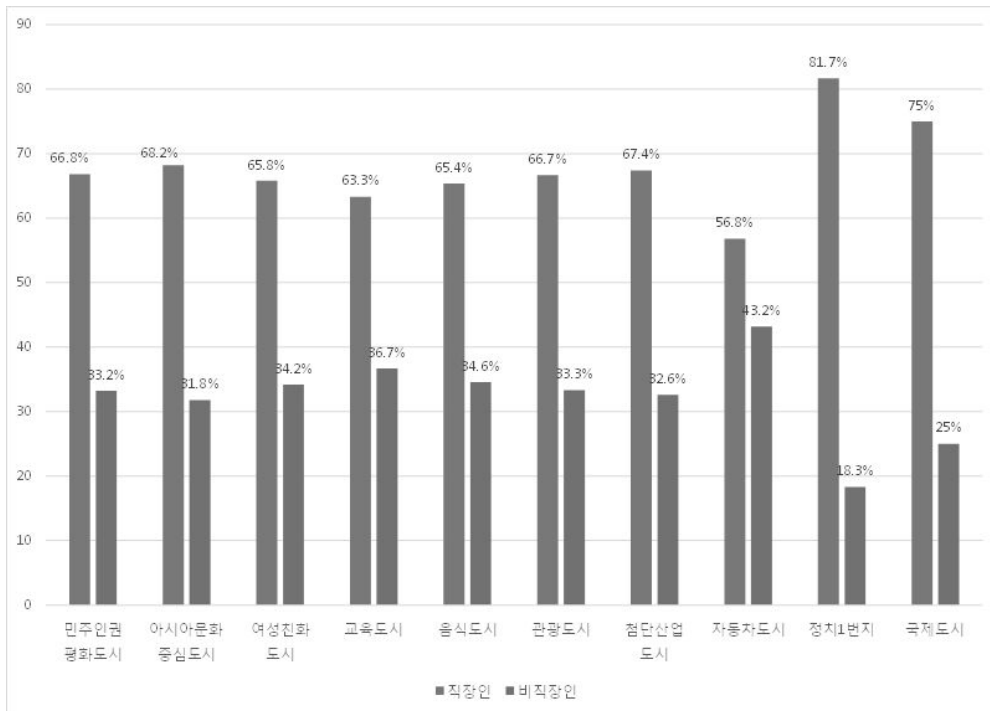
50대 이상, 50대 미만 연령 대비 광주 도시 각 브랜드의 상대적 선호도는 50대 이상의 경우, 국제도시(40.0%), 자동차도시(36.8%), 첨단산업도시(36.4%), 교육도시(33.9%), 아시아문화중심도시(30.7%), 음식도시(29.8%), 관광도시(29.4%), 민주인권평화도시(27.1%), 여성친화도시(27.0%), 정치1번지(20.0%) 순으로 나타났으며, 반면에 50대 미만은 이와 반대로, 정치1번지(80.0%), 여성친화도시(73.0%), 민주인권평화도시(72.9%), 관광도시(70.6%), 음식도시(70.2%), 아시아문화중심도시(69.3%), 교육도시(66.1%), 첨단산업도시(63.6%), 자동차도시(63.2%), 국제도시(60.0%)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각 브랜드에 대한 연령대 차원의 선호도는 50대 이상의 경우는 국제도시를 50대 미만은 정치1번지를 상대적으로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64> 직장유무에 따른 광주광역시 대표 도시 브랜드 선호도

		직장인	비직장인	합계
민주인권평화도시	총계	153	76	229
	브랜드 비중 %	66.8%	33.2%	
	전체 중 %	40.7%	20.2%	60.9%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총계	191	89	280
	브랜드 비중 %	68.2%	31.8%	
	전체 중 %	50.8%	23.7%	74.5%
여성친화도시	총계	129	67	196
	브랜드 비중 %	65.8%	34.2%	
	전체 중 %	34.3%	17.8%	52.1%
교육도시	총계	183	106	289
	브랜드 비중 %	63.3%	36.7%	
	전체 중 %	48.7%	28.2%	76.9%
음식도시	총계	206	109	315
	브랜드 비중 %	65.4%	34.6%	
	전체 중 %	54.8%	29.0%	83.8%
관광도시	총계	102	51	153
	브랜드 비중 %	66.7%	33.3%	
	전체 중 %	27.1%	13.6%	40.7%
첨단산업도시	총계	161	78	239
	브랜드 비중 %	67.4%	32.6%	
	전체 중 %	42.8%	20.7%	63.6%
자동차도시	총계	54	41	95
	브랜드 비중 %	56.8%	43.2%	
	전체 중 %	14.4%	10.9%	25.3%
정치1번지	총계	49	11	60
	브랜드 비중 %	81.7%	18.3%	
	전체 중 %	13.0%	2.9%	16.0%
국제도시	총계	15	5	20
	브랜드 비중 %	75.0%	25.0%	
	전체 중 %	4.0%	1.3%	5.3%
합계	총계	249	127	376
	전체 중 %	66.2%	33.8%	100.0%

주: 복수응답 항목으로 구성비가 100.0을 초과함. 각 비율은 각 항목별 응답수를 응답자 계로 나누고 100을 곱하여 구한 것임.

[그림 33] 직장유무에 따른 광주광역시 대표 도시 브랜드 선호도



직장유무에 따른 광주 도시 브랜드의 선호도는 직장인의 경우, 음식도시 206명 (54.8%), 아시아문화중심도시 191명(50.8%), 교육도시 183명(48.7%), 민주인권평화도시 153명(40.7%)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비직장인의 경우는 음식도시 109명 (29.0%), 교육도시 106명(28.2%), 아시아문화중심도시 89명(23.7%), 첨단산업도시 78명(20.7%)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직장유무에 따른 광주광역시 대표 도시 브랜드 각각의 상대적 선호도는 직장인의 경우, 정치1번지(81.7%), 국제도시(75.0%), 아시아문화중심도시(68.2%), 첨단산업도시 (67.4%), 민주인권평화도시(66.8%), 관광도시(66.7%), 여성친화도시(65.8%), 음식도시(65.4%), 교육도시(63.3%), 자동차도시(56.8%) 순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비직장인은 자동차도시(43.2%), 교육도시(36.7%), 음식도시(34.6%), 여성친화도시(34.2%), 관광도시(33.3%), 민주인권평화도시(33.2%), 첨단산업도시(32.6%), 아시아문화중심도시 (31.8%), 국제도시(25.0%), 정치1번지(18.3%)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각 브랜드에 대한 직장유무 차원의 선호도는 직장인은 정치1번지를 비직장인은 자동차도시를 상대적으로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사. 광주광역시의 대표 유·무형 자산 선호도

5. 광주광역시민으로서 광주의 유·무형의 자산 중 어떤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중 5가지만 골라 ○로 표시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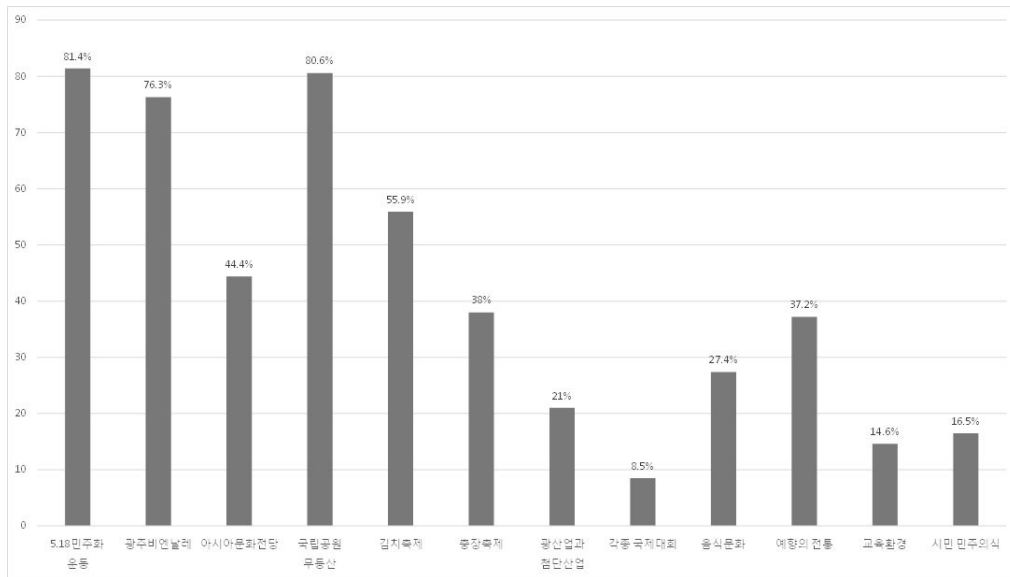
1) 5·18민주화운동 () 2) 광주비엔날레 () 3) 아시아문화전당 ()
 4) 국립공원 무등산 () 5) 김치축제 () 6) 충장축제 ()
 7) 광산업과 첨단산업 () 8) 각종 국제대회 () 9) 음식문화 ()
 10) 예향의 전통 () 11) 교육환경 () 12) 시민 민주 의식 ()

<표 65> 광주광역시의 대표 유·무형 자산 선호도

	응답		케이스 퍼센트(%)
	N(건)	퍼센트(%)	
5.18민주화운동	306	16.2%	81.4%
광주비엔날레	287	15.2%	76.3%
아시아문화전당	167	8.9%	44.4%
국립공원 무등산	303	16.1%	80.6%
김치축제	210	11.1%	55.9%
충장축제	143	7.6%	38.0%
광산업과 첨단산업	79	4.2%	21.0%
각종 국제대회	32	1.7%	8.5%
음식문화	103	5.5%	27.4%
예향의 전통	140	7.4%	37.2%
교육환경	55	2.9%	14.6%
시민 민주 의식	62	3.3%	16.5%
합계	1,887	100.0%	501.9%

주: 복수응답 항목으로 구성비(케이스 퍼센트)가 100.0을 초과함. 각 비율(케이스 퍼센트)은 각 항목별 응답수를 응답자 계(376명)로 나누고 100을 곱하여 구한 것임.

[그림 34] 광주광역시의 대표 유·무형 자산 선호도



광주광역시를 대표하는 유·무형의 자산 중 선호하는 것에 대하여 5가지를 선택하는 조사의 응답 결과는 전체 응답자의 응답 건수 기준으로, 5·18민주화운동(81.4%), 국립공원 무등산(80.6%), 광주비엔날레(76.3%), 김치축제(55.9%), 아시아문화전당(44.4%), 총장축제(38.0%), 예향의 전통(37.2%), 음식문화(27.4%), 광산업과 첨단산업(21.0%), 시민 민주의식(16.5%), 교육환경(14.6%), 각종 국제대회(8.5%)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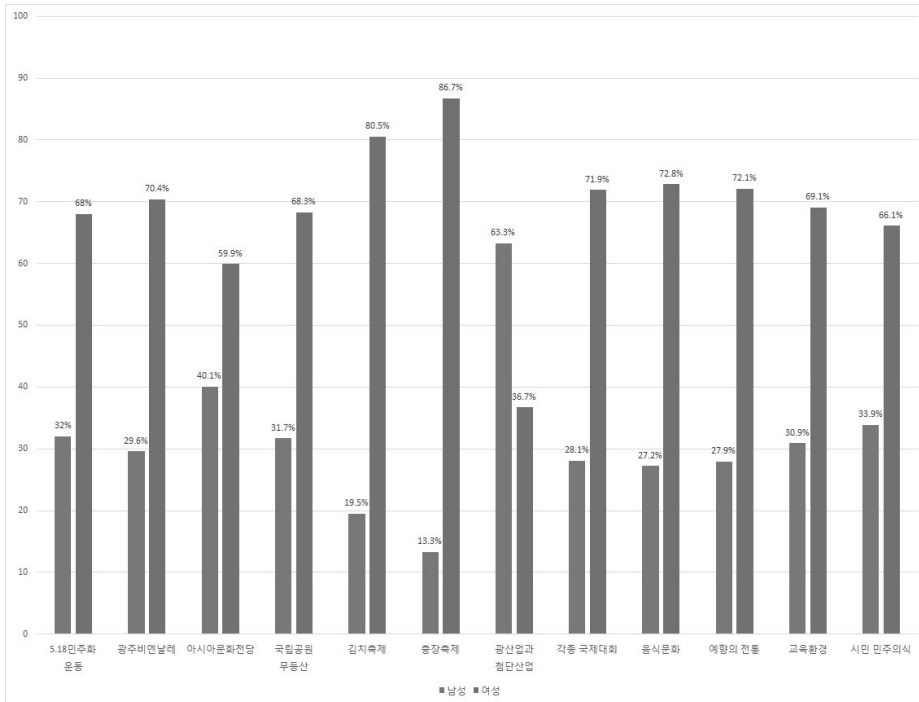
<표 66> 성별에 따른 광주광역시의 대표 유·무형 자산 선호도

		남성	여성	합계
5.18민주화운동	총계	98	208	306
	선호도 비중 %	32.0%	68.0%	
	전체 중 %	26.1%	55.3%	81.4%
광주비엔날레	총계	85	202	287
	선호도 비중 %	29.6%	70.4%	
	전체 중 %	22.6%	53.7%	76.3%
아시아문화전당	총계	67	100	167
	선호도 비중 %	40.1%	59.9%	
	전체 중 %	17.8%	26.6%	44.4%
국립공원 무등산	총계	96	207	303

	선호도 비중 %	31.7%	68.3%	
	전체 중 %	25.5%	55.1%	80.6%
김치축제	총계	41	169	210
	선호도 비중 %	19.5%	80.5%	
	전체 중 %	10.9%	44.9%	55.9%
충장축제	총계	19	124	143
	선호도 비중 %	13.3%	86.7%	
	전체 중 %	5.1%	33.0%	38.0%
광산업과 첨단산업	총계	50	29	79
	선호도 비중 %	63.3%	36.7%	
	전체 중 %	13.3%	7.7%	21.0%
각종 국제대회	총계	9	23	32
	선호도 비중 %	28.1%	71.9%	
	전체 중 %	2.4%	6.1%	8.5%
음식문화	총계	28	75	103
	선호도 비중 %	27.2%	72.8%	
	전체 중 %	7.4%	19.9%	27.4%
예향의 전통	총계	39	101	140
	선호도 비중 %	27.9%	72.1%	
	전체 중 %	10.4%	26.9%	37.2%
교육환경	총계	17	38	55
	선호도 비중 %	30.9%	69.1%	
	전체 중 %	4.5%	10.1%	14.6%
시민 민주의식	총계	21	41	62
	선호도 비중 %	33.9%	66.1%	
	전체 중 %	5.6%	10.9%	16.5%
합계	총계	114	262	376
	전체 중 %	30.3%	69.7%	100.0%

주: 복수응답 항목으로 구성비가 100.0을 초과함. 각 비율은 각 항목별 응답수를 응답자 계로 나누고 100을 곱하여 구한 것임.

[그림 35] 성별에 따른 광주광역시의 대표 유·무형 자산 선호도



성별에 따른 광주광역시의 대표 유·무형 자산에 대한 절대적 선호도는 남성의 경우, 5·18민주화운동 98명(26.1%), 국립공원 무등산 96명(25.5%), 광주비엔날레 85명(22.6%), 아시아문화전당 67명(17.8%)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는 5·18민주화운동 208명(55.3%), 국립공원 무등산 207명(55.1%), 광주비엔날레 202명(53.7%), 김치축제 169명(44.9%)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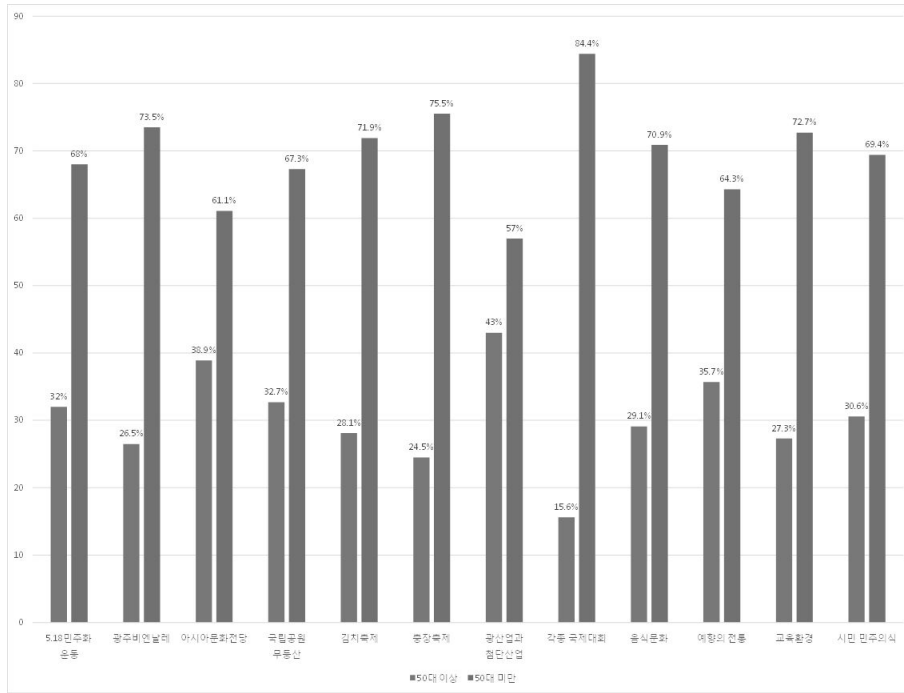
성별 대비 광주광역시의 대표 유·무형 자산에 대한 상대적 선호도는 남성의 경우, 광산업과 첨단산업(63.3%), 아시아문화전당(40.1%), 시민 민주의식(33.9%), 5·18민주화운동(32.0%), 국립공원 무등산(31.7%), 교육환경(30.9%), 광주비엔날레(29.6%), 각종 국제대회(28.1%), 예향의 전통(27.9%), 음식문화(27.2%), 김치축제(19.5%), 총장축제(13.3%) 순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여성은 반대로 총장축제(86.7%) 김치축제(80.5%), 음식문화(72.8%), 예향의 전통(72.1%), 각종 국제대회(71.9%), 광주비엔날레(70.4%), 교육환경(69.1%), 국립공원 무등산(68.3%), 5·18민주화운동(68.0%), 시민 민주의식(66.1%), 아시아문화전당(59.9%), 광산업과 첨단산업(36.7%) 순으로 비율을 보였다.

<표 67> 연령에 따른 광주광역시의 대표 유·무형 자산 선호도

		50대 이상	50대 미만	합계
5.18민주화운동	총계	98	208	306
	선호도 비중 %	32.0%	68.0%	
	전체 중 %	26.1%	55.3%	81.4%
광주비엔날레	총계	76	211	287
	선호도 비중 %	26.5%	73.5%	
	전체 중 %	20.2%	56.1%	76.3%
아시아문화전당	총계	65	102	167
	선호도 비중 %	38.9%	61.1%	
	전체 중 %	17.3%	27.1%	44.4%
국립공원 무등산	총계	99	204	303
	선호도 비중 %	32.7%	67.3%	
	전체 중 %	26.3%	54.3%	80.6%
김치축제	총계	59	151	210
	선호도 비중 %	28.1%	71.9%	
	전체 중 %	15.7%	40.2%	55.9%
총장축제	총계	35	108	143
	선호도 비중 %	24.5%	75.5%	
	전체 중 %	9.3%	28.7%	38.0%
광산업과 첨단산업	총계	34	45	79
	선호도 비중 %	43.0%	57.0%	
	전체 중 %	9.0%	12.0%	21.0%
각종 국제대회	총계	5	27	32
	선호도 비중 %	15.6%	84.4%	
	전체 중 %	1.3%	7.2%	8.5%
음식문화	총계	30	73	103
	선호도 비중 %	29.1%	70.9%	
	전체 중 %	8.0%	19.4%	27.4%
예향의 전통	총계	50	90	140
	선호도 비중 %	35.7%	64.3%	
	전체 중 %	13.3%	23.9%	37.2%
교육환경	총계	15	40	55
	선호도 비중 %	27.3%	72.7%	
	전체 중 %	4.0%	10.6%	14.6%
시민 민주 의식	총계	19	43	62
	선호도 비중 %	30.6%	69.4%	
	전체 중 %	5.1%	11.4%	16.5%
합계	총계	116	260	376
	전체 중 %	30.9%	69.1%	100.0%

주: 복수응답 항목으로 구성비가 100.0을 초과함. 각 비율은 각 항목별 응답수를 응답자 계로 나누고 100을 곱하여 구한 것임.

[그림 36] 연령에 따른 광주광역시의 대표 유·무형 자산 선호도



연령에 따른 광주광역시 대표 유·무형 자산에 대한 절대적인 선호도는 50대 이상의 경우, 국립공원 무등산 99명(26.3%), 5·18민주화운동 98명(26.1%), 광주비엔날레 76명(20.2%), 아시아문화전당 65명(17.3%) 등의 순으로 응답이 나왔으며, 50대 미만은 광주비엔날레 211명(56.1%), 5·18민주화운동 208명(55.3%), 국립공원 무등산 204명(54.3%), 김치축제 151명(40.2%)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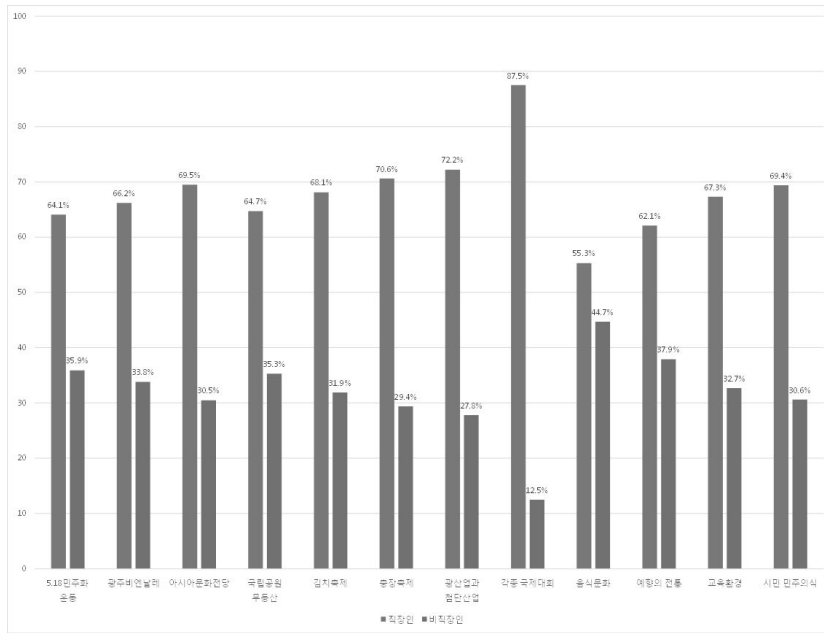
50대 이상, 50대 미만 연령 대비 광주광역시 대표 유·무형 자산에 대한 상대적 선호도는 50대 이상의 경우, 광산업과 첨단산업(43.0%), 아시아문화전당(38.9%), 예향의 전통(35.7%), 국립공원 무등산(32.7%), 5·18민주화운동(32.0%), 시민 민주의식(30.6%), 음식문화(29.1%), 김치축제(28.1%), 광주비엔날레(26.5%), 교육환경(27.3%), 총장축제(24.5%), 각종 국제대회(15.6%) 순으로 나타났으며, 반대로 50대 미만은 각종 국제대회(84.4%), 총장축제(75.5%), 광주비엔날레(73.5%), 교육환경(72.7%), 김치축제(71.9%), 음식문화(70.9%), 시민 민주의식(69.4%), 5·18민주화운동(68.0%), 국립공원 무등산(67.3%), 예향의 전통(64.3%), 아시아문화전당(61.1%), 광산업과 첨단산업(57.0%) 순으로 나타났다.

<표 68> 직업유무에 따른 광주광역시의 대표 유·무형 자산 선호도

		직장인	비직장인	합계
5.18민주화운동	총계	196	110	306
	선호도 비중 %	64.1%	35.9%	
	전체 중 %	52.1%	29.3%	81.4%
광주비엔날레	총계	190	97	287
	선호도 비중 %	66.2%	33.8%	
	전체 중 %	50.5%	25.8%	76.3%
아시아문화전당	총계	116	51	167
	선호도 비중 %	69.5%	30.5%	
	전체 중 %	30.9%	13.6%	44.4%
국립공원 무등산	총계	196	107	303
	선호도 비중 %	64.7%	35.3%	
	전체 중 %	52.1%	28.5%	80.6%
김치축제	총계	143	67	210
	선호도 비중 %	68.1%	31.9%	
	전체 중 %	38.0%	17.8%	55.9%
총장축제	총계	101	42	143
	선호도 비중 %	70.6%	29.4%	
	전체 중 %	26.9%	11.2%	38.0%
광산업과 첨단산업	총계	57	22	79
	선호도 비중 %	72.2%	27.8%	
	전체 중 %	15.2%	5.9%	21.0%
각종 국제대회	총계	28	4	32
	선호도 비중 %	87.5%	12.5%	
	전체 중 %	7.4%	1.1%	8.5%
음식문화	총계	57	46	103
	선호도 비중 %	55.3%	44.7%	
	전체 중 %	15.2%	12.2%	27.4%
예향의 전통	총계	87	53	140
	선호도 비중 %	62.1%	37.9%	
	전체 중 %	23.1%	14.1%	37.2%
교육환경	총계	37	18	55
	선호도 비중 %	67.3%	32.7%	
	전체 중 %	9.8%	4.8%	14.6%
시민 민주의식	총계	43	19	62
	선호도 비중 %	69.4%	30.6%	
	전체 중 %	11.4%	5.1%	16.5%
합계	총계	249	127	376
	선호도 비중 %	66.2%	33.8%	
	전체 중 %	66.2%	33.8%	100.0%

주: 복수응답 항목으로 구성비가 100.0을 초과함. 각 비율은 각 항목별 응답수를 응답자 계로 나누고 100을 곱하여 구한 것임.

[그림 37] 직업유무에 따른 광주광역시 대표 유·무형 자산 선호도



직장유무에 따른 광주광역시 대표 유·무형 자산의 절대적 선호도는 직장인의 경우, 5·18민주화운동과 국립공원 무등산이 각각 196명(52.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광주비엔날레 190명(50.5%), 김치축제 143명(38.0%) 등의 순으로 선호도를 보였다. 비직장인은 5·18민주화운동 110명(29.3%), 국립공원 무등산 107명(28.5%), 광주비엔날레 97명(25.8%), 김치축제 67명(17.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직장유무에 따른 광주 대표 유·무형 자산의 상대적 선호도는 직장인의 경우, 각종 국제대회(87.5%), 광산업과 첨단산업(72.2%), 총장축제(70.6%), 아시아문화전당(69.5%), 시민 민주주의식(69.4%), 김치축제(68.1%), 교육환경(67.3%), 광주비엔날레(66.2%), 국립공원 무등산(64.7%), 5·18민주화운동(64.1%), 예향의 전통(62.1%), 음식문화(55.3%) 순으로 나타났으며, 반대로 비직장인은 음식문화(44.7%), 예향의 전통(37.9%), 5·18민주화운동(35.9%), 국립공원 무등산(35.3%), 광주비엔날레(33.8%), 교육환경(32.7%), 김치축제(31.9%), 시민 민주주의식(30.6%), 아시아문화전당(30.5%), 총장축제(29.4%), 광산업과 첨단산업(27.8%), 각종 국제대회(12.5%) 순으로 나타났다.

아. 인지도와 여성친화적 환경 체감도

<표 69> 인지도와 여성친화적 환경 체감도

		여성친화적 환경 수준이 높다고 느끼고 있다	여성친화적 환경 수준이 보통이라고 느끼고 있다	여성친화적 환경 수준이 낮다고 느끼고 있다	전체
잘 안다	빈도(명)	2	1	2	5
	잘 안다 중 %	40.0%	20.0%	40.0%	100.0%
	전체 %	0.5%	0.3%	0.5%	1.3%
조금 안다	빈도(명)	1	43	31	75
	조금 안다 중 %	1.3%	57.3%	41.3%	100.0%
	전체 %	0.3%	11.4%	8.2%	19.9%
전혀 모른다	빈도(명)	2	118	176	296
	전혀 모른다 중 %	0.7%	39.9%	59.5%	100.0%
	전체 %	0.5%	31.4%	46.8%	78.7%
전체	빈도(명)	5	162	209	376
	전체 %	1.3%	43.1%	55.6%	100.0%

광주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인지도와 지역의 여성친화적 환경 체감도를 교차분석한 결과, 사업 인지도가 ①잘 안다의 경우, 여성친화적 환경 수준이 높다고 느끼고 있다 2명(40.0%), 여성친화적 환경수준이 보통이라고 느끼고 있다 1명(20.0%), 여성친화적 환경 수준이 낮다고 느끼고 있다 2명(40.0%)로 나타났다. ②조금 안다의 경우는 여성친화적 환경 수준이 높다고 느끼고 있다 1명(1.3%), 여성친화적 환경수준이 보통이라고 느끼고 있다 41명(57.3%), 여성친화적 환경 수준이 낮다고 느끼고 있다 31명(41.3%)로 나타났다. ③전혀 모른다의 경우, 여성친화적 환경 수준이 높다고 느끼고 있다 2명(0.7%), 여성친화적 환경수준이 보통이라고 느끼고 있다 118명(39.9%), 여성친화적 환경 수준이 낮다고 느끼고 있다 176명(59.5%)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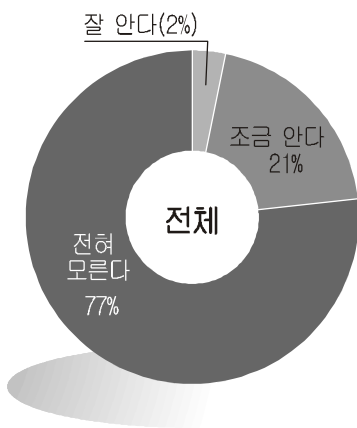
제4절 인지도와 타 항목과의 관계 분석

1. 인지도와 여성친화도시의 지역 기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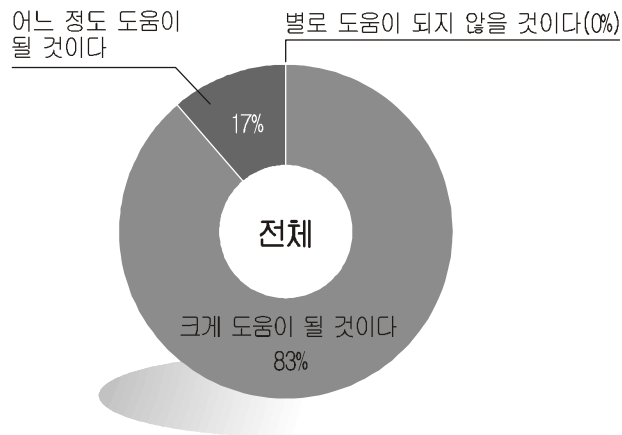
시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이 앞으로 광주광역시의 도시 이미지 개선과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26%가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64%가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다’ 1%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응답함으로써 90%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긍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인지도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77%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응답한 결과와 비교해보면 광주광역시민들은 인지도와 무관하게 ‘여성친화도시’에 대해 우호적이고 매력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성의 경우, 인지도에서 ‘전혀 모른다’가 86%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친화도시의 기여도에 대해 90% 가까운 긍정의 답변을 내놓았으며 여성의 경우 인지도에서 ‘전혀 모른다’가 74%였지만 여성친화도시 기여도에 대해서는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29%,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다’ 63%로 답변해 전체 응답자의 91% 이상이 여성친화도시에 대해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8] 여성친화도시 인지도 설문조사 결과



[그림 39] 여성친화도시 기여도 설문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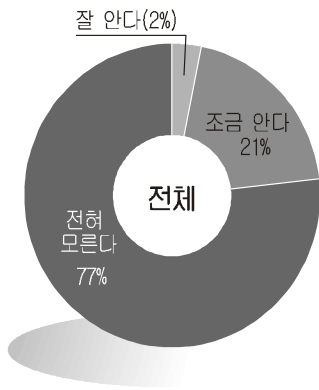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50대 이상은 ①여성친화도시 인지도에 대해 ④조금 안다. 17% ⑥전혀 모른다. 80%로 답했으며, ②여성친화도시의 지역발전 기여도에 대해서는 ④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30% ⑥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다. 62%로 긍정적인 답변이 92% 비율을 차지했다. 인지도와 비교했을 때 50대 이상 광주시민의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 비율은 매우 높은 편이다. 50대 미만은 ①여성친화도시 인지도에 대해 ④조금 안다 22% ⑥전혀 모른다' 76%로 50대 이상에 비해 인지도가 조금 높은 편이며 ②여성친화도시의 지역발전 기여도에 대해서는 ④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24% ⑥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다. 65%로 50대 이상과 마찬가지로 전체 응답자의 90% 정도가 여성친화도시에 대해 호감을 나타내고 있다.

2. 인지도와 여성친화적 환경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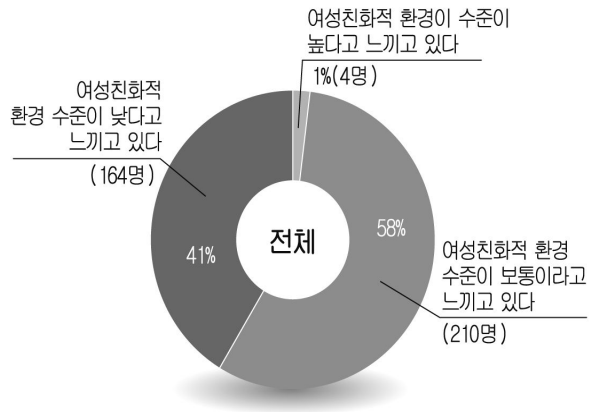
광주광역시민의 여성친화적 환경수준에 대한 평가는 '보통이다'와 '낮다'라는 응답이 대부분이었다. 조사 결과를 보면, '평소 생활하시면서 광주광역시의 여성친화적 환경이 어느 정도라고 느끼셨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1%가 여성친화적 환경 수준이 높다고 느끼고 있다. 56%가 여성친화적 환경 수준이 보통이라고 생각한다. 43%가 '여성친화적 환경 수준이 낮다고 느끼고 있다고 응답했다. 인지도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77%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응답한 결과와 비교해 보면, 광주광역시민들의 여성친화적 환경 수준에 대한 평가는 그렇게 낮은 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선행 연구인 채은주(2014)의 "광역단체의 여성친화도 평가 및 지역간 비교 분석 - 16개 시·도를 중심으로"에서 광주광역시가 전국 16개 시·도 평가에서 3위에 오른 것과 비교하면 실제 광주광역시민들의 여성친화적 환경 체감도는 그리 높지 않고 여성친화적 환경에 대한 인식도 다소 부정적임을 알 수 있다.

남성의 경우, ①인지도에서 전혀 모른다가 86%이며, ②여성친화적 환경 수준'에 대해서는 ④여성친화적 환경 수준이 보통이다. 55%, ⑥여성친화적 환경 수준이 낮다. 46%로 응답했다. 여성의 경우, ①인지도에서 전혀 모른다가 74%였고, ②여성친화적 환경 수준'에 대해서는 ④여성친화적 환경 수준이 보통이다. 43%, ⑥여성친화적 환경 수준이 낮다. 56%로 나타나 광주광역시의 여성친화적 환경 수준에 대해 남성보다 더 낮게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0] 여성친화도시 인지도
 시민 설문조사 결과



[그림 41] 여성친화적 환경 수준에 대한
 시민 설문조사 결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50대 이상은 여성친화도시 ①인지도에 대해 ②조금 안다. 17% ⑥전혀 모른다. 80%로 답했으며 ②여성친화적 환경 수준'에 대해 ④여성친화적 환경 수준이 보통이다. 45%, ⑥여성친화적 환경 수준이 낮다. 52%로 응답했다. 50대 미만의 경우 ④여성친화적 환경 수준이 보통이다. 62%, ⑥여성친화적 환경 수준이 낮다. 30%로 50대 미만에서는 다소 긍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3. 낮은 인지도와 높은 기대감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시민의 인지도는 1차적으로 이 사업의 상징성과 효율성을 가능하는 잣대가 된다. 2011년 12월, 광주광역시의 광역단위 여성친화도시 지정과 5개 자치구가 동시에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것은 당시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상당한 뉴스거리가 되었고 시민들의 관심도 높았던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 3년차에 접어든 2014년 하반기 현재,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시민 77% 이상이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전혀 모른다'고 응답한 것은 이 사업에 홍보와 참여 강화 등 근본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다만 설문조사 결과 낮은 인지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여성친화도시에 거는 기

대가 크다는 점은 사업추진의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다. 시민들은 여성친화도시에 대해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 자체에 대한 지지와 호응은 높다는 것이 설문조사 결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낮은 인지도에 비례해 시민들은 광주광역시의 여성친화적 환경 수준을 낮게 평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광주광역시와 5개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성편의 시설 관련 사업, 육아·보육 사업 등 각종 정책 사업을 직접 체험하거나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갖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석된다. 따라서 인지도 조사 결과와 이들 항목의 상관관계를 분석해보는 것은 광주시의 향후 사업 추진의 내실화를 위한 필요충분조건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인지도 조사 결과와 ‘여성친화도시의 지역발전 기여도에 대한 기대’, ‘여성친화적 환경 수준 대한 인식’ 등의 조사 결과를 비교 검토한 결과, 광주광역시민의 낮은 인지도는 범시민적, 범지역적 여성친화 문화의 확산과 질적 향상을 위해 극복해야 할 과제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이 대부분 행정과 전문가 위주의 정책 발굴과 시행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적 상황에서 일반 시민들의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인식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낮은 인지도에도 불구하고 광주광역시민들의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시민들은 광주광역시가 전국 최초 광역단위 여성친화도시라는 영예스러운 이름을 얻은 것에 대해서는 깊이 알지 못하고 여성친화도시의 구체적인 개념에 대한 이해는 부족할지라도 ‘여성친화도시 광주광역시’라는 이름에 대해서는 크게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 설문조사 결과 나타났다.

‘여성친화적 환경 수준’에 대해서는 인지도와 비례하여 ‘보통 수준’과 ‘낮은 수준’이 엇비슷하게 나타났으며 이는 시민들이 광주광역시가 추진하고 있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직·간접적 효과를 충분히 체감하지 못한 결과로 풀이된다. 그것은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만큼 광주시가 추진하는 좋은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인식이 낮을 수밖에 없고, 공감대를 형성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광주광역시민들이 광역단위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장래성과 효용성에 대해 매우 우호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광주광역시는 광역단위 지역특화사업의 발굴, 시행을 통해 기초자치단체와는 한 차원 다른 이미지를 선보일 필요가 있다. 여성친화적 환경수준에 대한 인식과 체감 부분도 시민들이 광주광역시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여성친화사업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히고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개선 가능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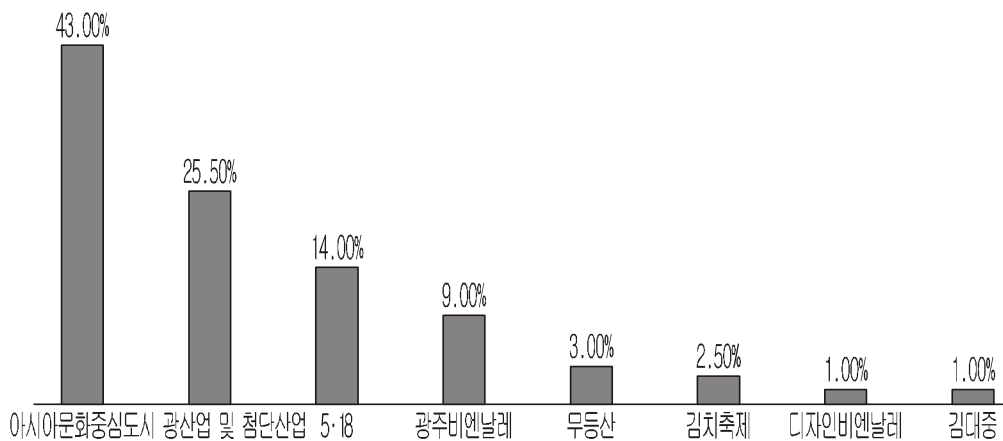
제 5절 여론조사에 따른 함의

1. 선행 연구의 조사결과

민인철 외(2010년) 연구에 따르면 당시까지 시민이 생각하는 광주광역시의 대표 브랜드는 5·18민주화운동, 광주비엔날레, 광산업 및 첨단산업,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김대중, 김치축제, 디자인비엔날레 순이었다.⁵⁷⁾

그리고 미래에 대한 광주광역시의 대표 브랜드에 대한 질문에는 [그림 42] 에서 보는 것처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산업 및 첨단산업, 5·18민주화운동, 광주비엔날레, 무등산, 김치축제, 김대중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2] 미래의 광주광역시 대표 브랜드에 대한 광주광역시민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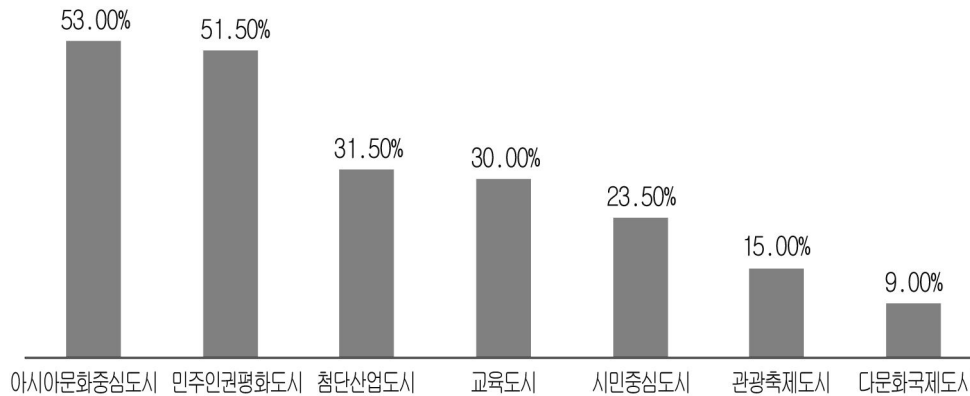
출처: 민인철 외, “광역광역시 도시브랜드 이미지 제고 전략”, 광주발전연구원, 2010. p.138

한편 광주광역시민들이 광주가 외부에 주기를 원하는 도시 이미지 조사 결과를 분석해 보면, 다음 [그림 43] 에서 보는 것처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민주인권평화도시, 첨단도시, 교육도시, 시민중심도시, 관광축제도시, 다문화국제도시 순으로 선호도가 나타났다.

⁵⁷⁾ 민인철·이난경, “광역광역시 도시브랜드 이미지 제고 전략”, 광주발전연구원, 2010.p.138.

이 조사는 4년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2014년 조사와는 다소 차이가 있고, 제시된 항목도 조금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어려운 점이 있다. 다만, 민주·인권 등 역사성과 첨단산업 등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도시 브랜드 선호도는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43] 광주광역시가 외부에 주기를 원하는 도시 이미지 조사 결과⁵⁸⁾



출처 : 민인철 외, “광역광역시 도시브랜드 이미지 제고 전략”, 광주발전연구원, 2010. p.1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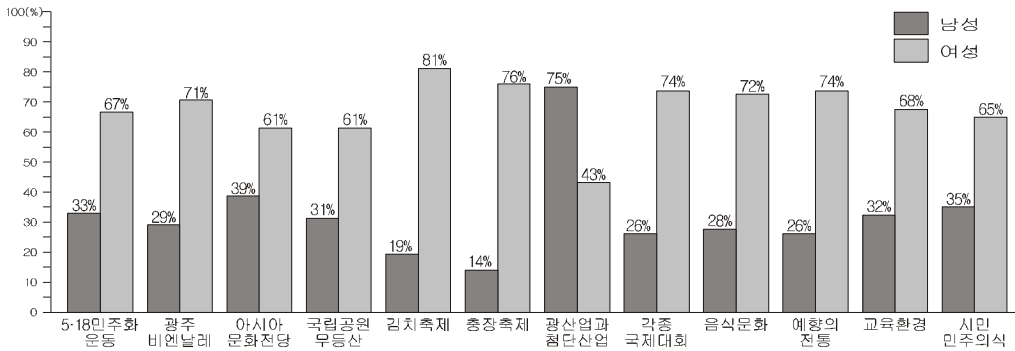
앞의 민인철 외(2010) 조사 결과를 보면 역사성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분야에 고루 선호도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본 연구의 조사결과

본 연구에서 광주광역시의 유·무형의 자산 중 도시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자산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림 43] 에서 보는 것처럼 성별, 연령별 구별 없이 전체 응답자의 답변을 분석해보면 5.18민주화운동, 국립공원 무등산, 광주비엔날레 15%, 김치축제, 아시아문화전당, 예향의 전통, 음식문화, 광산업과 첨단산업 순으로 선호도를 나타냈다.

58) 민인철 외, 앞의 논문 p.140.

[그림 44] 광주광역시의 유·무형의 자산 선호도 시민 설문조사 결과 (2014, 채명희)



본 연구(2014)와 민인철 외(2012) 연구가 시점 상 다소 차이가 있고, 설문 내용 및 방법상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큰 틀에서 광주광역시민에게 내재된 광주광역시의 대표 이미지, 대표 브랜드에 대한 인식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주로 광주광역시의 역사적 체험과 면면히 이어온 예향(藝鄕)·의향(義鄕)·미향(味鄕)과 같은 전통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본다.

본 연구와 선행 연구를 비교 검토한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광주광역시는 타 지역에서는 찾기 어려운 유·무형의 자산이 많고 이들은 도시 이미지와 도시 브랜드 가치 상승은 물론 도시 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활용 가치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각 지역마다 고유문화와 전통 등 지역 자산이 있지만 광주광역시는 우리 역사에서 독특한 위상으로 자리매김했다는 점에서 차별화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5·18민주화운동, 광주비엔날레, 아시아문화전당, 도심 가까이 우뚝 솟은 무등산, 절묘한 음식문화와 김치축제, 예향의 전통 등 광주광역시는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하고 상품화 할 수 있는 훌륭한 자원을 품고 있는 도시다.

앞으로 열리는 2015 하계U대회,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등 굵직한 국제행사도 광주광역시의 또 다른 자산으로 남게 될 것이다. 이처럼 성숙된 여건 속에서 추진된 광주광역시 여성친화도시사업은 전국 최초 광역단위 사업이라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으며 시작됐으나 시민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났듯이 현재까지는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광주광역시의 자산을 여성친화사업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일이다.

3. 여성친화도시와 광주광역시의 도시경쟁력

본 연구에서는 여성친화도시와 광주광역시의 도시 경쟁력과 상관관계를 검증해 보는 것을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삼았다. 도시 경쟁력은 1차적으로 보편화된 도시 브랜드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으며, 도시 브랜드는 해당 지역의 유·무형의 자산을 통해 형성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본 연구에서는 시민 설문조사를 통해 광주시민이 광주의 유·무형의 자산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를 측정했고 이를 토대로 광주의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어떤 도시 브랜드가 가장 영향력이 있을 것인지를 물었다.

이와 같은 조사는 광주광역시의 여성친화도시 광역형 지역특화사업 아이템 발굴을 위한 기초자료 추출을 위한 것으로 광주광역시민들이 갖고 있는 ‘광주’의 이미지 혹은 브랜드에 여성친화도시의 이미지가 더해진다면 도시 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여성친화도시’ 자체가 광주광역시의 중요한 브랜드로 자리 잡아 가고 있음을 시민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전까지의 선행연구에서 ‘여성친화도시’는 광주광역시의 브랜드 논의에 있어서나 지역 이미지 관련 논의에 있어서 거론된 적이 없다. 그 이유는 광주광역시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이 본격화된 2012년 이후에는 관련 연구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시민 설문조사를 통해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는 것은 향후 관련 연구에 하나의 시사점이 될 것이다.

도시 경쟁력과 관련 김봉진(2012)은 “도시별도 특화된 산업 또는 산업군에 기반을 두며 지속적인 도시 관리를 통한 도시 매력의 증진과 그 결과로 나타나는 도시민의 삶의 질을 증대시킬 수 있는 잠재력”으로 개념화 했다.⁵⁹⁾ 김정호(2013)는 “어떤 한 도시가 가지고 있는 생산과 삶의 질에 관계된 총체적인 역량으로 여타 도시에 대한 상대적 우위 정도라고 볼 수 있다”라고 규정했다.⁶⁰⁾ 그리고 『광주광역시 도시 경쟁력 제고 조례』에서는 “도시경쟁력"이란 도시의 경제, 문화, 환경, 시민, 인프라, 여가생활 등 도시가 지속가능발전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역량의 총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⁶¹⁾

한편 광주광역시가 2014년 5월 ‘2014 도시 경쟁력 실행과제’를 발표한 바 있는데,

59) 김봉진, “광주광역시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행 방안”, 광주발전연구원, 2012. p.5.

60) 김정호, “창조도시의 도시경쟁력 메커니즘에 관한 연구”, 도시행정학보』 제26집 제1호, 2013. p223.

61) 광주광역시의회, 『광주광역시 도시 경쟁력 제고 조례』, 2011.

실행과제는 인본민주도시· 문화예술도시· 경제기반도시· 녹색환경도시· 국제중심도시· 첨단과학도시 등 6대 분야다. 이 같은 실행과제는 세계화, 지방화 시대를 맞아 도시 특성에 맞는 경쟁력을 확보하고, 삶의 질을 높여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 나간다는 목표로 추진되며, 특히 2015 하계U대회와 2015 광주국제디자인총회 등 국제 행사의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해 국제중심도시 분야에 중점을 두었다.⁶²⁾

앞의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것처럼 광주광역시는 도시로서의 매력을 결정짓는 다양한 콘텐츠를 갖고 있으며, 이런 콘텐츠와 결합된 도시 브랜드 중에는 여타 도시에서는 찾기 어려운 역사성과 독창성을 간직한 브랜드가 다수 있고, 이것이 광주광역시의 도시 경쟁력에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광주광역시 광역단위 여성친화도시의 지역특화사업 추진도 광주광역시가 갖고 있는 다양한 콘텐츠와 브랜드가 결합하여 광주광역시가 추진하는 실행과제와 함께 이뤄져야 그 효과가 광주광역시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62) 아시아경제(<http://www.asiae.co.kr>), 2014.

제5장 광주광역시 여성친화도시의 발전방향

제1절 여성친화도시 가치의 재정립

1. 여성친화도시 가치향상을 위한 방안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한 서면조사와 시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원 면접조사 결과를 종합해보면, 5개년 단위 계획 중 현재 3년째 진행 중인 광주광역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은 인지도와 만족에서는 기대 이하의 반응이 나타났으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은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통해서 여성의 도시공간은 각종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없었던 지역여성들에게 사회적 관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지역 근린의 거점을 조성하게 하여 여성의 활동을 가시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추진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행정체계에서는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가 사업추진 주체로서 5개 자치구와 공공기관으로부터 도시 공간 활용에 대한 협조를 얻고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는 여성들이 공간을 매개로 지역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나 정보를 지원하고 시민참여단으로서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는 마을 소모임 등을 구성하면서 마을 주민들과 연계를 확보하는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이는 기존에 추진해 왔던 마을공동체나 마을 주민모임을 통해서 각종 봉사활동과 사회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가 새로운 형태로 마을의 일을 추진하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다. 이때는 구체적인 사업을 공동으로 기획, 추진, 모니터링 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의사소통을 활성화시키고 업무에 따라서 소규모 회의를 구성하는 것이 하나의 참여 활성화 방법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행정 주무부서,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 시민참여단으로서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와 연계한 마을 소모임이 사업 추진 과정을 공유하는 네트워크 회의를 정례화시키는 추진체계를 구성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마을-자치구-광주광역시로 연계되는 여성친화도시 광역형 모델을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광주광역시 5개 자치구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공동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을 확보하며 5개 자치구의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대한 평가 및 모니터링을 담당해야 한다. 또한 5개 자치구가 지역특성별 맞춤형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하도록 기반을 조성하고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와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가 연계될 수 있도록 네트워크(여성친화도시 거버넌스)를 활성화시켜야 한다.⁶³⁾

광역형 모델로 광주광역시가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여성·가족친화 마을센터’는 1980년대 시작된 독일의 ‘마더센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아파트, 마을 등의 기존 시설을 활용해 공동보육, 마을도서관, 재활용품 순환가게 등 다양한 소통과 돌봄의 공간이다. 2012년 광역시 최초로 추진한 ‘여성·가족 친화마을센터’는 ngo단체, 시의회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광주만의 특색 있는 사업으로써 지역민의 높은 호응을 받고 있고 전국 시도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시범지역인 남구는 도심의 골칫거리였던 마을 공가를 리모델링하여 ‘돌봄’과 ‘힐링’을 콘셉트로 탈바꿈했으며 광산구는 2,000세대가 거주하는 운남동 삼성아파트 공동시설을 활용한 ‘행운목 프로젝트’가 있다. 광주광역시는 여성친화 가치 확산을 위해 다른 구에도 이사업을 확대·운영할 계획이다.

2. 광주광역시 이미지 관련 논의

본 연구의 핵심 과제인 ‘광주광역시 광역단위 여성친화도시 지역특화사업’ 추진의 필요성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지역 특성을 발굴하는 것이 핵심 요인이다. 여기서 지역 특성이라는 개념은 광주광역시의 정체성을 기반으로 광주광역시가 갖고 있거나 앞으로 갖게 될 유·무형의 자산을 통칭하는 표현이다.

현재 여성가족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지역특성화 사업은 ‘새로운 택지단지 조성, 도시재생과제, 기타 대규모 건설과제 추진 시 설계단계부터 여성친화과제 반영’, ‘도시계획, 주거단지, 여성특화거리 조성, 도로 및 교통, 돌봄 편의 시설설치, 공원·녹지 네트워크 과제’ 등으로 제시돼 있다. 이처럼 지역특화사업이 시설 중심의 추진과제로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각급 자치단체에서 이 가이드라인의 벽을 쉽게

63) 강현아 외, 앞의 연구보고서, p. xvii

뛰어넘기 어렵고 사실상 기초단체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고유의 지역특화사업 발굴과 추진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다만 광주광역시와 같은 광역단위에서는 기존의 정책에 여성친화도시라는 명분을 함께 내세운다면 새로운 모델을 창출하기가 훨씬 용이할 것이다.

남원시의 경우 ‘규방문화 체험’을 지역특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남원시 고유의 문화자산을 활용하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관광 수입과 지역 홍보라는 일석이조(一石二鳥)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례로 평가된다. 앞서 여성가족부의 가이드라인에서 살펴보았듯이 지역특화사업은 거의 행정 주도의 정책시행에 있어서 여성친화요소를 강화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여기에 비전문가인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지는 많지 않고 자칫 들러리 역할에 머물 수 있다. 오랜 행정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들과 일반 시민이 동등한 위치에서 정책을 논하고 시민들이 사업의 부당성을 지적하여 시정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광주광역시 고유의 훌륭한 유·무형 자산을 살려서 지역특화사업 아이템을 발굴하고 여기에 광주광역시의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보자는 것이다. 집행부와 의회, 민관 거버넌스, 서포터즈, 그리고 시민도 함께 참여하는 열린 소통공간을 통해 광주의 소중한 자산을 활용한 새로운 의제(議題)를 발굴함으로써 광역 여성친화도시의 위상을 높이자는 것이다.

지금까지 행정적인 측면에서, 광주광역시는 전국 최우수 수준의 여성·가족정책을 펼쳐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대부분 일방적인 예산 집행을 통한 시혜성(施惠性) 정책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시민 다수가 공감하고 체감하는 정책으로는 어딘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정부기관이나 단체 등으로부터 상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행부만의 만족이 아니라 시민 모두가 자긍심을 갖는 여성친화정책이 더욱 절실하기 때문이다. 다만 자치단체의 독자적인 지역특화사업 추진은 소요 예산 확보와 이에 따른 수익모델 창출, 고용효과, 지속성 여부 등이 관건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을 충분히 감안하는 것이 사업추진의 기본이다.

그리고 광역단위 지역특화사업은 단기간의 전시효과보다는 장기적 과제로 추진하여 여성친화도시의 새로운 지향점을 찾는다는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번 시민대상 설문조사에서 나타났듯이 광주광역시는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역동적인 도시 이미지를 형성해가고 있다. 광주광역시의 자산도 고정불변은 아니다.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고 그로인해 새로운 자산이 형성되고 있다. 지역특성사업은 이러한 자산들 중 시민 다수가 공감하는 아이টে을 중심으로 시범 실시해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본 연구에서 말하는 지역특성과 비슷한 개념의 지역 이미지에 대한 선행 연구를 비교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민인철 외(2010)는 “광주 도시브랜드를 설정할 때 광주다운 것이 무엇인지 찾아내어 이를 광주의 자산으로 활용하든 것이 필요하다, 광주는 그 동안의 정치적 이미지를 벗고 문화를 통해 승화된 도시 이미지로 탈바꿈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주장했다. 본 연구의 지향점 역시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시민 설문조사 결과 광주광역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필요한 도시 이미지 선호도 조사 결과 10개의 항목 중 전체 응답자의 선호도를 보면 음식도시, 교육도시, 민주인권도시, 첨단산업도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여성친화도시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은 자동차도시, 첨단산업도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민주인권평화도시, 음식도시, 여성친화도시 순으로 응답했으며, 여성은 여성친화도시, 관광도시, 교육도시, 음식도시, 민주인권평화도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순으로 응답했다.

이처럼 여성친화도시는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광주광역시의 상징 이미지로 급부상했다. 여성은 말할 것도 없고 남성도 여성친화도시를 광주광역시의 대표 브랜드로 꼽는데 주저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시민의 지지에 부응할 수 있는 광역 여성친화도시의 가치를 재정립하는 일이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광주광역시는 역사적 전통과 관련된 고유의 도시 이미지를 계승·발전시키는 것은 물론 여성친화도시, 음식도시, 관광도시 등 소프트한 이미지를 최대한 살린 도시 마케팅 전략수립과 시행을 통해 기존의 부정적인 지역 이미지를 씻어내고 광주광역시민과 외지인 모두에게 새로운 감동을 안겨줄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광주광역시는 광역단위 여성친화도시로서 수많은 기초단체와는 확연히 다른 광역시 차원의 비전을 제시하고 여성친화도시 자체를 하나의 도시 브랜드로 육성하려는 과감한 정책 변화를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동안 광주광역시의 대표적인 도시 브랜드들은 다소 이념적인 부분이 부각되어 긍정과 부정의 양면을 노출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3. 발상의 전환을 통한 홍보 강화

여성친화도시가 여성들만을 위한 정책이라는 관념이 고착될수록 지속적인 발전은 어렵다. 여성친화도시는 여성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의 행복을 위한 자치단체 단위의 완결된 정책 모델이다. ‘여성’을 앞세운 것은 그 동안 우리 사회의 성별 불균형이 그만큼 심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여성과 남성이 공감하고 협조하고 지원하는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이 절실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광주시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은 그 동안의 성과를 통해 정책적으로는 어느 정도 정착기에 들어섰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 3년여 동안 이에 대해 ‘잘 안다’는 시민이 남녀 불문하고 2%에 머물고 있고 ‘조금 안다’ 21%, ‘전혀 모른다’가 77%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광주광역시의 홍보전략 등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반증이다. 이와 같은 조사결과는 무엇보다도 시민과의 소통이 부족한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으며, 현재 활동 중인 69명의 조성협의체 위원, 28명의 서포터즈단 및 각 자치구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참가자들 외에 일반 시민들이 여성친화도시에 인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홍보·교육 프로그램 강화의 필요성을 말해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 주목한 것은 남성의 역할 증대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시민 설문조사에서 여성친화도시가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질문에 남성 21%가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68%가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해 90% 가까운 지지를 나타냈다. 따라서 소규모의 여성 서포터즈단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300~400여명 규모로 ‘여성친화도시 남성 서포터즈단’을 조직해 일정 교육을 거쳐 활동할 마당을 만들어 주는 것도 바람직한 홍보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관심도와 참여도가 높은 남성들을 순수 자원봉사자로 활용한다면 재원 부담도 적을 것이며 여성친화도시 발전에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모든 지방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정례 워크숍이나 세미나 개최, 남녀 시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여성친화도시 지정일’ 기념행사 아이템 등을 발굴하여 범시민적 여성친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 언론사와 공동으로 시민 감성을 사로잡을 수 있는 지속적인 캠페인과 우수 여성친화사업사례 홍보방안 등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광주의 특성을 최대한 살린 참신한 지역특화사업을 추진하여 전국적인 관심을 끌게 하는 것도 시민들의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인지도와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전파력이 큰 SNS를 적극 활용하여 전국적으로 여성친화도시 광주의 새 이미지를 적극 홍보하고, 타 지역 사람들이 동참하고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능동적인 노력도 반드시 필요하다.

여성친화도시는 남성들의 깨어있는 의식이 중요하다. 여성을 배려하고 노인, 장애인,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자 하는 남성들의 문화가 지역사회에 뿌리내려야만 진정한 여성친화도시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각종 시설을 여성친화적으로 바꾸고 성인지 예산 등을 확대한다고 해서 진정한 의미의 여성친화도시가 되기는 어렵다.

광주광역시의 홍보 전략 역시 구태를 답습하기 보다는 과감한 발상의 전환을 시도해야 할 때가 왔으며, 전파력이 큰 SNS를 적극 활용하여 전국적으로 ‘여성친화도시 광주’를 적극 홍보해야 할 것이다.

광주광역시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 인권복지분과 위원인 김경신(2013)은 핵심과제 평가에서 “모든 구에 영향을 미치는 광역친화도시로서의 상징적 사업이 부재”하다고 지적하고,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 → 「여성이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로 그리고 시 진입도로에 「광역여성친화도시 광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등 간단하면서도 적극적인 홍보를 주문했다.⁶⁴⁾

제2절 정책의 선택과 집중

1. 광주광역시 여성친화도시의 핵심과제 논의

광주광역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본 연구가 주목한 점 중의 하나는 현재 추진 중인 핵심 추진과제가 기본과제 외에 광주광역시의 특성을 살린 사업이 어느 정도 있느냐 하는 문제였다.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자치단체는 여성가족부 방침에 따라 제각기 최선을 다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광주시는 광역단위 모델로서 타 자치단체와 차별화된 창의적 사업들이 전개되고 있을 것이라고 전제했

64) 김경신, “인권복지분과 핵심과제 평가”, 광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 2013.

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사 결과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지역특화사업 활성화를 위한 아이템은 많지 않았다.

2014년 현재, 광주광역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위해 총 192개 과제를 발굴, 추진하고 있다. 추진 부서는 광주광역시 전 실·과·소를 망라하고 있으며, 산하 기관도 동참하고 있다. 이러한 추진체계로 보면 사실상 광주광역시 행정 전체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직·간접으로 관여하고 있는 셈이다.

192개 과제를 세분해 보면 인권복지분과 71건, 문화체육분과 24건, 환경생태분과 24건, 경제고용분과 16건, 도시교통분과 57건 등이다. 이 과제들은 사실상 광주광역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에서 총괄·관리하고 있으며, 광주여성재단 등 산하기관에서 연구용역 등을 통해 이론적 뒷받침을 하고 있다. 192개 과제 중에서 본 연구에서 기본 분석 자료로 활용한 것은 각 분과별 주요 핵심과제 75건이다. 이것은 전체 과제 중에서 각 분과별로 엄선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과제로 분과별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데 이 핵심과제를 통해 현재 광주광역시가 추진하고 있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지향점을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 내용과 광주광역시의 핵심과제를 비교 검토하는 하는 것은 광주광역시가 갖고 있는 유·무형의 자산이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과 얼마나 연관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에서 이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하는 의도이다. 이번 연구를 위한 지방의원 서면조사에서는 전체 응답자 중 53%가 ‘여성가족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사업 위주다’ 47%가 ‘기존 여성정책에 따른 사업과 별 다르지 않다’라고 응답했다. 집행부의 파트너인 지방의원들의 인식만으로 판단해 보면 그 동안 광주광역시가 추진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이 지방의원들에게 새로운 비전으로 다가서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비교 분석을 위해 선택한 ‘2013 여성친화도시조성 주요 핵심과제는 <표 70>과 같다. 비교를 위해 시민 설문조사에서 추출된 광주광역시의 유·무형 자산은 6~7개로 제한했다.

<표 70> 2013 여성친화도시조성 주요 핵심과제 목록(75건)

(인권복지분과 : 23건)

사 업 명	선정사유
여성가족친화마을센터 설치 확대	지역여성 수요를 반영한 마을공동 돌봄문화확산을위한 거점공간마련
광주인권지표개발·추진	광주인권현장에 성평등 및 여성의 권리보장을 위한 지표개발 추진
성인지력 향상교육 확대	공직자 성인지력 향상을 통한 성평등정책 실현
여성친화마을서포터즈 양성교육	전문교육을 통한 모니터링 활동역량강화 및 생활체감실천과제 발굴 개선
시민참여 예산제 운영	예산편성 과정에서 시민의견 적극 수렴
성평등 재정관리 운영	재정계획 및 투자심사 단계부터 여성참여율 확대(50% 이상)
성별분리 통계구축 및 관리	광주사회조사 여성대상 조사 특화항목 개발
여성 5급 이상 관리직 임용목표제 추진	여성 정책결정 참여 확대를 위한 관리직 임용 확대 관리 필요
여성·아동 안전지역 연대 운영 활성화	각종 폭력으로부터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지역 사회 환경 조성
아이돌보미 사업 지원 강화	긴급·일시적 돌봄 수요 발생 가족의 양육 부담 경감 및 여성 고용 증진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취약 한부모 가족의 복합적 문제 해결 및 가족기능 강화
손자녀 돌보미 지원	저소득 맞벌이 가정의 사회·경제적 부담 경감, 여성 노인 일자리 창출
청소년수련시설 인프라 확충 및 복합 공간화	가족친화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시설 복합 공간화 추진
여성 노숙인 생활동 건립	광주희망원(부랑인보호시설)내 여성인권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
영구임대아파트 주민사랑방 설치·운영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주민 커뮤니티 공간 제공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어린이단체급식시설 영양 및 위생 관리 기술 지원으로 안전보육 환경 조성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여성 장애인 대상 여성 활동보조인 연계 서비스 제공으로 안전 지원
범죄예방 치안인프라 구축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등)	놀이터, 도시공원 등 범죄예방용 CCTV 확대 및 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
여가와 나눔, 일자리가 있는 생산적 경로당 운영	여성 노인 증가에 따른 일자리 제공
주민자치형 마을공동체 운영	지역공동체 형성 기여
인권도시 모니터링단 운영	인권도시에 걸맞는 모니터링 운영 필요
문화전당과 연계한 민주평화 광장 조성	민주평화 광장 조성 시 사회적 약자 배려
광주형 정신건강 증진사업 추진	여성 우울증 예방 사업 등 시민 건강 증진

(문화체육분과 : 16건)

사 업 명	선정사유
광주여성영화제 개최	영화상영후 여성소모임 문화체험 확대
역사문화마을 관광자원화 사업	주민과 함께 만드는 역사문화 마을조성
학교체육시설 개방확대	시민건강증진학교체육시설 개방및안전강화
가족친화형 문화예술교실운영 활성화	가족단위의 문화활동 활성화
행복한 토요일문화교실 운영	가족단위의문화활동활성화
여성수요반영 성인공예체험교실운영	여성전문성강화
북 스타트 운동추진	영유아기부터 독서와 가까워질수 있는 사회환경조성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한 수제공방 육성	공방육성을통해 여성일자리창출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건립지원	사회적 약자배려시설 설치
빛고을 박물관 건립	사회적 약자배려시설 설치
생활 밀착형 공공도서관 확충	마을공동체거점문화공간역할
여성 친화형 광주 야구경기장 건립	가족친화형 야구장 건립 통한 건전스포츠기회확대
여성친화적 U대회 수영장 건립	여성과장애인사회적약자배려
산수도서관 현대화 사업	근린도서관쾌적하고편리한사용
소외계층 문화향유 기회확대	여성등 사회적약자 문화관광바우처확대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기반조성	사업전반에 배리어프리도입및안전고려

(환경생태분과 : 10건)

사 업 명	선정사유
저소득층 수돗물사용요금 감면지원	사회적약자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
가족친화적 어린이 환경과학체험 프로그램 운영	가족참여를 통한 환경친화적분위기 조성
유아동반 공원 방문객 유모차 대여	공원방문가족에 대한 서비스 개선필요
어린이건강보호등 환경보건관리	오염환경에 대한 어린이건강보호및예방 필요
도시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 개선	도시공원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과 편의성제공
광주공원시민회관 열린공간 재조성	시민여가 공간에 대한 예술성과 창의성제공필요
아름다운 공중화장실확충 및 시설개선	깨끗하고 아름다운 화장실 모니터링 등을 통해 지속적개선보수필요
광주천 명품생태하천조성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광주천에 대한 시민친수공간조성필요
생활권 녹색건강 도시숲 확충	도심공간을 활용한 녹색도시숲 조성
무등산 건강과 치유의 생명공원 조성	명상센터및스토리텔링을 통한 힐링공원 조성

(경제고용분과 :8건)

사 업 명	선정사유
여성친화기업 지원 확대	여성친화기업문화 확산을 통한 여성 일자리 창출 및 취업촉진 기여
워킹맘 지원센터 운영	취업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경제활동 지원
여성역량 강화를 위한 여성경제인 포럼 운영	여성경제인의 경영능력 제고 및 역량 강화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이공계 여학생 유입확대 등 과학분야 여성친화적 문화환경 조성
취약계층 여성고용 확대	취약계층 여성들에게 취업 기회 제공
여성근로자 안심 무료 셔틀버스 운행 지원	여성근로자가 안심하고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근로여건 조성
여성친화적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여성들의 시장 이용 편의성과 안전성 제고
제2컨벤션센터 건립	여성친화적 컨벤션건립을 통한 여성 권익 신장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

(도시교통분과 : 18건)

사 업 명	선정 사유
행복한 창조마을 만들기 사업 정착 및 확산	자발적인 시민참여 유도
맞춤형 매입임대주택 그룹홈 공급	수요자 맞춤형 저소득 주거안정 도모
소외계층 아동대상 토요안전체험 교실운영	자기보호능력이 필요한 아동들에 대해 안전교육 필요
의용소방대 자연마을 여성독거노인 돌봄프로젝트	독거여성에게 필요한 서비스 제공으로 쾌적한 환경조성 및 안전사고 예방
교통안전 및 편의를 위한 교통체계 개선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로 시민안전제공
공공시설·기관 등 여성 친화적 시설물 설치 및 개선	여성이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 제공
임산부·여성 우선 주차장 확충 및 유지관리	자녀동반 임산부·여성들의 편의제공
여성의 안전한 보행공간 확보	도시관리계획 입안단계부터 여성친화적 설계로 여성의 보행안전 사고 예방
무장애시범 가로 및 공원정비사업	가로 및 공원정비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
저소득층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배리어프리, 유니버설 디자인 도입, 장애인, 모녀가정 등을 위한 저층부 배치 및 안전장치 설계반영 등
자전거이용 시범도시 그린바이크 시티 조성	친환경 녹색 교통도시 조성
신축 공공 건축물 및 공공건물 화장실 시범개선	공공시설에 여성화장실 확충으로 여성에 대한 편의 증진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철도2호선 건설	도시철도 2호선 건설로 여성 및 노약자들의 교통편의 제공
원거리 자연마을 소방안전망 확충	여성성비가 높은 자연마을(2개소)선정 소방안전망 확충
임산부 등 교통약자 배려석 도입	임산부 등 교통약자 배려석 도입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이용
QR코드부착 안전택시시스템 도입	여성의 안전 고려 필요
영세서민 아파트 노후 공용부분 시설개선	여성의 안전과 편의를 고려한 시설개선 필요
커뮤니티 중심의 주거환경 개선추진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시 여성의 수요를 반영한 커뮤니티 공간조성

본 연구의 시민 설문조사에서 광주광역시의 유·무형의 자산 중 도시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자산을 묻는 질문에 대해 성별, 연령별 구별 없이 전체 응답자의 답변을 분석해보면 5.18민주화운동, 국립공원 무등산, 광주비엔날레, 김치축제, 아시아문화전당, 예향의 전통, 음식문화, 광산업과 첨단산업 순으로 선호도를 나타냈다.

이를 근거로 앞서 제시한 광주광역시의 핵심과제 75건과의 연관성을 파악해 본 결과 각 분과별 과제 중 다음과 같은 잠정 추론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이 결과는 핵심추진과제 중 광주광역시의 주요 유·무형의 자산과 직·간접으로 연관이 있는 사업을 분석한 것이다.

<표 71>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핵심과제와 설문조사 상관성

구분	인권복지분과 (총 23건)	문화체육분과 (총 16건)	환경생태분과 (총 10건)	경제고용분과 (총 8건)	도시교통분과 (총 18건)
관련 건수	8	2	1	2	1

핵심 자료 분석 결과 분과별 소관 업무의 차이로 인해 지역 특성을 살린 사업 추진이 다르게 나타났으며 다수 부서가 동시 다발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정책에 여성친화라는 용어만 가미한 경우도 많았다. 또한 대다수 자치단체가 비슷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적지 않았다. 광주광역시의 광역단위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이 추진 3년째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인지도와 만족도에서 시민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본 연구의 시민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이런 현상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이 지나치게 관료화된 시스템에 갇혀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광주광역시는 물론 5개 자치구도 여성친화정책에 대한 기본정책이 수립되어 추진되고 있고 공무원들의 성인지(性認知) 교육도 강화되는 등 전반적인 기반 조성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 이제 광주광역시의 돌파구는 광역단위 여성친화도시 지역특화사업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방의원 서면조사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8%가 현재 추진 중인 사업으로 충분하다. 83%가 장기적으로 지역특화사업 발굴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은 광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제3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광주광역시의 '2014 여성친화도시 추진과제 목록(192)'를 살펴보면 비전문가나 시민들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정책이 포함되어 있다. 행정의 입장에서는

성인지(性認知) 예산 반영 등을 여성친화정책의 중요한 요소로 보기 때문에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겠으나, 정책 집행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이 오히려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제는 대개 광주광역시 실·과·소, 산하 기관 등에서 취합한 것으로 틀에 얽매인 업무 추진계획 내에서 참신한 아이디어를 내놓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공무원들이 좀 더 창의성을 발휘하여 독자적인 여성친화도시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오미란(2012)은 “지역특화사업과 결합된 여성친화도시 과제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지역의 여성친화도시 계획서를 분석해 보면 기존의 각 부처의 사업을 분야별로 조합한 것 이외에 정책의 차별성을 발견하기 어렵거나 지역특화 과제(전략과제)가 여성친화도시 조성과제에 구체적인 정책으로 연계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현재 추진되는 다양한 사업 중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역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과제로 압축하여 모범적인 사례를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⁶⁵⁾

광주광역시의 ‘2013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 핵심과제(75건)’ 역시 전체 추진과제 목록에서 경중을 가려 선정한 것이 대부분으로 지역특화사업의 측면에 미흡한 측면이 있다. 핵심과제는 말 그대로 광주광역시 단위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상징사업으로써 가치와 영향력을 가진 사업위주로 선정하거나 발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있어서도 여성의 경험에 기초해서 성인지 관점에서 도시공간을 새롭게 보고 개선방안을 찾을 수 있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2. 자치단체장의 강력한 의지 필요성

광주광역시가 5개 자치구와 함께 전국 최초 광역단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것은 민선 5기 광주광역시장의 강력한 의지에 비롯됐다는 것이 정설이다.

민선 5기 광주광역시장은 주요 선거공약 중 하나로 ‘여성과 가족 모두가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를 내세웠고 당선 이후, 광주광역시에서는 시장의 선거공약에 따라 정책을 수립하면서 자연스럽게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진 것이다. 또한 광역단체장의 의지에 대해 5개구 기초단체장들이 적극 호응함으로써 여성친화 관련

65) 오미란, 앞의 논문, p.87.

조례 제정, 성별영향평가분석 도입 등 여성친화도시 지정의 기초가 되는 기초를 마련했고 여성친화도시 지정 이전인 2011년 4월, 민선5기⁶⁶⁾ 광주광역시장의 공약이자 지역 여성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광주여성재단’을 전국 최초로 출범시킴으로써 여성친화도시 지정의 당위성을 확보했다. 이처럼 단체장의 안목과 의지 그리고 정책에 대한 강력한 추진력 등이 광주광역시가 5개 자치구와 함께 광역단위 여성친화도시 지정이라는 결실을 맺게 한 원동력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여기에 호응하여 지방의원들, 특히 여성의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시너지효과를 발휘한 것이다.

반면에 민선 6기⁶⁷⁾ 광주광역시장의 선거공약에는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었다는 점은 향후 광주광역시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이 형식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게 한다. 물론 광주광역시 여성가족청소년정책관실 주도로 이미 추진 과제 192건, 핵심과제 75건이 확정되어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신임 단체장의 별도 언급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민선 6기 광주광역시장의 핵심공약 4개와 5대 분야 15대 정책을 살펴보면 핵심공약 5대 분야 중 ‘안전한 생명도시’ 분야에 ‘의료취약계층·어린이·청소년·여성건강도시 실현’ 항목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⁶⁸⁾

○ 여성(워킹맘) 행복도시 구현

-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 및 운영 개선, 각 구별로 ‘광주365어린이집’ 운영
- 한부모 직장맘 가사·보육서비스 지원
- 출산전후 유가·육아휴직 ‘대체인력뱅크’ 운영
- 여성이 일하기 좋은 환경 조성 : 일·생활 균형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여성 고용의 질을 높이고 평등한 일터 만들기
- 직장맘지원센터 운영 : 직장맘 고충상담, 원스톱 서비스 제공
- 돌봄에 대한 사회적 부담 강화 : 방과 후 돌봄지원체계 강화, 돌봄마을보육센터 확대운영

이처럼 워킹맘을 위주로 한 내용 외에 민선 6기 광주광역시장의 방대한 정책공약집에서 ‘여성친화도시’라는 단어는 한 마디도 찾아볼 수 없고 시장 취임사에서 마

66) 민선 5기 2010년 7월 1일~ 2014년 6월 30일, 강운태

67) 민선 6기 2014년 7월 1일~ 2018년 6월 30일, 윤장현

68) 윤장현, 『사람중심! 생명도시! 100년 광주를 위한 윤장현의 약속』 2014 지방선거 공약집, 2014. 5. p.21.

참가지다. 단체장의 정책 방향은 대개 선거공약이나 취임사 등에서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광주광역시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이 민선 6기 시정에서 위축되지 않도록 관련 예산 확대 등 집행부와 의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 개발이 요청된다.

민선 6기 여성정책과 관련하여 광주광역시의회 전진숙 의원은 2014년 11월 17일 광주광역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9월말 광주여성재단이 주최한 제8차 여성CEO아카데미에서 윤장현 시장이 밝힌 민선 6기 여성정책으로 여성일자리 지원 및 고용유지 환경 조성, 출산율 특·광역시 1위 달성을 위한 도시여건 조성, 여성이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 구축, 시민주권시대에 걸맞은 여성의 시정참여를 제시했지만, 10월에 발표된 ‘더불어 사는 광주 4개년 계획’에서는 양육 지원 외에 다른 정책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핵심정책으로 일·가정 양립에 대한 지원정책을 이야기 하지만 형식적으로 끼워 넣었을 뿐, 성평등한 광주광역시를 위한 정책은 부재하다”면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은 민선 6기 광주광역시 여성정책 수립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에서는(2013.7) ‘민선 5기 시정평가 - 여성분야’ 보고에서, ‘여성정책의 담당부서인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은 1실 5담당(여성정책, 청소년육성, 보육, 가족복지, 저출산 아동), 1사업소(여성발전센터)로 구성되어 있다. 인적 구성은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은 정원 24명, 여성발전센터 14명이다.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은 행정부시장 산하에 배치, 여성정책 업무를 총괄·기획하는 동시에 모든 실국과 원활한 업무 협의 및 협조 체제를 가져야 한다. 그러나 광주시의 성주류화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가 여성친화도시인 여성정책담당부서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가족복지담당부서에 분산되어 있다. 따라서 성 주류화 정책이 추진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여성정책팀이 광주광역시 성 주류화 정책 전반을 담당해야 한다’고 제도적 보완을 주문했다.

왜냐하면 여성정책만을 담당하는 전담팀이 구성되어있지 않은 상황에서 잦은 인사이동에 따라 담당 공무원의 여성친화도시 업무 지속성과 전문성을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에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게끔 외부로부터 전문 인력을 보강한다든가 전담팀 구성 방안을 모색해야 하기 때문이다.⁶⁹⁾

광주광역시가 어렵게 획득한 여성친화도시의 가치는 활용 여하에 따라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미래형 정책 과제이다. 따라서 민선 5기의 여성친화도시

69) 강현아 외, 앞의 연구보고서. p.xiii

조성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민선 6기에서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5개년 계획을 알차게 마무리하고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단체장의 강력한 추진 의지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

제3절 여성인력의 양성과 활용

1. 광주광역시의회 ‘여성친화도시특별위원회’ 구성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은 단체장과 집행부의 강력한 의지, 그리고 이에 대한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라는 3박자가 어우러질 때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자치단체 단위의 여성정책 모델이다.

광주광역시의 성공적인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광주광역시의회의와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이 필수적이며 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구로서 여성친화도시가 선언적 의미의 도시 브랜드에 머물지 않도록 다양한 의제 발굴과 시민 참여 분위기 확산 등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하여 의회 차원의 1차적 임무는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통한 의회 내의 여성친화 분위기 조성으로 집행부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뒷받침해주는 것이다. 의회의 능동적인 협조가 없으면 사업 추진은 탄력성을 잃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광주광역시의회는 현재 5개 상임위원회 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문화도시특별위원회’와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가동하고 있다. 이전에 설치됐던 ‘문화수도특별위원회’와 ‘4대강사업대책특별위원회’, ‘성평등특별위원회’는 한시적 기구로 운영이 종료됐다.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특별위원회로 주목 받았던 ‘성평등특별위원회’는 광주광역시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기 이전인 2011년 7월 홍인화 의원의 대표 발의로 구성돼 위원장과 부위원장, 위원 8명으로 약 3년간 활동을 하였다.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구성된 광주광역시의회 ‘성평등특별위원회’는 성인지 예산편성 점검, 성평등 정책기반 조성, 성평등 문화확산 등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강화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여성친화도시 기반 조성

을 위한 정책 간담회와 각종 여성 관련 현안에 대한 대안 제시 등의 활동을 펼쳤다.

2012년 5월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제정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도 ‘성평등특별위원회’ 활동의 성과 중 하나로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에 필요한 법적 근거가 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광주광역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은 여성가족부가 제시한 준비단계, 발전단계, 정착단계 중 2013년~2015년 발전 단계에 놓여있기 때문에 시의회는 이전에 한시적으로 가동했던 ‘성평등특별위원회’를 발전적으로 계승한 ‘여성친화도시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대내·외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의회 차원의 의지를 천명할 필요가 있다.

광주광역시 지방의원들의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기대감과 관련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이 앞으로 광주광역시의 도시 이미지 개선과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73%가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하여 기대감이 매우 높은 편이기 때문에 시의회의 여성친화도시특별위원회 구성은 집행부 조성사업 추진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여성친화도시특별위원회 구성도 의례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남성 의원을 위원장, 여성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위원도 남녀 동수로 구성하는 파격적인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시민들은 물론 매스컴의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활동 영역도 ‘여성’ 관련 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지역사회 전체에 여성친화 문화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남녀가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여성친화 아이템 발굴 및 시행 지원, 여성친화도시의 4대 핵심가치인 ‘형평성·돌봄·친환경·소통’을 시민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지속적인 캠페인과 교육 등의 기반조성 지원 등으로 넓혀간다면 전국 최초 광역단위 여성친화도시라는 광주광역시의 위상이 한 차원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2. 여성의 지방의회 진출 확대와 여성친화도시 발전

광주광역시와 5개 자치구가 2011년 12월 전국 최초로 동시에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될 수 있었던 것은 자치단체장들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 의지와 함께 광주광역시의 회와 각 구의회의 여성의원들의 선진 여성친화도시 합동 벤치마킹, 여성친화도시 관련 조례 제정 주도 등 여성친화도시 지정 노력에 힘입은 바 크다.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이 낮은 상황에서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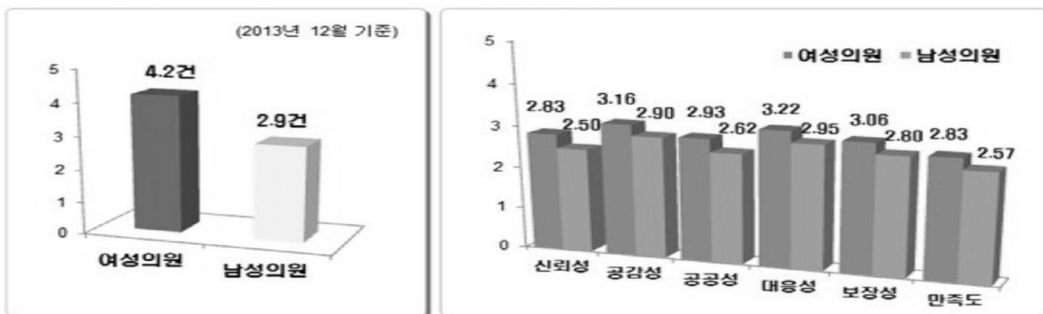
거두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의 대변자인 지방의원들의 선도적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그 중에서도 여성의원들의 몫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자치단체장의 경우, 2014년 6월 4일 실시된 제6회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은 한 명의 당선자도 없었고, 기초단체장은 전국 226개 선거구에서 9명이 당선되어 0.04%에 그쳤기 때문에 아직은 논의하기에 곤란한 점이 있다. 민선 6기 광주광역시의회 여성 의원은 전체 19명 의원 중 4명으로 21.1%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전국 1위의 비율로 여성의원 당선 비율 상위권인 서울특별시 16%, 경기도 11%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다. 기초의원 당선자 비율도 광주광역시 5개 자치구 전체 23.7로 서울특별시 23.8%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이처럼 광주광역시는 여성친화도시의 필요충분조건이자 객관적인 여성친화성 근거라고 할 수 있는 지방의회의 여성의원 비율이 높은 편으로 지역의 여성정치가 활성화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드루드 달럽(Drude Dahlerup) 등 정치학자들이 주장하는, ‘전체 의석 중 여성 의원이 30%를 차지하는 때가 여성의 목소리가 힘을 갖게 되는 임계점’이라는 점을 상기하면 광주광역시의회와 5개 자치구의회가 여성의원 30% 이상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역 정치권, 여성단체, 여성 정치 입지자, 유권자 등 모든 정치 주체들의 혁신적인 인식전환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본다.

여성의원들의 증가는 의정활동에 있어서 여성친화정책의 확산 등을 통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긍정적인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남성의원들에 비해 신뢰성·공정성 등 여러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는 조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지방의회에서 여성의원들의 활동은 주민들에게 긍정적인 기대감을 심어주고 있다.

[그림 45] 의정실적 및 유권자 만족도 비교 결과



출처: 젠더정치연구소, “여성 지방의원 의정실적과 기초의원 성별에 따른 유권자 만족도 조사”, 2014. pp.15~17.

광주광역시의회 의원선거와 관련하여 2014년 6.4지방선거에서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일부 비판적인 여론에도 불구하고 광주 5개 자치구 중 동구를 제외한 4개 자치구에 ‘광역의원 여성특구’를 신설하여 여성후보들만의 경쟁을 통한 당선자 배출을 유도한 것은 여성의 지방의회 진출확대 측면에서 진일보한 시도로 평가할 수 있다.

프랑스의 ‘여성 동수제’처럼 강제 조항으로 여성과 남성 의원의 비율을 맞출 정도로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이 성숙되지 못했지만, 광주광역시에서 처음 실시된 광역의원 여성특구 제도가 기초의원 선거까지 확산되고, 전국적으로 정착된다면 의회 선진화와 여성친화정책의 질적·양적 향상을 위한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제4절 지역특화사업의 추진

1. 광주광역시의 광역단위 지역특화사업의 지향점

광주광역시의 도시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도시 브랜드 혹은 이미지의 윤곽은 시민 위주의 설문조사나 온라인 조사와 행정이나 광주시 산하 연구기관의 과제 선정에는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즉, 광주광역시가 역사적, 전통적으로 간직해 온 유·무형의 자산과 함께 근래 약 20여년 동안 지역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변화에 따라 형성된 새로운 자산들이 광주광역시의 브랜드 선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미래 지향적 관점에서 새로운 자산의 형성은 지역발전과 도시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에서 높은 선호도를 나타낸 ‘여성친화도시’ 역시 짧은 사업 추진 기간에도 불구하고 광주광역시의 대표 브랜드로 성장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주었다. ‘광주광역시 광역형 여성친화도시’는 그 자체 브랜드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대표할 광주광역시의 브랜드와 접목되어 새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광주광역시가 선정한 ‘인본민주도시’ 등 6대 분야 도시 경쟁력 실행과제에 ‘여성친화’ 요소가 충분히 가미된 아이템을 발굴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본 연구 설문조사에서 높은 선호도를 보인 음식도시, 교육도시, 민주인권평화도시,

첨단산업도시 등과 ‘여성친화’는 얼마든지 발전적 조합이 가능하다고 본다. 문제는 현재와 같이 ‘여성친화도시’의 고유 가치에 집중한 사업 추진 방식으로는 광역형 여성친화도시 지역특화사업 추진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광주광역시가 발굴, 추진 중인 75개 항목의 ‘여성친화도시조성 주요 핵심과제’를 분석해 보면 사업 추진의 현주소를 파악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가 선정한 도시경쟁력 실행 과제 6대 분야, 본 연구의 시민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난 광주광역시 5대 도시 이미지와 광주광역시의 핵심과제를 비교 분석해 본 결과 어느 정도 상관성을 평가할만한 항목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이런 분석 결과는 앞으로 광주광역시의 광역단위 여성친화도시 지역특화사업 추진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표 72> 광주광역시 도시 브랜드와 여성친화도시 핵심과제 상관성

구 분	광주광역시 핵심과제 75건 중 도시브랜드와 어느 정도 상관성을 가진 사업 건수
인본민주도시	8
문화예술도시	11
경제기반도시	4
녹색환경도시	4
국제중심도시	5
첨단과학도시	1

2. 광주광역시 공통사업 및 5개 자치구 지역 특성별 사업 발굴

5개 자치구의 여성친화도시 정책에 대한 각 영역별 요구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동구의 여성친화도시 정책에 대한 요구는 안전 > 지역공동체·참여 > 돌봄 > 생태환경·건강 > 일자리 > 편리 > 성평등 순으로 나타났다. 동구의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은 가로등 정비 등 안전 사업, 공동주거시설 등 지역공동체·참여사업, 노인·청소년·아동에 대한 돌봄지원서비스의 확충, 공원조성 등 생태환경·건강을 핵심 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서구의 여성친화도시 정책에 대한 요구는 안전 > 생태환경·건강 > 돌봄 > 일자리 >

지역공동체·참여 > 성평등 > 편리 순으로 나타났다. 서구의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은 CCTV 설치 및 비상벨 등 범죄예방과 안전 사업, 공원 조성 등 생태환경·건강, 청소년을 위한 문화시설 확대, 아동의 양육 및 보육에 관한 지원 강화, 일자리창출을 위한 기업유치를 핵심 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남구의 여성친화도시 정책에 대한 요구는 안전 > 돌봄 > 생태환경·건강 > 지역공동체·참여 > 일자리 > 편리 > 성평등 순으로 나타났다. 남구의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은 CCTV 설치 및 비상벨 등 범죄예방과 안전 사업, 아동의 양육 및 보육에 관한 지원강화, 공원 조성 등 생태환경·건강, 공동주거시설과 공동급식시설 등 노인시설 확대 등을 핵심 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북구의 여성친화도시 정책에 대한 요구는 안전 > 돌봄 > 일자리 > 생태환경·건강 > 편리 > 지역공동체·참여 > 성평등 순으로 나타났다. 북구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은 가로등 정비 등 밤길안전, 청소년을 위한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의 확대, 일자리창출을 위한 기업유치, 공원조성 등 생태환경·건강을 핵심 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광산구의 여성친화도시 정책에 대한 요구는 안전 > 지역공동체·참여 > 생태환경·건강 > 돌봄 > 일자리 > 편리 > 성평등 순으로 나타났다. 광산구의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은 CCTV 설치 및 비상벨 등 범죄예방과 안전, 공동주거시설과 공동급식시설 확대, 마을보건지소의 확충, 노인·장애인 지원서비스 및 청소년을 위한 문화시설 확대를 핵심 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광주지역 5개 자치구 모두 안전에 대한 정책 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돌봄과 지역공동체·참여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나는 데 비해, 편리와 성평등에 대한 요구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광주광역시 차원에서는 5개 자치구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발굴하고, 5개 자치구에서는 지역특성과 지역주민의 정책요구를 고려한 지역특성별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발굴·추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한다.⁷⁰⁾

3. 광역단위 지역특화사업과 5개 자치구의 연계활동 강화

2009년부터 시작된 여성가족부의 여성친화도시 지정은 주된 대상이 기초단체였기 때문에 2011년 광주광역시가 5개 자치구와 더불어 전국 최초 광역단위 여성친화도

70) 강현아 외, 앞의 연구보고서, p.xii

시로 지정된 것은 큰 화제였다.(제주자치도는 예외) 이것은 지역발전의 신성장 동력을 하나 더 얻은 것과 같은 획기적인 일이었다. 여성친화도시의 가치는 매우 높다. 지역주민에게나 외지인들에게 매력적인 도시 이름으로 각인되고 지역사회의 안전지수가 높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때문이다. 광주광역시의 도시 브랜드 가치와 지역 이미지가 상승하고, 시민들에게도 안정된 정서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 여성친화도시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여성친화도시에 대해 여전히 낮은 시민 인지도나 추진정책의 천편일률성 등은 극복해야 할 과제다. 기초단체와 크게 다르지 않는 아이템 발굴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다. 물론 광주광역시의 방대한 행정에서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은 후순위에 밀릴 수밖에 없다. 어느 정도 행정력을 기울이겠지만 기존의 여성정책도 중단할 수는 없는 일이다. 따라서 시민의 참여를 늘리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광주시민과 외지인들이 호응할 수 있는 광역단위 지역특화사업을 추진해야만 저예산 고효율의 성과를 올릴 수 있고 여성친화도시 본연의 취지도 살릴 수 있다고 본다. 더욱이 광주가 갖고 있는 자랑스러운 유·무형의 자산과 여성친화정책이 결합한다면 그 시너지 효과는 기대이상일 것으로 예측된다.

광주광역시의 광역특화사업에 대해 처음 언급한 오미란(2012)은, “광주광역시는 기초자치구 단위의 추진체계와는 다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시·구의 연계협력이 지속될 수 있는 특화사업을 발굴하여 5개구 공동으로 사업을 실행하여 여성친화도시의 보편적 모델을 실행하는 것과 더불어 자치구의 특성에 맞는 과제와 연계된 차별성 있는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지원해야 한다.

현재 광주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안전도시, 인권도시 문화도시 사업과 연계된 특화사업 발굴 및 추진, 구 단위에서 추진되고 있는 교육도시, 건강도시, 가족친화도시 등의 산업 연계 등 구체적이고 실행력 있는 과제의 발굴이 필요하다고”했다.⁷¹⁾

이에 반해, 강현아 외(2014)⁷²⁾는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및 인프라에서 가장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행정공무원들은 광주광역시와 5개 자치구의 연계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연계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특히 광주광역시는 예산, 전문성 분야에서 5개 자치구에 대한 지원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5개 자치구에서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공무원들은 자치구

71) 오미란, 앞의 논문, p.75.

72) 강현아 외, 앞의 연구보고서, p.xiv.

별로 예산을 확보하기 힘들고, 자체적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에 광주광역시에서 공통된 사업을 추진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확보해서 자치구에 내려주기를 원하고 있다.

또한 2011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이후 추진해 온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이 여성가족부의 매뉴얼이나 지침대로 진행되어 온 측면에서, 창의적이고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매뉴얼화된 사업이거나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반복적으로 재생산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더구나 기존의 추진하던 정책이나 사업에 ‘여성친화’라는 말만 덧붙여서 추진하는 경우도 많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면 기존의 마을만들기 사업에 ‘여성친화’라는 말을 덧붙여서 ‘여성친화 마을만들기’ 사업이라고 하지만 실제 두 개의 사업내용에는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봉진(2012)은 도시경쟁력 부문에서 “광주가 강점을 보인 부문으로는 인본민주도시, 녹색환경도시, 문화예술도시, 부문에서 타 광역 시 도 보다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고, 국제중심도시, 첨단과학도시 부문에서는 타 광역도시 보다 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했다.⁷³⁾

도시경쟁력에 관한 연구 중 김정호(2013)는 “창조계급의 등장은 새로운 도시를 전망한다. 문화가 경제적 발달을 강화하는 필수인 요소임을 인식하고 결국 창조계급이 미래의 도시를 만드는데 핵심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미래의 도시는 개방성과 다양성에 기초한 창조 환경을 만들며, 유연한 도시경제시스템과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주체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라고 도시경쟁력에서 창조성을 강조하고 있다.⁷⁴⁾

신승춘 외(2012)는 여성친화도시 활성화방안으로 ‘특성화 전략’을 강조하면서 “익산시 선화공주, 강릉시 신사임당, 충청도의 유관순 등 지역의 주요 역사적 여성인물을 중심으로 통일된 테마로 도시를 조성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다. 또한 도시형, 도·농복합형, 농촌형별로 구분하여 각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 지역별로 문화, 자연경관, 교통, 인구구성(성별, 연령별)이 상이하기 때문에 철저한 지역기초통계조사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사업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지역브랜드화 까지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⁷⁵⁾

73) 김봉진, “광주광역시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행 방안”, 광주발전연구원, 2012. p.68.

74) 김정호, “창조도시의 도시경쟁력 메커니즘에 관한 연구”, 『도시행정학보』 제6집 제1호, 2013. p.2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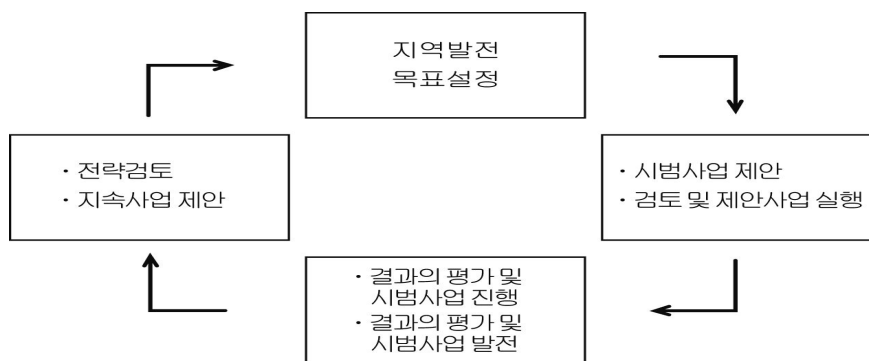
75) 신승춘·권자경,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친화도시조성 활성화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 연구』 제16권 제4호, 2012. p.327.

전북 남원시가 2013년 여성친화도시 지역특화사업으로 ‘춘향골 규방문화체험’을 제시한 것도 하나의 사례가 될 만하다.

광주광역시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와 같은 민관 거버넌스에서 광역단위 지역특화사업에 대한 인식을 달리해서 기존의 추진과제는 차질 없이 밀고 나가되, 사업 3년째를 맞이한 현재의 시점부터 여성친화도시의 가치와 개념을 재정립함으로써 지역특화사업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미원(2009)은 여성친화도시의 지역특화사업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에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한 지역 개발 및 도시 마케팅 전략을 도입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여성친화 이념의 구현과 지역별 특성을 살림으로써 도시의 경쟁력을 배가시킬 수 있도록 지역특화개발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을 제안하면서 [그림 47]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한 모형을 제시했다.

[그림 46] 지역특화를 고려한 추진 체계도



출처: 이미원,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 및 발전 방향”, 여성가족부, 2009. p.70.

2012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경기도 의정부시가 『의정부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20조(지역특화사업 추진) 에서 “시장은 각종 사업의 성별 영향분석평가 결과 및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 제안에 근거하여 특화된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제1항), “시장은 지역 특화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제2항)고 명시하여 지역특화사업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은 선진적인 정책으로 평가할 만하다.⁷⁶⁾

76) 의정부시 홈페이지(<http://www.ui4u.net>), 2013.

제6장 결 론

전국 최초 광역단위 여성친화도시인 광주광역시는 지난 3년간의 사업 추진을 통해 여성친화도시 취지에 부합하는 일정 성과를 거두었지만 한편으로는 기초단위와 차별화된 지역특화사업 발굴과 추진은 미흡했다는 것이 본 연구 결과에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예외로 하더라도 전국 유일의 광역단위 여성친화도시인 광주광역시는 이제 여성가족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표준화된 5개년 사업 계획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지역의 우수한 유·무형의 자산을 활용한 지역특화사업 등 차별화된 사업 추진을 통해 여성친화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시민 모두가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때가 되었다.

여성친화도시는 ‘형평성·돌봄·친환경·소통’ 4대 핵심가치를 지역 실정에 맞게 정책으로 실현하는 개념이다. 이는 현재까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전국 5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슷하게 추진되고 있는데 본래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은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광역단체는 사실상 광역단위로 어떤 사업을 추진해야 할지 조금 막연한 부분이 있다. 광역단체는 기초단체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지원하고, 컨설팅하는 등의 역할이 더 중요할 수 있다. 기초단체는 열악한 재정 환경 등으로 사업 추진에 애로가 많은 것이 현실이고 광역단체와 공조하여 협조체계를 구축해야만 소기의 사업성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광역단체는 행정력이나 예산 규모로 볼 때 기초단체와는 차원이 다른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펼칠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광주광역시는 이런 여건을 활용하여 여성친화도시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이를 도시 경쟁력 강화와 지역 이미지 개선이나 시민 화합 등을 위한 저비용·고효율의 새로운 정책으로 밀고 나갈 필요가 있다.

시민 설문조사 등을 통해 확인했듯이 여성친화도시는 이제 광주광역시의 새로운 도시 브랜드로 정착되고 있고 미래에 대한 기대도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0% 이상의 시민은 여전히 여성친화도시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데 이는 광주광역시의 홍보 부족이나 소극적인 사업 추진이 그 원인일 수 있다.

광주광역시는 다른 지역에서 갖지 못한 유·무형의 훌륭한 자산이 많다. 역사적으로도 그렇지만 새로운 자산도 생겨나고 있다. 2015년 개관하는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은 미래의 자산으로 자리 잡았고, 무등산은 국립공원이 되어 새로운 모습으로 국내외 탐방객을 맞고 있다. 광주비엔날레나 김치축제 등도 여성친화 요소가 다분하다.

광주광역시는 광역단위 지역특화사업 발굴과 추진을 통해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고, 행정의 예산 집행을 통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뛰어 넘어 제3의 여성친화도시 모델을 만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문화도시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등 부수 효과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시민의 대변자인 지방의원들도 광역단위 지역특화사업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것은 큰 애로가 없을 것이다. 문제는 얼마나 참신하고 내실 있는 미래지향적인 아이템을 개발하느냐에 달려있다. 이를 위해 앞으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고 다수의 전문가들이 참여해야 것은 당연하다. 광주광역시 여성친화도시가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외지인들을 불러 모으는 매력적인 이름이 되기 위해서는 소수 관계자들의 노력과 아이디어만으로는 부족하다. 광역단위에서만 원활히 추진 가능한 지역특화사업 발굴을 통해 광주광역시는 여성친화도시로서 위상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다고 본다..

광주광역시가 5개 자치구와는 별도로 독자적인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3년째 추진하고 있고, 그 동안 정부의 각종 평가에서 여성·가족친화 정책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정작 ‘광역단위 여성친화도시’의 첫 모델로서 뚜렷한 정체성(identity)을 확립했느냐의 여부는 객관적인 조사 결과에서 높은 점수를 얻지 못하고 있다. 이는 광주광역시의 5개 자치구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됐기 때문에 기초단체와는 다른 ‘광역단위’ 개념이 희석된 점이 있고 여성가족부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용역 의뢰한 『2013년도 여성친화도시 이행현황 분석 및 중장기 발전 방안』 보고서에 광주광역시가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는 데서도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다.

여성친화도시가 모든 사람들의 안전과 행복을 지향하는 성평등한 도시 실현을 목표로 여성과 남성에게 고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여성을 위한 도시라는 편견이 존재한다. 여성친화도시가 갖고 있는 브랜드 가치와 장점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은 이러한 상황 때문이다.

여성친화도시 추진기반 마련과 중앙정부의 지원은 체감할 수 있는 여성친화도시의 성과로 나타날 것이며, 여성친화도시가 우리나라의 특징적인 도시브랜드로 자리 잡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⁷⁷⁾

77) 이미원 외, 앞의 연구보고서, p.90.

이와 같은 전망을 놓고 볼 때 일찍이 광역단위 여성친화도시를 선정한 광주광역시의 경우는 이를 강력한 도시 브랜드로 육성하고 지역 내의 여성친화적 유·무형의 자산과 여성친화도시를 연계한 아이템 발굴과 사업 추진을 통해 그 효과를 극대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광주광역시에게 주어진 광역단위 여성친화도시라는 명제가 이름만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는 물론 세계적인 트렌드로 확산되고 있는 여성친화정책의 상징으로 우뚝 선다면 광주광역시의 민주인권도시·문화중심도시·국제도시 등 도시 브랜드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광주광역시의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의 활동과는 별개로 각계각층의 시민과 전문가들의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연구, 정책 제안 제도와 등이 꾸준히 이루어져야만 광주광역시는 여성친화도시의 진정한 가치 실현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행정 단위에서 제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여성친화사업의 사례를 제시하지 못한 한계가 있고 광주광역시 전체 예산 중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총체적인 예산을 분석하지 못한 점이 있으나 지방의원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조사를 통해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긍정적 요인과 보완해야 할 사항을 도출하였다.

이런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정책 제언들이 행정 추진에 구체적으로 반영되고 후속 연구를 통해 광역단위 지역특화사업 모델이 발굴 된다면 광주광역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1단계 협약 기간인 2016년 이후에도 2차 협약을 통해 광역단위 여성친화도시의 선두주자로서 명실상부한 위상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1) 단행본

- 김선남, 『매스미디어와 여성』, 서울: 범우사, 1997.
 김재인 외, 『성평등정책론』, 서울: 교육과학사, 2007.
 한국여성연구소, 『새 여성학 강의』, 서울: 동녘, 2005.

2) 학술논문

- 강인호 외, “지방정부의 여성친화적 정책과 조직성과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과학회보』, 제9권 제4호, 2005.
 강현아 외, “광주광역시 여성친화도시 광역형 모델연구”, 광주여성재단. 2014.
 김정호, “창조도시의 도시경쟁력 메카니즘에 관한 연구”, 『도시행정학보』, 제26집 제1호, 2013.
 김흥기, “지방정부 이미지 구성차원과 형성요소에 관한 연구-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2003.
 민인철·이난경, “광역광역시 도시브랜드 이미지 제고 전략”, 광주발전연구원, 2010.
 박선영, “새로운 여성 정책을 위한 헌법 개정 방향”, 『젠더 리뷰』, 1998, 가을 호.
 박태원 외, “여성친화도시의 개념과 도시계획 구성 요소”, 『월간국토』, 통권372호, 2012.
 신미식, “포스트모더니즘과 여성교육”, 『평생교육연구』, 서울대학교사범대학 교육연구소, 1988.
 신미식, “여성해방교육론이란 무엇인가”, 『여성과 사회』, 제6호, 1995.
 신승춘·권자경,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친화도시 조성 활성화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연구』, 제16권 제4호, 2012.
 양광식, “익산시 여성친화도시의 정책 과제”, 『전북발전포럼』, 통권 제12호, 2009.
 오미란, “광주의 광역형 여성친화도시 모델 형성 추진사례”, 『Daejeon Development Form』 제41호, 2012.
 이미원,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 및 발전 방향”, 여성부, 2009.
 이미원 외,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확산 정책 성별영향분석평가”, 여성가족부, 2012.
 장임숙·이원일,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인식과 실태-양산시를 중심으로”, 『지방정부 연

구』, 제16권 제4호, 2012.

채은주, “광역단체친화도 평가 및 지역간 비교 분석-16개 시도를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최성지, “여성친화도시 정책의 현황과 향후 과제”, 『월간국토』, 제372호, 2012.

홍미희, “여성친화도시가 지향하는 핵심가치”, 『월간국토』, 제372호, 2012.

3) 보고서 및 기타 자료

광주여성민우회·광주여성의 전화, ‘강운태시장 전반기 2년 여성정책 분야 평가 보고서’, 2012.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3 세계 성 격차 보고서’, 2013.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개편 주요업무소개, 2012.

여성부,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약서’, 2009.

윤장현, 『사람중심! 생명도시! 100년 광주를 위한 윤장현의 약속』, 2014.

이정옥, “1,2,3차로 진보 거듭하는 여성의 존재 선언”, 대구 카톨릭대 강의자료. 2007.

광주광역시의회, ‘2014 본예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

광주광역시(<http://www.gwangju.go.kr>) 자료, 2013.

의정부시 홈페이지(<http://www.ui4u.net>), 2013.

통계청, ‘2012 사회조사’, 2012.

통계청, ‘통계로 본 여성의 삶’, 2013.

한국여성단체연합, 『여성이 바라는 지역여성정책토론회 자료집』, 2011

광주광역시의회, 『광주광역시 도시 경쟁력 제고 조례』, 2011.

Beijing : UN Conference, ‘Equality, Development and Peace’, 1995.

Istanbul : HABITAT II *European Charter for Woman in the City*. 1996.

Paris : OECD Conference, ‘*Women and the City*’. 1994.

Vancouver City hall, ‘*A gender equality strategy of the city of vancouver*’, 2005.

4) 언론 자료

아시아경제(<http://www.asiae.co.kr>), 2014.

원주투데이(<http://www.wonjutoday.co.kr>), 김이수 칼럼, 2012.

2. 외국문헌

John Naisbitt, 구홍영 역, 『메가트렌드(Megatrends)』, 서울: 문현각, 1983.

<부 록>

<부록 1> 광주광역시 지방의원 대상 서면조사 질문 내용

1. 귀하께서는 광주광역시가 전국 최초 ‘광역형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후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가지만 골라주십시오.
 - 1) 여성가족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른 사업 위주다()
 - 2) 기존 여성정책에 따른 사업과 별 다르지 않다()
 - 3) 새로 발굴된 지역특화사업 아이템이 많다()

2. 광주광역시가 추진하고 있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이 앞으로 광주의 도시 이미지 개선과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가지만 골라 주십시오.
 - 1)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2)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다()
 - 3)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3. ‘여성친화도시 광주’의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광주’만의 고유한 도시 자산을 활용한 특화된 여성친화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가지만 골라주십시오.
 - 1) 현재 추진 중인 사업으로 충분하다()
 - 2) 장기적으로 지역특화사업 발굴이 필요하다() 3) 잘 모르겠다()

4. 광주광역시 여성친화도시 ‘광역단위 지역특화사업’ 추진을 위해 광주의 유·무형의 자산 중 여성친화정책 발굴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항목을 5개 골라 주십시오.

<부록 3> 광주광역시민 대상 설문조사 내용

1. 귀하께서는 광주광역시가 전국 최초 ‘광역형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후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여성친화 조성 사업을 알고 계십니까?
 괄호 안에 한 가지만 ○로 표시해 주십시오.

- 1) 잘 안다()
- 2) 조금 안다()
- 3) 전혀 모른다()

2. 광주광역시가 추진하고 있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이 앞으로 광주의 도시 이미지 개선과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괄호 안에 한 가지만 ○로 표시해 주십시오.

- 1)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 2)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다()
- 3)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3. 평소 생활하시면서 광주의 여성친화적 환경이 어느 정도라고 느끼셨습니까?
 괄호 안에 한 가지만 ○로 표시해 주십시오.

- 1) 여성친화적 환경 수준이 높다고 느끼고 있다()
- 2) 여성친화적 환경 수준이 보통이라고 느끼고 있다()
- 3) 여성친화적 환경 수준이 낮다고 느끼고 있다()

4. 광주광역시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도시 이미지가 형성되었거나 형성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다음 중 ‘광주’라는 도시가 외부에 어떻게 알려지는 것이 도시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중 5가지만 골라 ○로 표시해 주십시오.

- 1) 민주인권평화도시() 2) 아시아문화중심도시() 3) 여성친화도시()
 4) 교육 도시() 5) 음식 도시 () 6)관광 도시() 7) 첨단산업도시()
 8) 자동차 도시() 9) 정치 1번지() 10) 국제도시()

5. 광주광역시민으로서 광주의 유·무형의 자산 중 어떤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중 5가지만 골라 ○로 표시해 주십시오.

- 1) 5·18 민주화 운동() 2) 광주비엔날레() 3) 아시아문화전당()
 4) 국립공원 무등산() 5) 김치축제() 6) 총장축제()
 7) 광산업과 첨단산업() 8) 각종 국제대회() 9) 음식문화()
 10) 예향(藝鄕)의 전통() 11) 교육 환경() 12) 시민 민주 의식()

6. 설문 통계 분석을 위한 질문입니다. 괄호안에 ○로 표시해주십시오.

- 1) 남성() 여성()
 2) 50대 이상() 50대 이하()
 3) 직장인() 비직장인()